

# 건축사

특별기고 2010 정기총회를 마치고  
칼럼 건축가 ± 건축사  
시론 서울 북촌(北村), 이대로 좋은가  
그린(Green)을 가진한 그린워시(Green Wash)  
2010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2010년도 건축사에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91  
<http://www.kira.or.kr>  
201003

## 2010 정기총회를 마치고

The closing address of 2010 regular general meeting

특히 우리 협회를 일원화된 단체로 발전시켜 미래를 밝혀 나가기 위해 지난 3년간 논의해온 건축사단체 통합을 마무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총회의 결과를 보면 단체통합에 대하여 대의원님들은 대의는 인정하나 변화를 수용하기가 아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훙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고 따스한 봄기운이 넘치는 완연한 3월입니다. 작년 이맘 때 취임하여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원님들에게 드린 약속, 건축사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생존대책을 강구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온 1년이었습니다. 바로 취임 때 말씀드린 살기 위한 전략, 인정받기 위한 전략, 꿈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에 우리 건축사들의 권익에 관련된 각종 법, 제도의 개선, 공제사업추진, 친환경건축설계 교육기관의 운영,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준비, 건축사 전문도서 발간, 건축산업대전 활성화, 건축문화 홍보행사 개최, 건축사단체 통합 추진 등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특히 우리 협회를 일원화된 단체로 발전시켜 미래를 밝혀 나가기 위해 지난 3년간 논의해온 건축사단체 통합을 마무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기회가 시대적으로 물어야 할 숙명적 시기이기도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건축계에 찾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합정관개정건은 지난 11월의 임시총회와 같이 이번 제44회 정기총회에서도 찬성 189표, 반대 118표, 무효 2표로 2/3이상의 내의원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임시총회 개최 후 회원의 이해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사 4인과 시도회장 5인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새로 발족하였고 전 회원 설문조사, 전국 시도건축사회 의견취합, 좌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무엇보다 반대회원의 쟁점사항이나 전 회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몇 달 동안 밀도있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총회의 결과를 보면 단체통합에 대하여 대의원님들은 대의는 인정하나 변화를 수용하기가 아직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협회의 전열을 가다듬어 건축사의 권익을 위하여 생존대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진로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쓸겠습니다.

올해 남은 임기동안에는 건축사법 전면개정을 비롯하여 발주제도 및 건축물 신고제도의 개선, 공제사업 추진, 건축물관리법 제정추진 등,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우리들과 미래의 건축사들을 위하여 당연한 혜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진행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힘을 모아 전진한다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머지않아 건축사가 문화시대를 이끄는 창의적 리더로서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활동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는 국운상승의 해라고 합니다. 동계올림픽 성과와 함께 건축시도 상승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회원님들 사업의 번창과 기정의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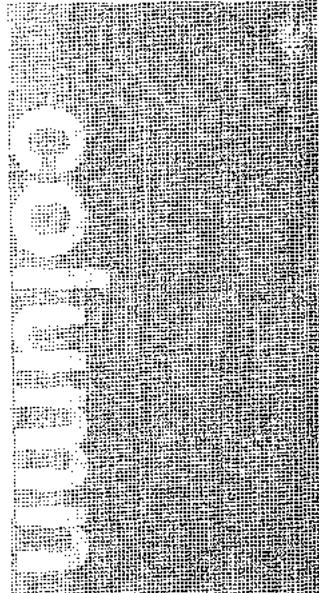
최영진 / Choi, Young-jp, KIRA  
대한기증사협회 회장

- 현장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장, 사업위원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 회장
  - 현장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산의위원
  - 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탑 대표  
국기보훈처 산의위원  
국토해양부 종합심의위원

# 건축가 ± 건축사

± Architects

당연히 국가가 인정한 자격은 존중 받아야 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내가 갖지 않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 건축계는 다른 분야로부터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6일 한국건축가협회 제 27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저는 협회의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후 2년여 동안 중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회장 이취임 행사가 치러지는 내내 저는 강한 악유과 동시에 참담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열린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기총회에서 건축단체 통합관련 협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향후 건축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단감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3단체가 함께 나누었던 통합에 대한 그 많은 논의와 열정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통합이 거론되면서 각 건축 단체나 개인들은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느라 머리가 지끈지끈할 지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지내야 할 회장으로서의 임기에 대한 우려가 커 “나 때문에 통합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의 문제는 빼고 결정해도 좋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건축계의 미래를 위해 이와 유사한 생각을 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2월 25일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된 기저의 한 부분에는 건축가협회가 건축사협회 회원의 자격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 데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국가가 인정한 자격은 존중 받아야 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불신과는 작별해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갖지 않았느냐를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내가 갖지 않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 건축계는 다른 분야로부터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 받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이런 꿈토를 이루어 내야하고 그런 가운데 아래와 같은 건축계가 지면하고 있는 심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1. 장시간 동결된 혹은 삭감되고 있는 설계비의 적정화, 2. 건축설계사무소 규모의 양극화와 대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무소의 열악한 운영실태, 3. 5년제 건축대학 졸업생들의 배출로 연유된 수요, 공급 불균형 및 진로의 한계, 4. 인증원이 설립되어 있고 이미 많은 대학들이 실사와 인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인증원 근거법, 5. 건축기본법이 공포되고 해를 넘겼으나 아직도 국회 계류중인 건축사법, 6. 협회통합에는 긍정적이면서도 설계·감리 분리 문제 등에는 양분되어 생각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입장의 차이, 7.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메가톤급 사업에 대한 건축인들의 의견 표명 부진, 연일 매스컴을 달구는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외국인마저도 솔깃하지 않은 송도 외국인전용단지개발, 새 만금 사업 등에 대해 왜 건축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소통과 교류의 장이 필요합니다.

통합이 성사됐더라면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에 동시에 등록함으로써 양 부처로부터의 지원 하에 좀 더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었을 터인데 기회를 놓고 말았습니다. 경의야 어떻든 정기총회에서 협회통합에 대한 정관 개정은 부결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남의 탓만 하고 서로를 질타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 사명은 무겁습니다.

우리는 2007년 전국건축사궐기대회를 기억합니다. 폐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고헌법을 뒤흔든 설계경쟁반대의 함성을! 그러나 인터넷에서도 우여곡절을 거쳐 법안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베이저 언론에서는 한결같이 이 사건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함은 그럴 지경으로 건축계가 사회와 유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축과 사회를 위하여 하면서도 서로 다른 목표점을 지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했던 일방적인 사고와 묵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마음의 벽을 헝어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들의 속마음, 기대치, 미래, 희망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가? 건축사?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이상희 / LEE, Sang-Hee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공간그룹 대표
- 월간 공간 발행인 겸 편집인
- 한양대학교 박사, HonFAIA
- UNESCO Chair Professor
- 벌링 스마트협회 회장

# 서울 북촌(北村), 이대로 좋은가

Bukchon in Seoul, Is it all right as is?

중앙간선도로망을 구축하려는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영향평가도 해보자고 제안해 본다.  
유서깊은 정독도서관 건물을 문화 전문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축대를 없애어 접근이 용이한 북촌의 중앙공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에게 북촌은 과연 어떤 뜻인가? 서울에게 북촌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북촌은 어떤 모습으로 남고 어떻게 변화하는 게 바람직할까?

우리 민족이 서울에 수도를 정한 지 600년하고도 16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나칠 정도로 복원된 궁과 성 외에는 고도(古都)로서의 시간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나마 채 100년도 안된 지나간 세월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북촌이라 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동이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인사동은 바닥만 정비를 해 골목길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길바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자 건물이 새로워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결국 오늘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다음은 북촌 차례란 생각이 뇌리를 스치면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아닌가 아니라 삼청동길, 가회동길, 북촌길 등 북촌의 길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업화되어버렸다. 섬처럼 몇 명 어리 남아있는 한옥 지붕들이 안쓰럽게 모여 있는 모습은 마치 땅수를 피해 머리만 처박고 있는 꿩같이 쓰운하다.

북촌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한옥 매입 등을 추진하던 서울시 당국의 관심은 점점 청계천으로 그리고 용산으로 흘러가 버려 희미해져만 기고 관광객을 위한 정책만 점점 힘을 받아가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북촌 고경을 옮까를 생각해 볼 때 그건 북촌이 살아있는 역사이기에 흥미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싶다. 살아있는 동네가 되려면 북촌은 사람이 사는 동네로 남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야 그 곳을 찾은 사람들이 “과연 나도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살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할 것이 아닌가.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농네로 유지되어야 북촌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서울시가 중앙간선도로를 북촌 지하로 관통시킬 계획이 있다고 한다. 또한 북촌의 큰 뭉칫땅 증기무사, 미국대사관 판사터 등으로 북촌의 상업화를 부채질 할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만 들려온다. 게다가 북촌 중앙에 제일 크기 자리잡고 있는 정독도서관은 축대로 둘러 쌓여 북촌 내 소통을 가로막고 있어마치 큰 유조선이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듯하다.

중앙간선도로망을 구축하려는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영향평가도 해보자고 제안해 본다. 유서깊은 정독도서관 건물을 문화 전문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고 축대를 없애어 접근이 용이한 북촌의 중앙 공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또 지하에는 쓰레기 집하장과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장터를 세우고 풍물매를 불러들이기보다는 마음에 깃들어있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구경 온 사람들이 한옥의 아늑함과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으면 한다.

정부예산 투입 결과물이 전시 행정 쪽으로 흐르는 병폐를 막기 위해 간판정비나, 골목길 정비 등을 제일 구석진 곳, 제일 작은 골목부터 전진적으로 해나가며 주민자치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합 조율해 서서히 시행하겠다. 북촌이 잘 가꾸어지고 보존될 때, 한옥에 한번도 살아보지 못한 우리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호기심이나 잠재된 향수에 이끌려 북촌에 찾아오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사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윤상구 / Yun Sang-koo  
북촌문화포럼 대표

-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이사
- 한국니셔널트러스트 공동운영위원장
- 2016 국제로타리 서울국제대회 HOC 위원장
- 전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 그린(Green)을 가장한 그린워시(Green Wash)

## Green Wash disguised as green

친환경건축 전문가는 건축전문가들이 건축기반위에  
계속적인 친환경교육과 기술연구로 접목되어져야하는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환경건축전문가 양성이  
녹색성장 정책의 일자리창출 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정부나 개인은 물론이고 협회, 단체 등에서 제일 많이 언급하는 주제는 녹색성장, 친환경, 에코, 그린이다. 이러한 단어를 배제시키면 뭔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뒤쳐진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영역과 분야를 불문하고 갑자기 너부도 많은 그린전문분야와 그린전문가가 생겨났다. 이를 걱정하는 비교적절한 단어가 그린워시(Green Wash), 그린버블(Green Bubble)이다.

그린워시(Green Wash)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친환경기업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는 환경 파괴적이면서 마치 친환경적이거나 끝고퇴치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자신들의 시장 이익과 네임밸류를 유지하고 늘리려 한다. 즉 소비자나 정책결정자들이 거대 공해 유발 기업들을 환경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발전의 열쇠라고 믿게 보레인 워시를 하려는 것 즉, 결과 속이 다름을 비유한 단어이다.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중심이 아닌 주변부의 내용만을 강조하는 것도 그린워시인데, 기업들만 그린워시를 하는 게 아니다. 학계, 단체, 정부…, 지자체도 한다. 건축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부분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건축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친환경건축의 정의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사용량감소, 자원 재활용과 환경공해 감소 기술 등을 건축에 도입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하여 건물의 생애주기가 통하여 철거될 때까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도록 유지, 관리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그동안 쉽게 접하는 실례로, 정리되지 않은 알박한 친환경이론으로 쇼핑몰에서 장신구를 구매해서 건축물에 착용시키듯 반영하는 현실이다. 건축물 외장에 자연환경이 철저히 무시된 밀폐된 커튼월을 적용하여 방위와 무관하게 로이유리를 사면 외피에 적용하고, 자외선차단용 스크린을 유리내부에 설치하는 오류를 범하면서도 친환경 건축디자인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병든 친환경건축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의 그린워시(Green Wash)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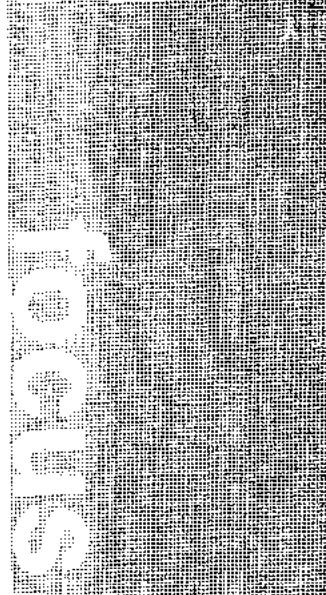
정부의 녹색정책의 주요 핵심인 친환경건축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인 과제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업으로 하는 우리 생활 자체지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선점하여 전공불문의 친환경건축전문가를 자칭하는 웃지 못 할 경우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한 방송사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집고쳐주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번에는 매우 기초적인 상식으로 건축계를 대표하는 친환경건축전문가(?)로 변신하여 광고성 홍보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인이 취미생활의 한 부분으로 토담집 전원주택을 지었다 하여 방송에 한번 소개 되고 나면 생태건축 친환경 건축전문가로 등극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정부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양성되는 친환경건축 전문가는 건축전문가들이 건축기반위에 계속적인 친환경교육과 기술연구로 접목되어져야하는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환경건축전문가 양성이 녹색성장 정책의 일자리창출 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

자격기준을 실직자나 막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수하여 친환경건축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취지는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정부정책의 그린워시(Green Wash)인 듯 싶다.

또한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가 구성에도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CO<sub>2</sub> 배출의 50%를 차지하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전문가가 배제되는 정부정책의 실상이 그린워시(Green Wash)를 넘어 그린버블(Green Bubble)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장현숙 / Jang, Hyun-sook, KIRA  
(주제이드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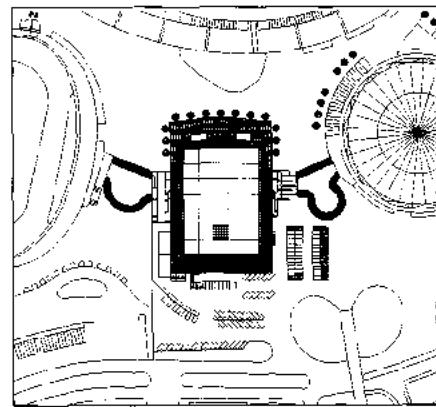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 우리금융 아트홀

## Woori Art Hall

산동제 / 정희원, (주)다율 건축사사무소

by Sheen, Dong-jae, KIRA



배치도

내지면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88-2	내부마감: 무느루쉬트마감, 백마인드글라스, 강화유리,
주로층도: 문화 및 전시시설, 행정동신사당	칼라복중유리, 회강석
내지면적: 656.775.60m <sup>2</sup>	구조설계: 시세구조
건축면적: 71,901.71m <sup>2</sup>	진기설계: 우림종합기술인
연면적: 157,327.12m <sup>2</sup>	설비설계: 미도설비기술사사무소
전체율: 10.96%	총: 환 CO2
용적률: 19.34%	사공사: 남해종합개발
구조: 지상 4층	건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구조: 철근포장리트조, 판교조	설계담당: 어윤라, 박준모, 조준상, 김진섭, 차이녀

88올림픽의 주된 무대였던 물링픽 공원안의 역도경기장을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이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역도경기장의 매스와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현재 임주해 있는 SBS스튜디오의 계속적인 사용성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 조건이었다. 기존 건축물의 구조방식, 외관과 대지와의 관계 등은 가능성과 제약을 모두 갖고 있었다. 그 가능성으로 역도경기장의 외관과 내부에서의 간결한 구조미의 질서,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역도경기의 속성상 공연장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 관객진입 레벨과 무대부의 레벨의 차이 등은 실내경기장 중 공연장으로 선환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이 있으며, 이에 반해 지붕과 바닥의 고정, 상부 지붕 입체 트러스 구조의 유지, 차음과 방음의 미비, 기존의 기계실 공간유지, 역도경기의 계속 수행 등 어려운 제약 조건 또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세심한 공연 공간, 특히 '뮤지컬 전용 공연장'의 가능과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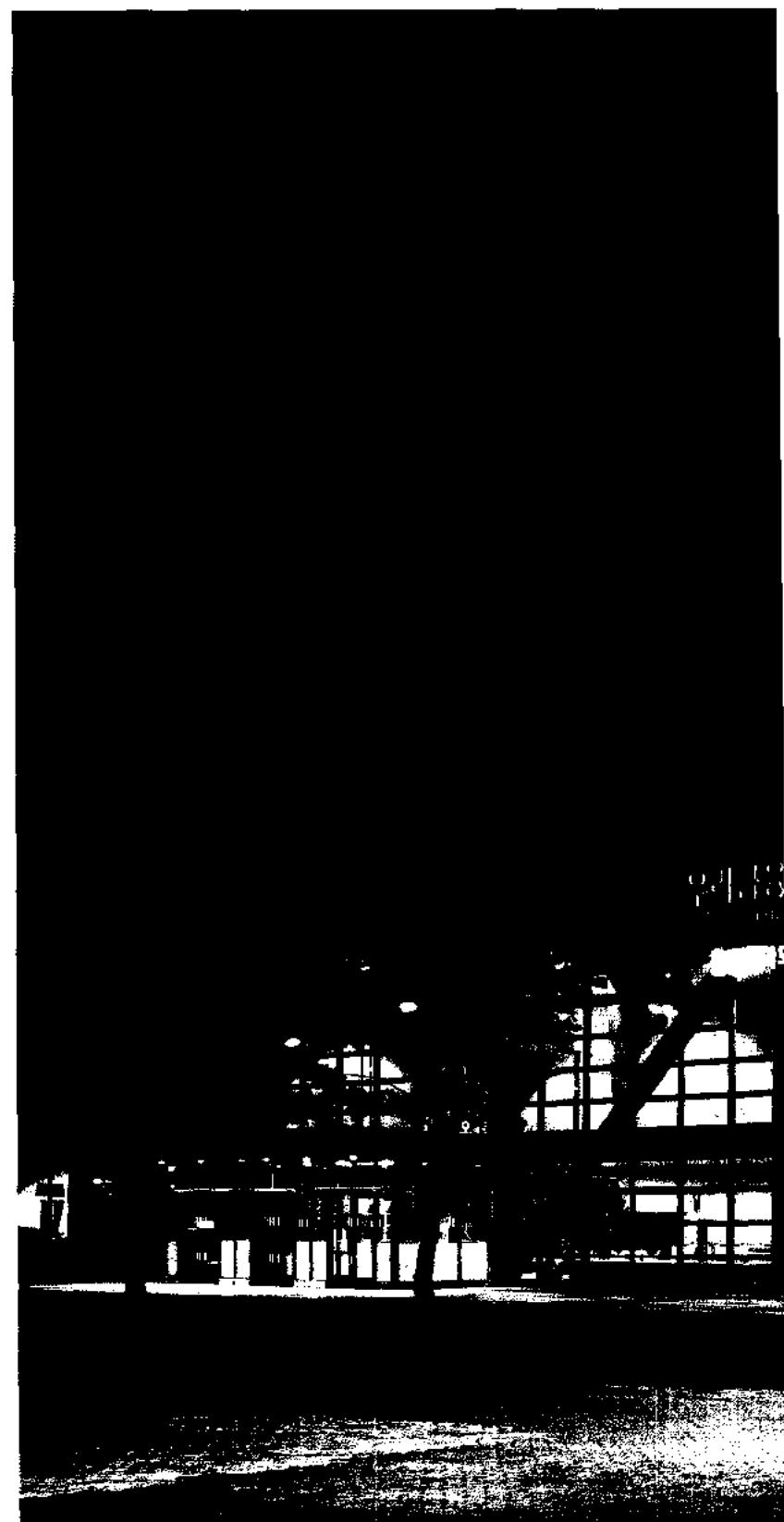
최초의 아이디어는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무대 및 객석공간의 크기를 형성시키고, 고정된 객석진입레벨과 무대의 진입조건에 맞는 단면공간의 결정에서 출발하였다.

공간의 재구성은 최초의 역도경기장의 정신을 살리는 기계적이며 부드러운 곡선으로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집속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공연장을 둘러싸는 내부의 매스와 기존의 외피사이'에는 새로운 로비 공간이' 생성되며, 이는 최초의 역도경기장의 투명함을 재생시키고 이때 유입된 빛은 공연장 매스와의 반응으로 활기를 가진다.

공연장의 내부공간은 최대한 실용적인 미감과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천정트러스가 비어있는 중앙부를 원형으로 치켜 올려 조명 브릿시를 구성하며, 이에 따라 내부공간은 중심성과 장소성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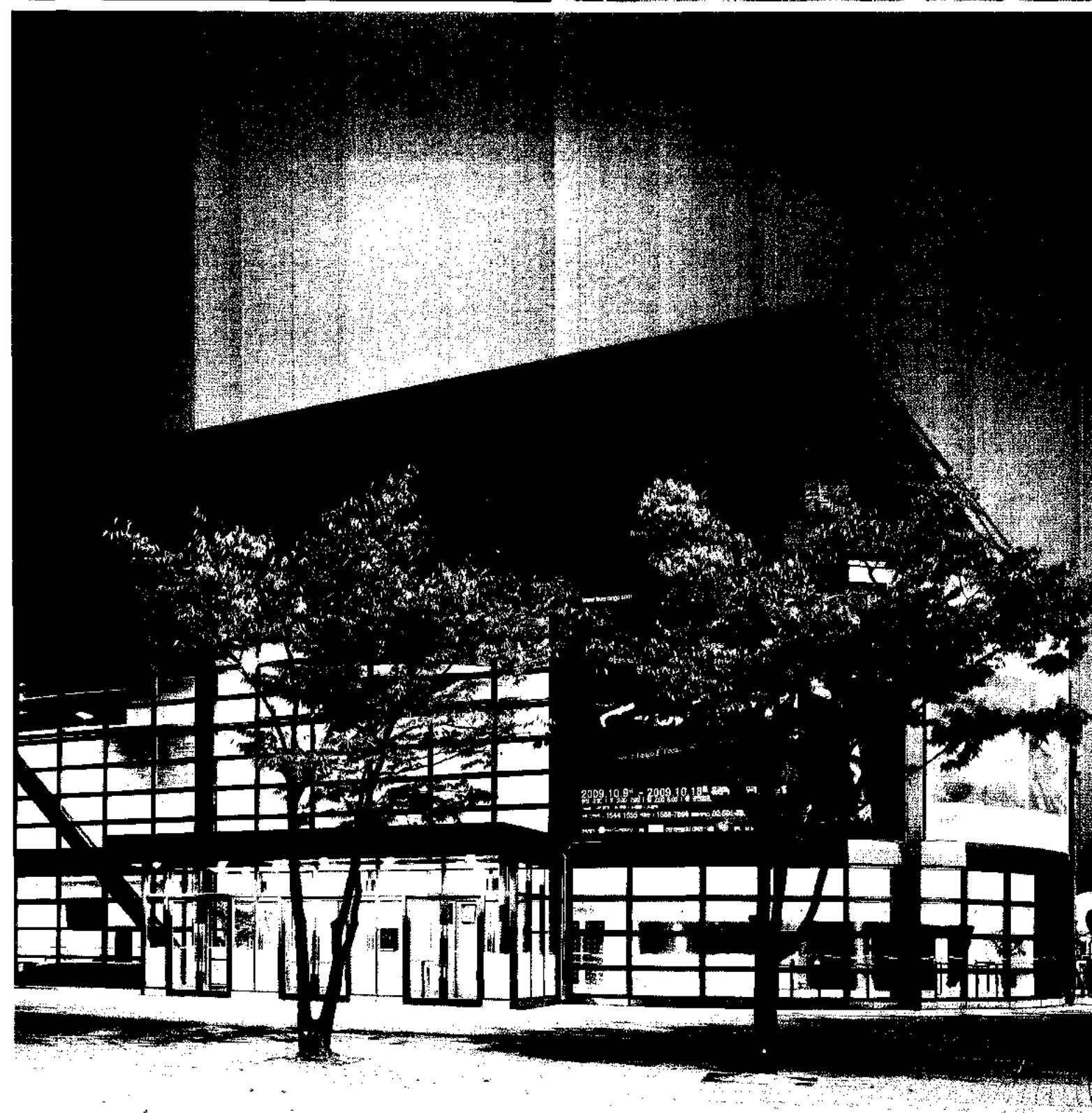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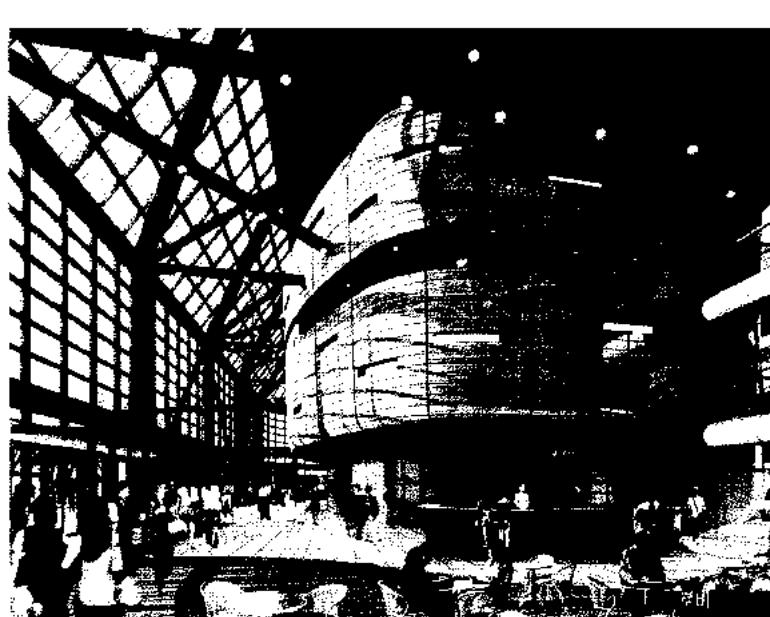
기존의 2개 층 스템드를 철거하고 들어서는 객석은 가파른 경사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2단으로 단면을 구성하여 둘러싸이는 느낌과 반시 벽의 형성으로 음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고도의 '친밀성(intimacy)'를 이룬다.

공연장의 음향조건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다양한 공연 장르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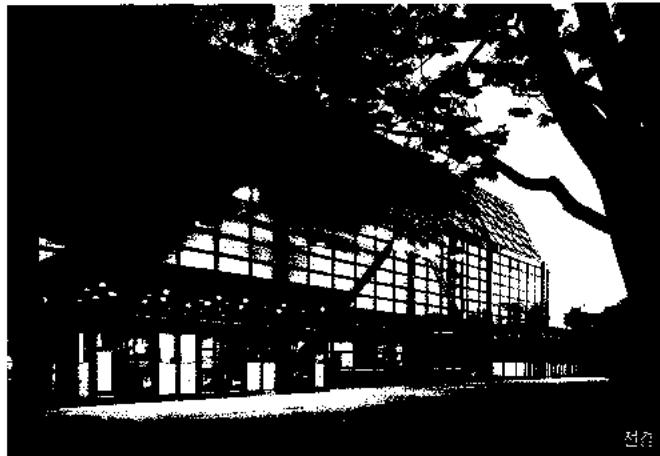


제작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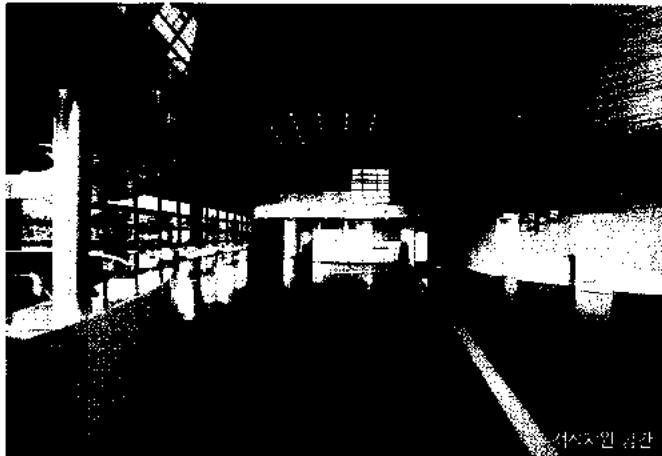


옹하는 건축적 진향조절과 적절한 확산, 반사면을 계획하여 전문성과 기변성 모두를 실현하였다. 무대기계, 조명, 음향기기 등 무대설비는 험정된 예산에서 구비해야하는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용하는 실용적 정신으로 임하였다. 무대지원의 과정은 물품을 위한 하역공간과 세트장의 신설에서부터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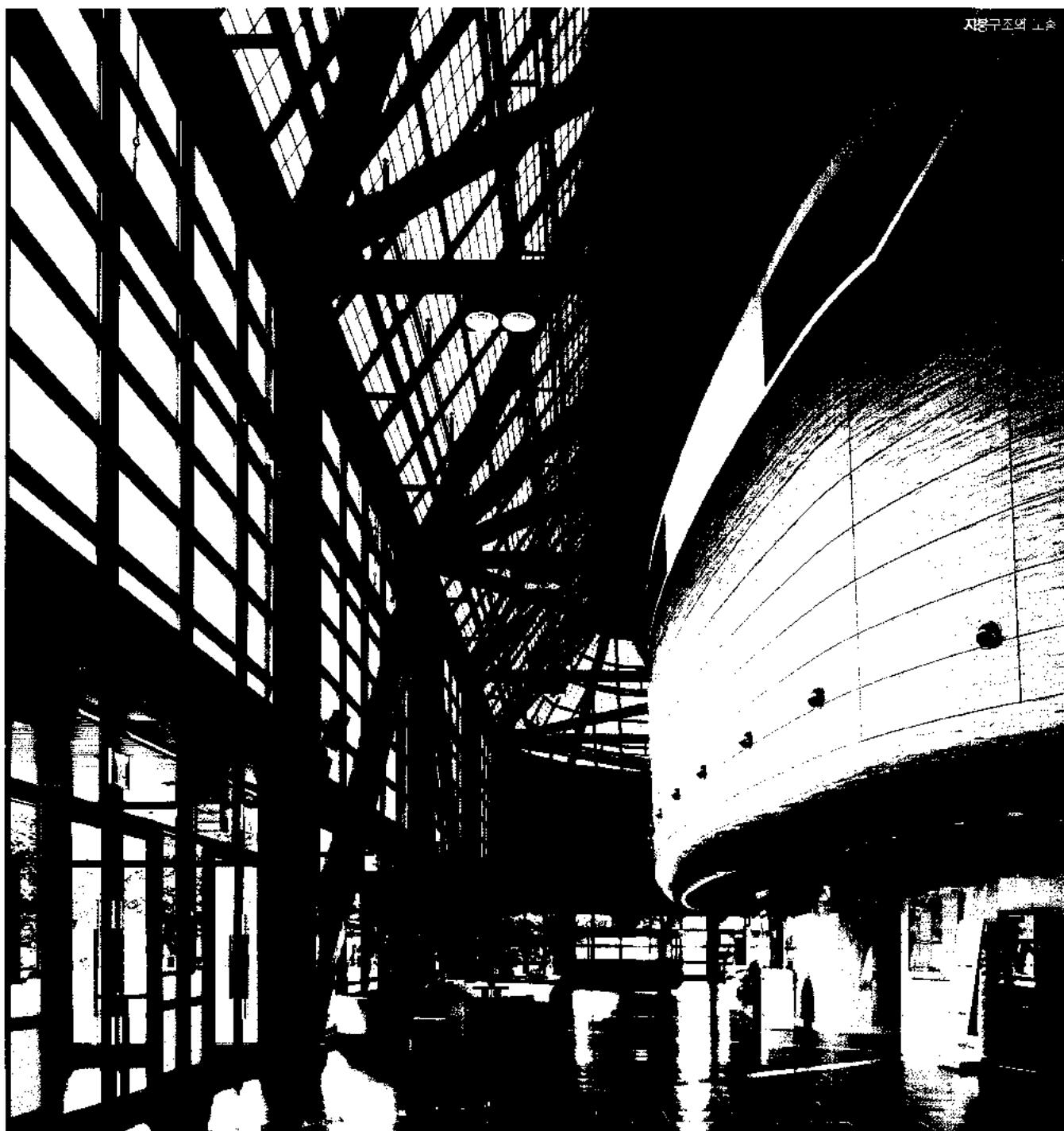
부식당을 비롯하여 분장실 등 출연진의 공간 또한 충분히 구비하였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여유로운 저녁, 공연장의 매스는 높은 나무의 소리통으로서 기존 외미의 금속 객자 안에서 부풀어 올라, 다시 태어난 축제의 장으로서 그 활기를 표출하게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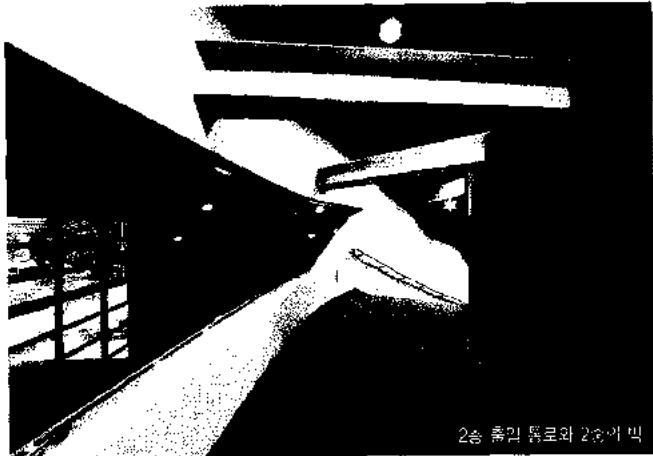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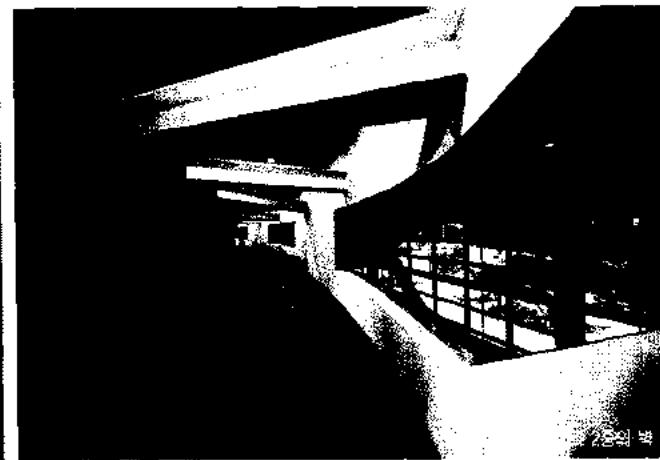
무대지원 공간



좌석구조와 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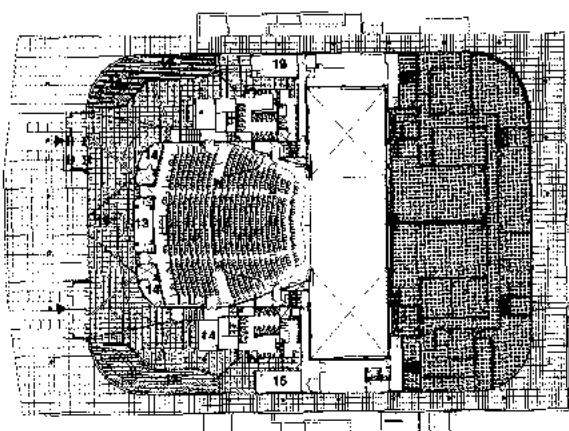


2층 출입 통로와 2층 이 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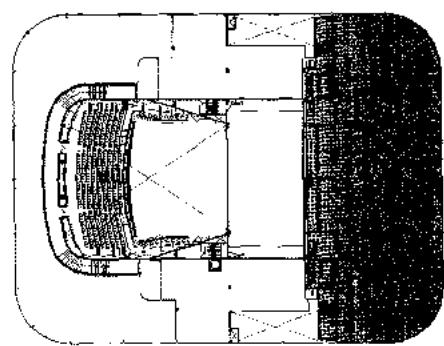


2층 이 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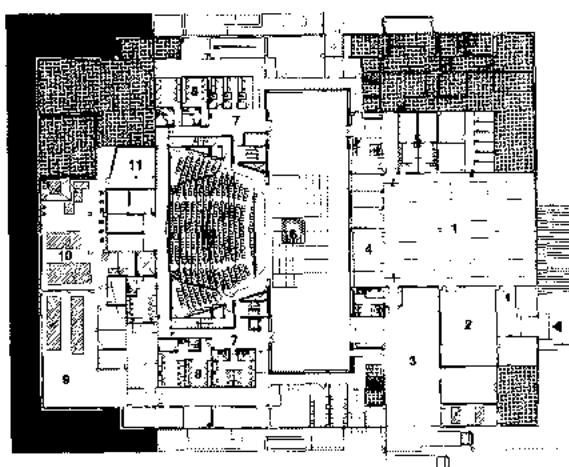
- |              |          |               |          |
|--------------|----------|---------------|----------|
| 01.. 의료 영양밥장 | 06.. 수부마 | 11.. 설비창      | 16.. 로비  |
| 02.. 충전승강    | 07.. 대기실 | 12.. 워크       | 17.. 리운지 |
| 03.. 세트 제작실  | 08.. 문장실 | 13.. 들판/조명조정실 | 18.. 메모실 |
| 04.. 방제실     | 09.. 전기실 | 14.. 사무실      | 19.. 회의방 |
| 05.. 텐트설/시위실 | 10.. 기계실 | 15.. VIP접견실   | 20.. 홍소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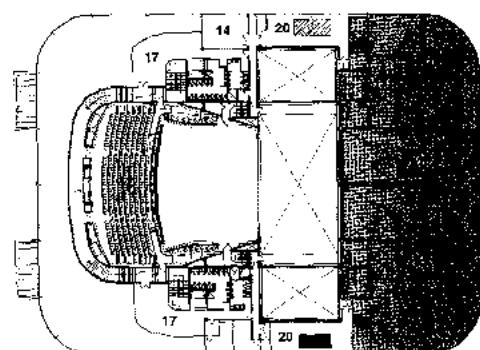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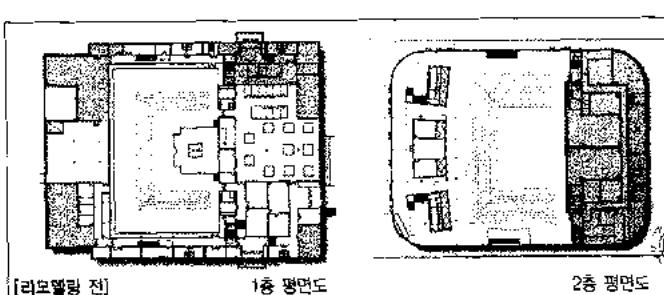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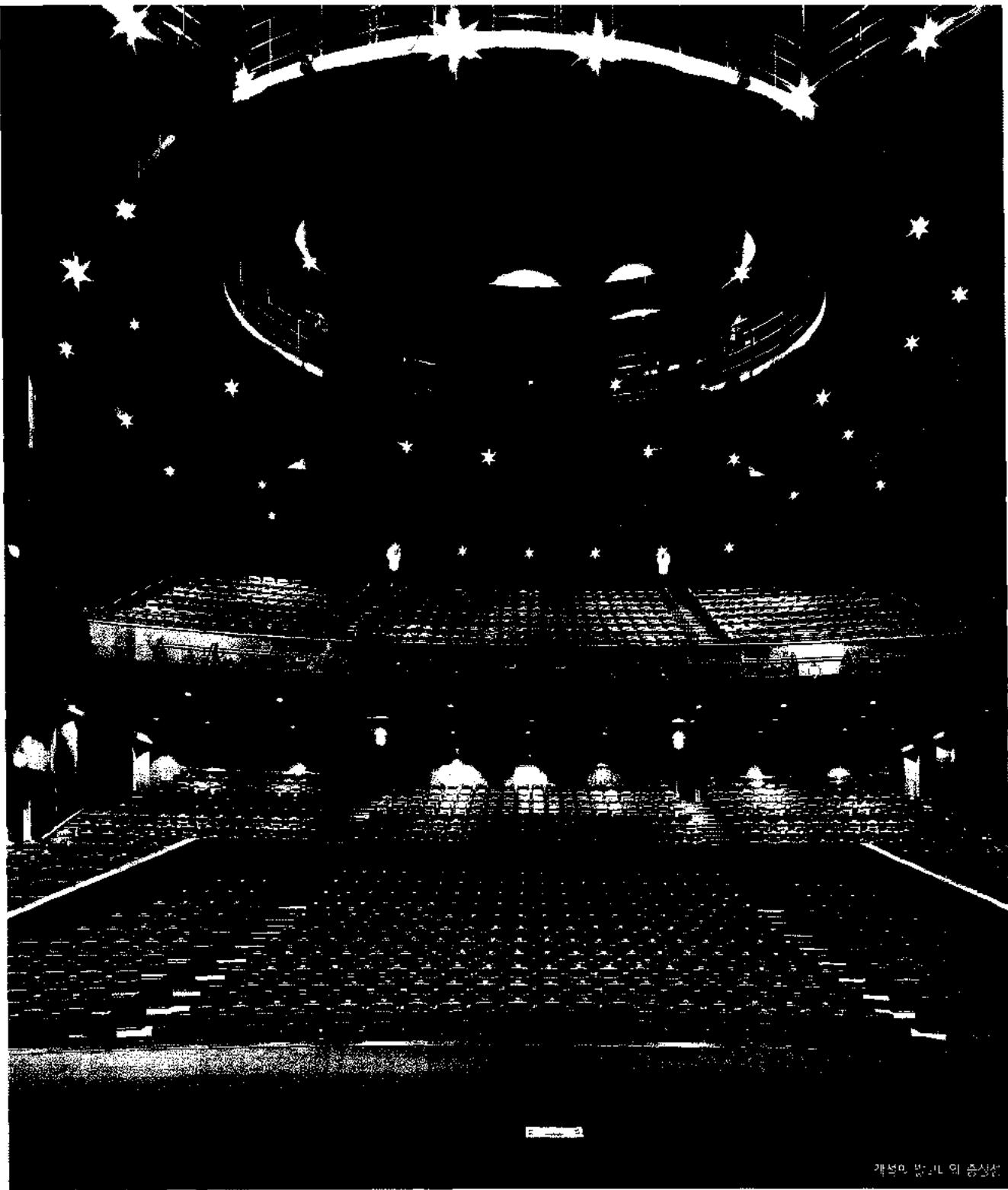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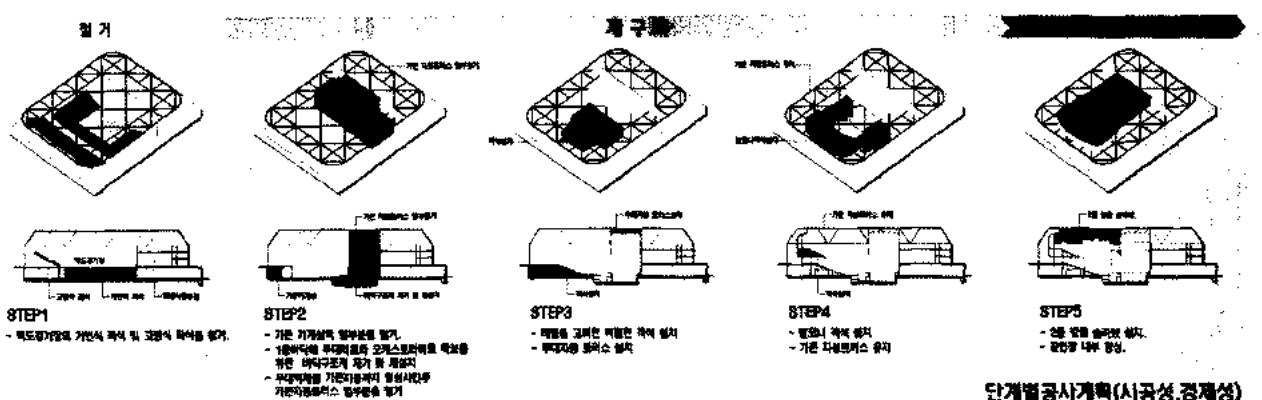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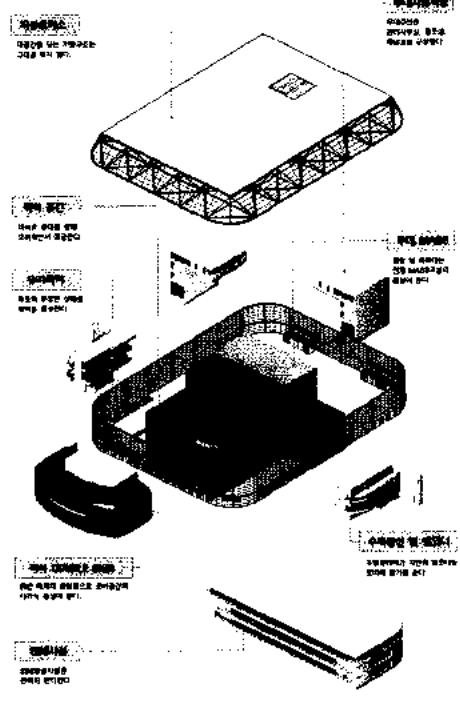


개설과 밤기의 충성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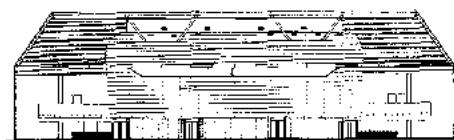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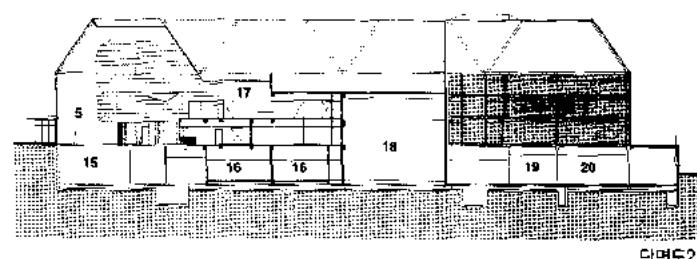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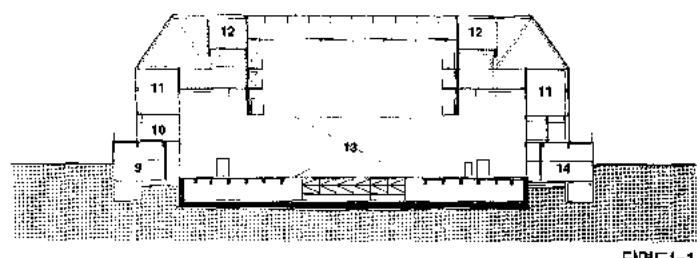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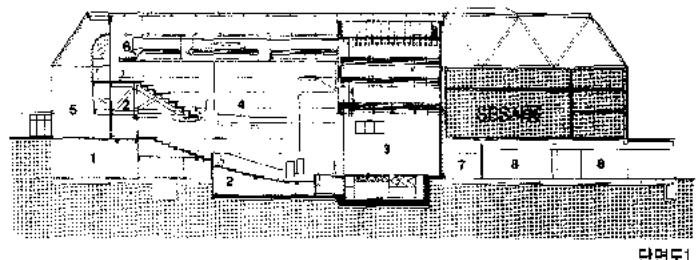


단계별공사계획(시공성,경제성)

■ 입단면 계획 및 시공계획-최적의 시공성, 경제성 확보



01\_ 기계실 06\_ 투광실 11\_ 송조실 16\_ 브리핑실  
02\_ 금기어점 07\_ 방세실 12\_ 부대기체실 17\_ 관문시  
03\_ 주무대 08\_ 연습실 13\_ 주무대 18\_ 수부대  
04\_ 객석 09\_ 배우 휴게실 14\_ 구내식당 19\_ 세트제작실  
05\_ 로비 10\_ VIP 접견실 15\_ 전기실 20\_ 세트보관실



공연장 입면 상세



단면도2-1



최적의 밤공연장 중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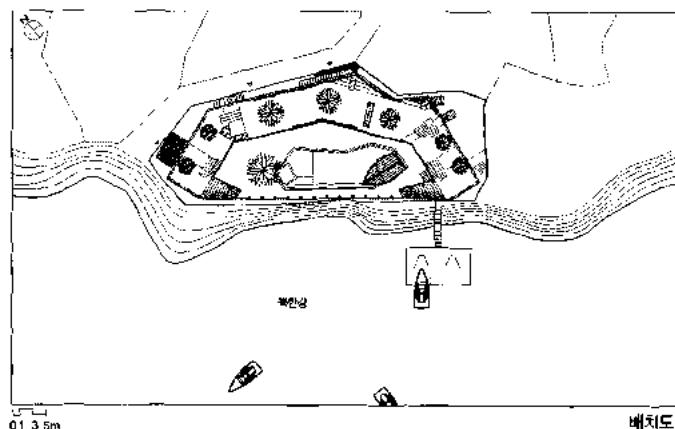
중정실

# 도현(島軒)

## Island House

김효만 / 정화원, 이로재김효만 건축사사무소  
by Kim, Hyo-man, KIRA

설계유지자	정기호	기획부	기획부
사업자등록번호	511-81-00000	구	주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로 1000	설계	설계
면적	872.63m <sup>2</sup>	구조	설계
건축면적	327.33m <sup>2</sup>	구조설계	설계
연면적	626.02m <sup>2</sup>	구조설계	설계
건폐율	38.86%	설계	설계
필적률	57.21%	설계	설계



강물에 달아있는 대지\_수려한 강원도의 산수풍경을 마주보면서 전면을 흐르는 북한강에 맞닿아, 강물위에 떠 있는 이 대지는 처음부터 자연의 밑부로서 강하게 인식되었으며, 동시에 이곳에는 '건축적 자연'으로서의 휴양의 장소가 구상되었다.

대지형태=건축형태=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_토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디각 부정형의 대지 형태를 따라 수영장이 있는 마당을 품어 안은 길다란 콘크리트 매스의 배치가 구성되어, 물과 녹지로 채워진 이 마당은 '건축화된 자연'이며, 강과 건축을 소통시키는 '연장된 강'으로서의 중심적 휴양공간이다.

안마당과 경사식 옥상정원의 연속순환동선-새로운 녹지의 자형생성  
매스의 옥상부분 전체는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상승하며 다양한 레벨로 옥상정원화되어 상층부 각 레벨의 침실들과 직접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1층 안마당의 양측면으로 최종 설속되어, 수영장과 녹지가 있는 안마당과 계단식 옥상정원 전체가 하나의 연속된 조경적 장소로서 순환되도록 구성되었으며, 이곳에는 물과 꽃과 과실수가 있는 '건축화된 자연'으로서의 개념이 의미되어있다.

파노라믹한 산수풍경의 전면적 실내도입\_당연히, 이 대지 형태의 매스 속 모든 실들은 강으로 향해 회화적 산수의 풍경을 훌쩍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풍경지향적 배치가 되어있으며, 상부 계단식 옥상정원의 바닥레벨들이 만들어내는 실내 경사천정선과 안마당의 바닥선으로 구성되는 거실의 거대한 전면창의 후레임을 통해 회화화된 파노라믹한 전면의 산수 풍경은 이 집의 대표적 인상이 되고 있다.

스킵루트로어의 산책적 내부공간-스킵루트로어의 산책적 옥상정원 외부공간\_내부공간은 반층 레벨로 연속 순환되게 힘으로써, 유연하고 변화로운 흐름의 공간을 연출하며, '건축화된 자연'으로서 떠있는 내나무화단



보현강측 진경



보현봉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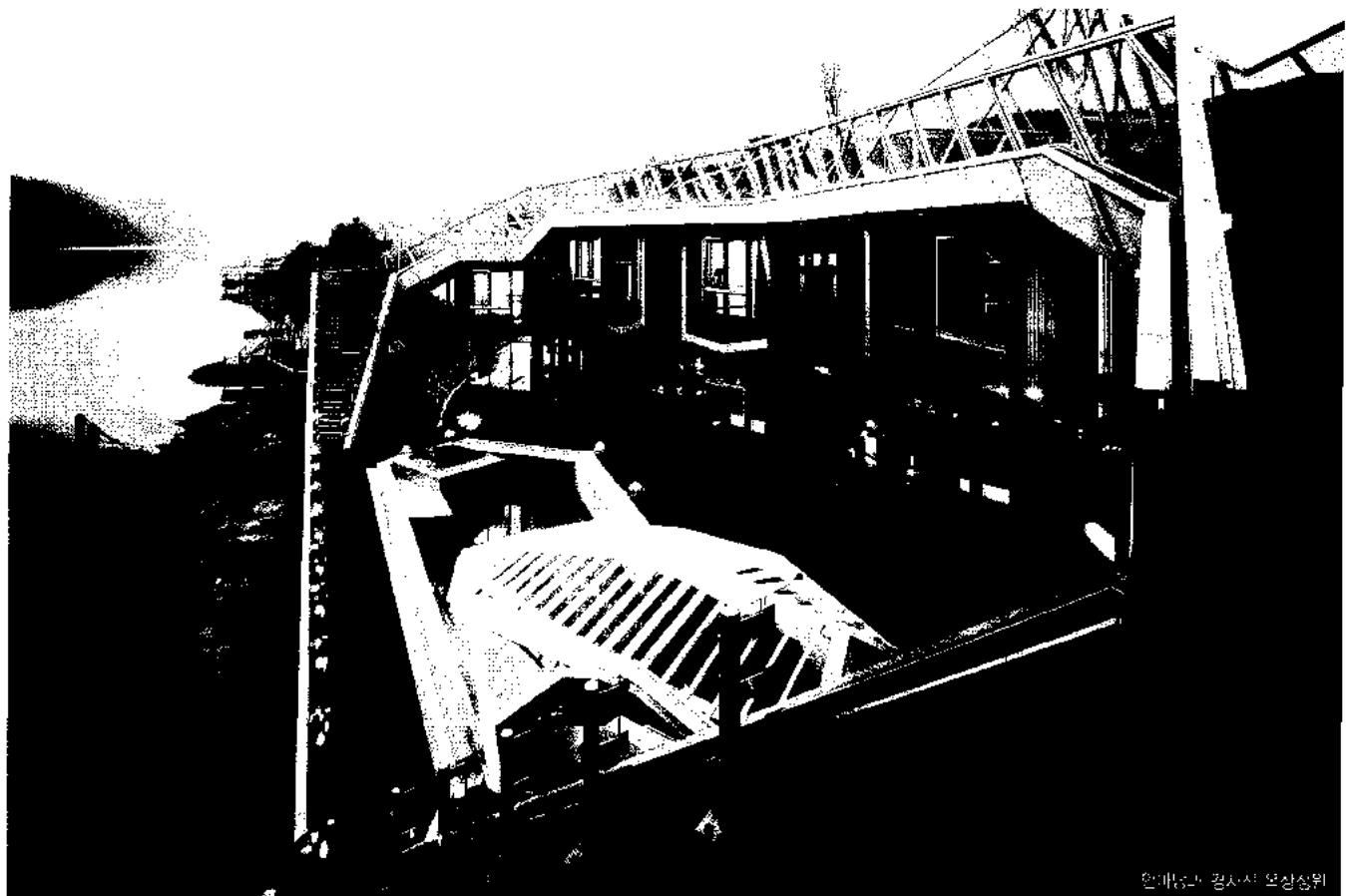
경마루 전경

을 내장하고 있는 여러개의 침실, 욕실의 백색 다면체의 매스들을, 1층 상부공간에 다양한 높이로 부유하게 힘으로서 수직적 공간성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록하게 하고 있다.

조경적 건축-주변산수풍경과 동화된 건축\_불규칙한 다각형 대지형태를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매스와 금속망으로 구성된 '산형' 형태는 계단순환식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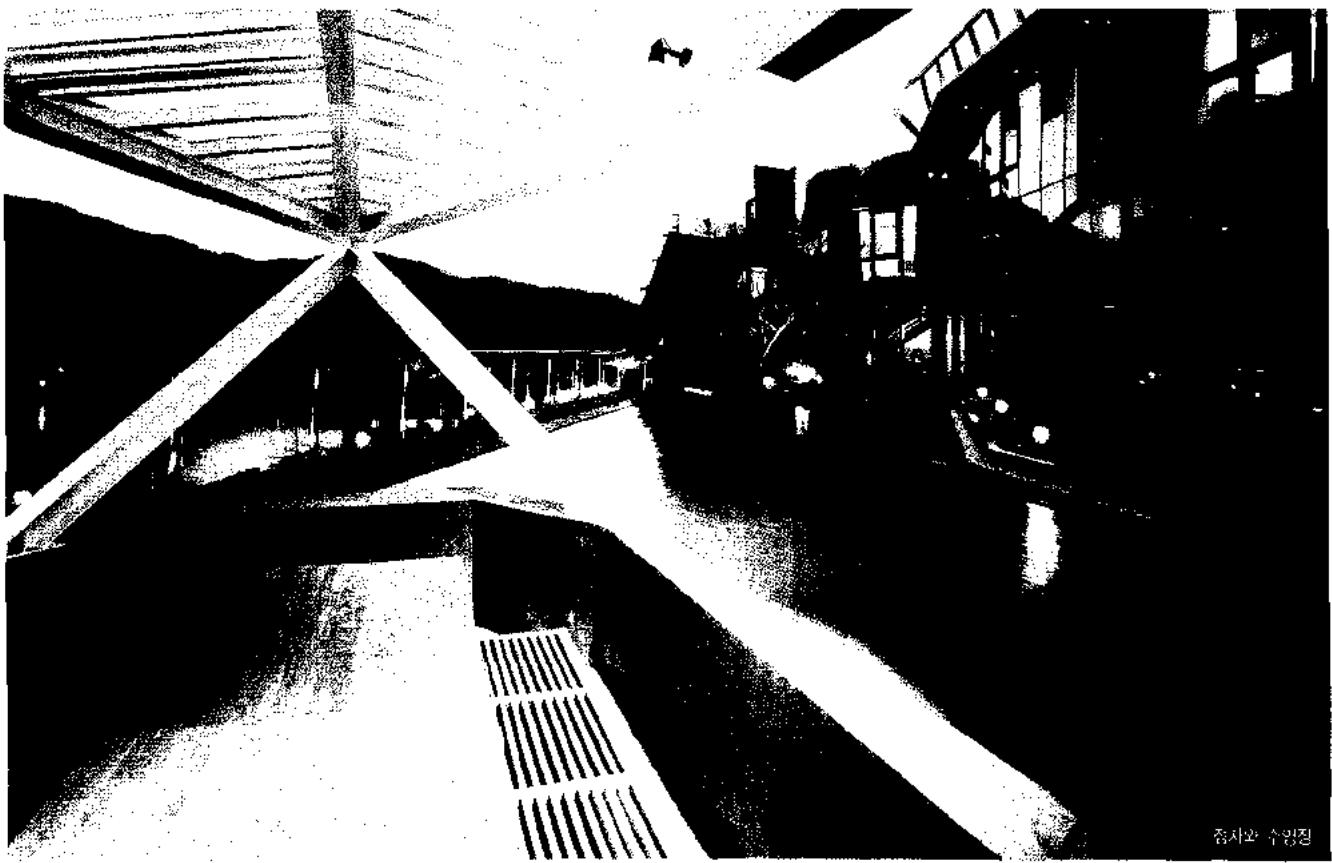
로 형성된 단면개념과 형태적으로 연합되어, 기존강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담은 '건축적 산'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사하게 되면서, 주변맥락의 일부가 되려는 초기의도가 형태적으로 구현 된 것이다.

건축적 '섬' -섬집(島軒)\_이로써 이 집은 '건축적 섬'으로서 섬집(島軒)이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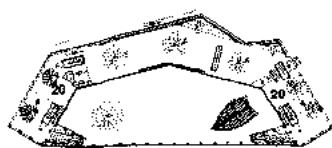
한마당드 경주시 오상정원





증자와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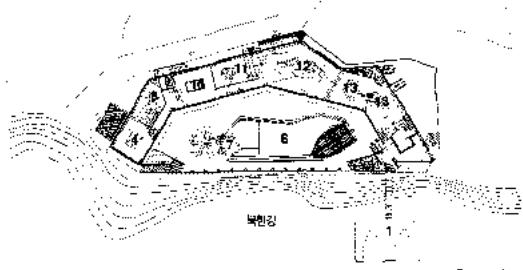
- |                 |             |             |            |
|-----------------|-------------|-------------|------------|
| 01_ 선학상         | 06_ 수영장     | 11_ 블아침     | 16_ 손님방    |
| 02_ 주차장         | 07_ 스파      | 12_ 거울      | 17_ 주인 침실  |
| 03_ 거제실         | 08_ 바 및 카드룸 | 13_ 쇠당 및 주방 | 18_ 어린이 경실 |
| 04_ 관리인 거실 및 사당 | 09_ 현관      | 14_ 접자지방    | 19_ 서재     |
| 05_ 관리인 임실      | 10_ 당구장     | 15_ 유동실     | 20_ 옥상정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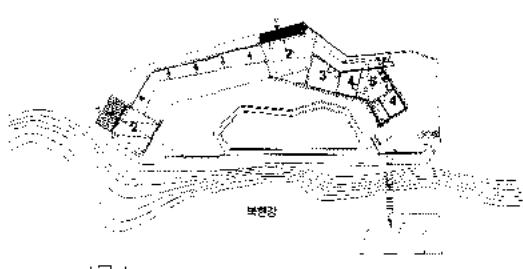
옥상 및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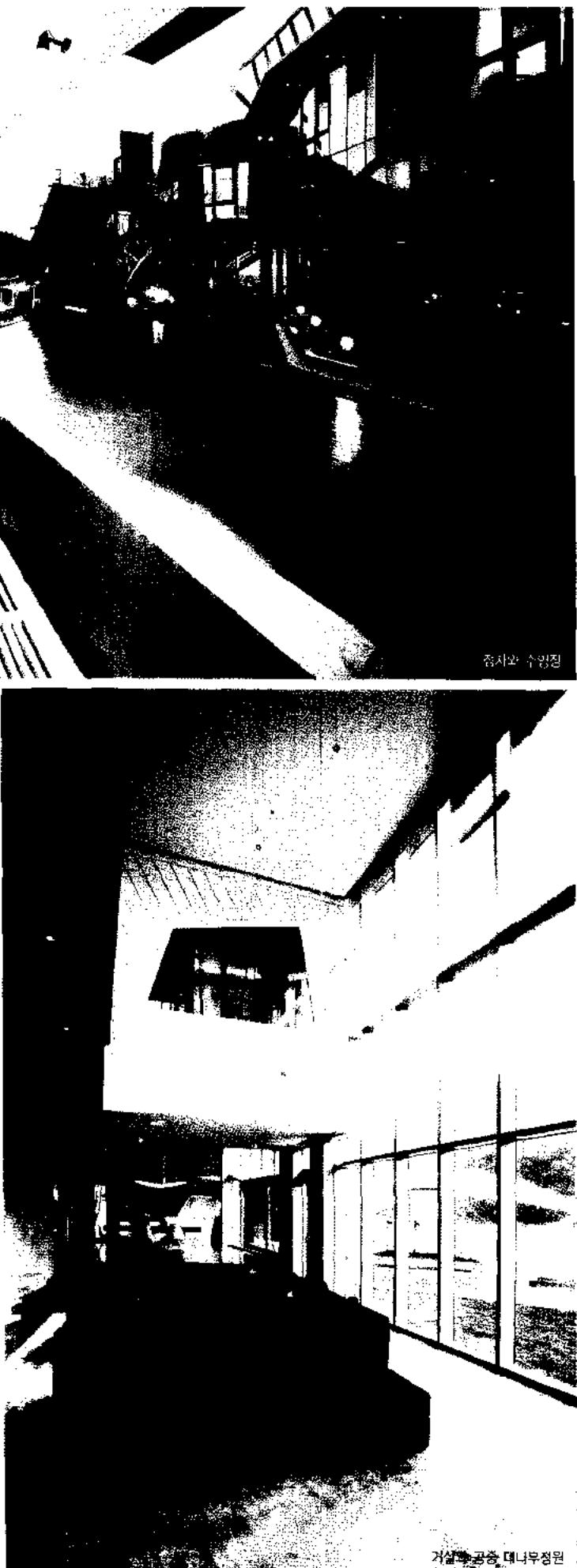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거울과 공중 대나무정원



벽난로가 있는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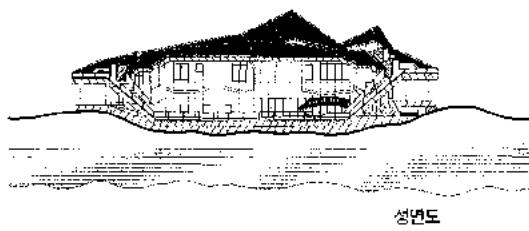


거실과 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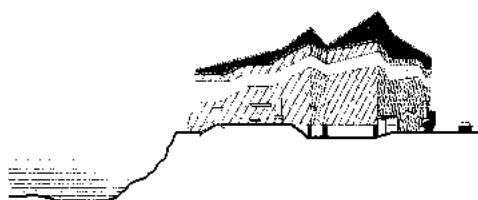
침실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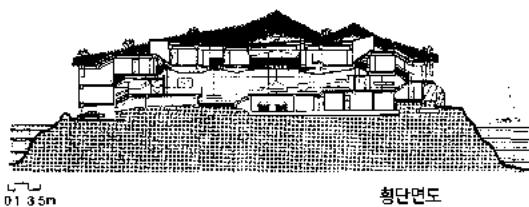
2층 힘살고의 브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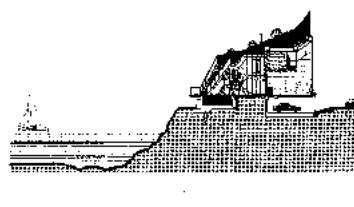
성면도



우측면도



01 3.5m



종단면도



기실진면 선수공간



광구장과 카드뮴 그린과 꽃봉오리 청자



어린이 침실과 서재 그리고 옥상정원 계단



나오카페가 카페

## 부산롯데타운

## Busan Lotte Town

박영건 / 정회원, (주)법건축 총합건축사사무소

by Park Young-kem, KIRA

대체위치	부산시 서구 중앙동 37-120-1번지 외 100평지	규모	지하 6층, 지상 107층
서면/서구	온단암입지이며, 풍물자치구, 종교신자민족자치구,	구조	철골근관조립구조
	외국인거주지구, 韓唐자거리인자치구, 구역	외부내각	일부금속셔터, 강화제 N1 관판, 복층유리
	시기자료성서일지?	구조설명	한민우 구조설립팀
주요증명	도면이나사진, 속도시설, 문화 및 경희시설,	설비설계	한길영씨
	업무나사업	한기설계	석우진치니어링
내시현적	40,054.90m <sup>2</sup>	시공사	롯데건설
전용면적	21,707.43m <sup>2</sup> (백화점은 6,516.0m <sup>2</sup> )	설계등급	건축설계 / Staff: 김지운, 박정관, 이승환,
%면적	576,433.58m <sup>2</sup> (백화점은 134,133.27m <sup>2</sup> )	설계등급	임승호, 신수미, 이재현, 장서원 /
전 평면적	54,229m <sup>2</sup>	기타설계	카드뮴설계 협업 New York SOM
총 평면적	971.53%		

1934년 개통한 부산 고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영도대교, 현재는 첨체된 구도심이지만 과거 가장 활기찬 상권을 형성했던 광복동 거리와 구부산시청의 역사를 간직하며, 부산시청이 위치했던 그 대지에 부산롯데타운이 자리한다. 1994년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부산롯데타운은 백화점, 플라자, 마트, 초고층타워의 4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12월 개장한 백화점동 이호 단계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과거 부산 최고의 번화가였던 대지의 주변거리들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전형적인 오피스 빌딩 및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마스터플랜 계획에 있어서 내지 북서측을 놀러싼 침체된 구도심과 남동쪽의 소형선박이 계류되어 있던 북부부두는 대지가 가진 칙칙한 환경이 아닌 건축적 요소로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패러다임이었다.

중앙로를 따라가는 긴 선형에, 바다를 품은 뜻한 형태의 지층부는 구두석의 컨테스트를 만용한 백화점동과 플리자동을 선연부에 배치하여, 수변부에 배치한 기하학적 형태의 타워와 구도심 사이에 이질적 요소를 완화시키고자 하였고 중앙로와 남포동역 등을 거쳐 부산롯데타운을 만나는 이용자들에게 백화점 전면광장은 도심의 쉼터를 제공하며, 향후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물길을 지나 공유수면 매립 후 타워 전면의 해변공원으로 거듭날 수변광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단지 내외부 거리를 걷는 보행자, 단지 주변을 제나가는 차량 이용자,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도시민, 이렇듯 거리마다 다른 사설에서 느끼는 부신롯데 타운의 다양한 이미지를 고려하여 백화점 입면에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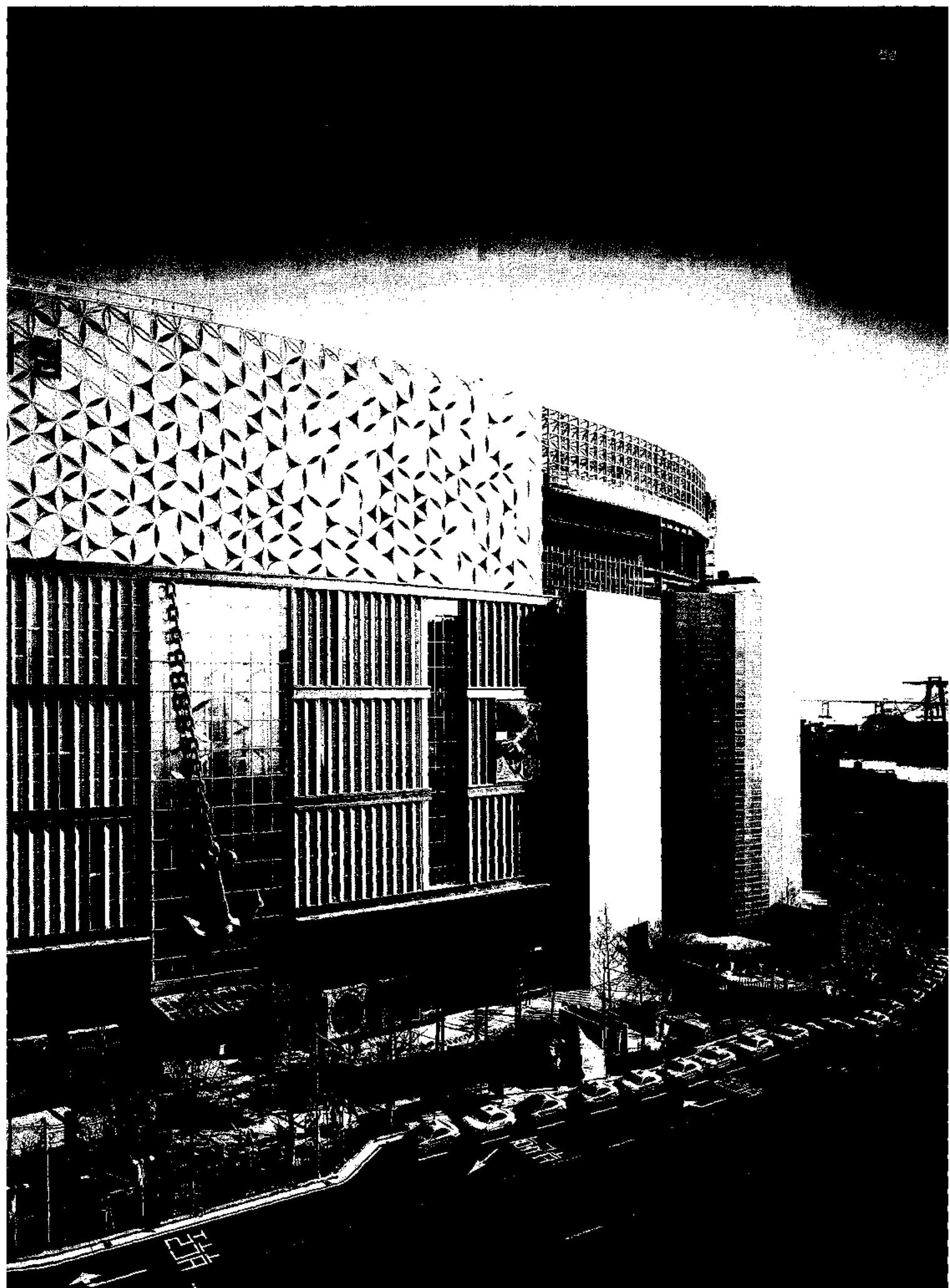
특히, 도심의 스카이라인 위로 드러나는 전통 문양의 꽃문양을 모티브로 한 꽃잎무늬 패턴을 통해 특화된 외관을 갖춘 백화점의 이미시는 이종래이어의 단면을 구성한 외벽시스템으로서 LED 조명과 꽃잎패턴이 어우러진 화려한 야경을 보여준다.

매장의 주요한 수직 동선인 에스컬레이터 혹은 외부 입면의 꽃잎파티션을 인용한 Void 공간으로 구성하여 풍어를 기원하는 만여 마리의 불고기를 형성하고 조형물과 함께 *Dynamic*한 공간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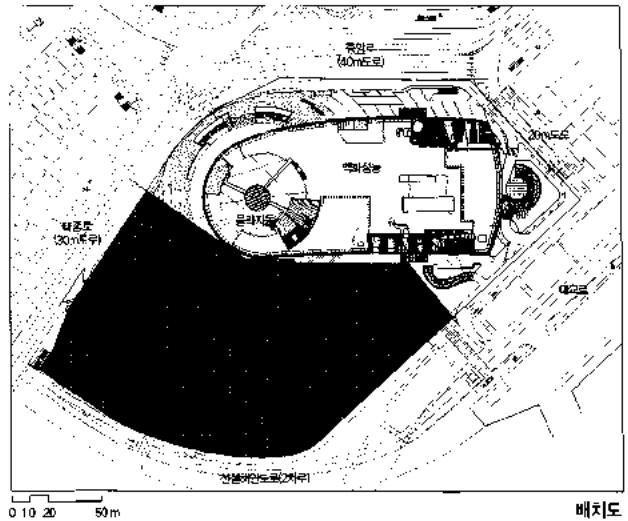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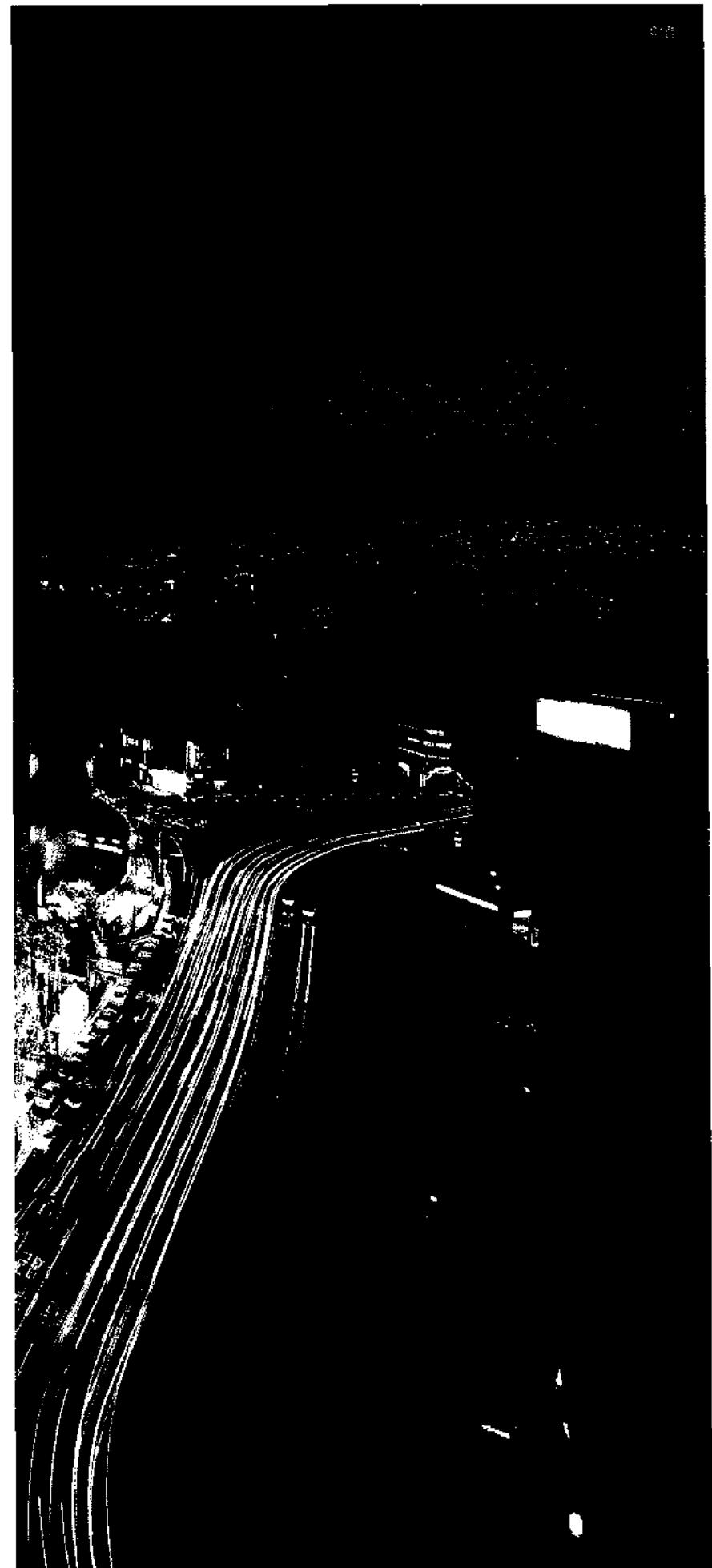
에스컬레이터 풀을 지나온 방문객들은 진입광장의 외부공간 Concept을 기반으로 한 육상정원과 더불어, 바다와 구도심을 함께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휴게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2009년 12월 백화점 개장 후 한 달간 기록한 방문객수는 350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치만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부산롯데타운이 미치는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활기를 잃었던 구도심에서 과거 부산의 중심지로시의 명성을 되찾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며 부산의 Landmark로서 앞으로 총 연면적 약 57만m<sup>2</sup>에 달하는 다양한 Program들은 정착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산롯데타운의 가장 큰 장점이자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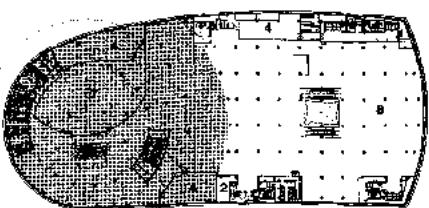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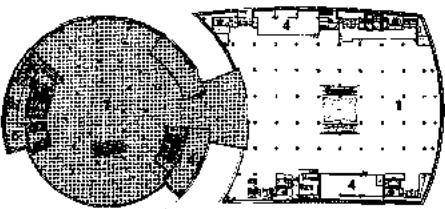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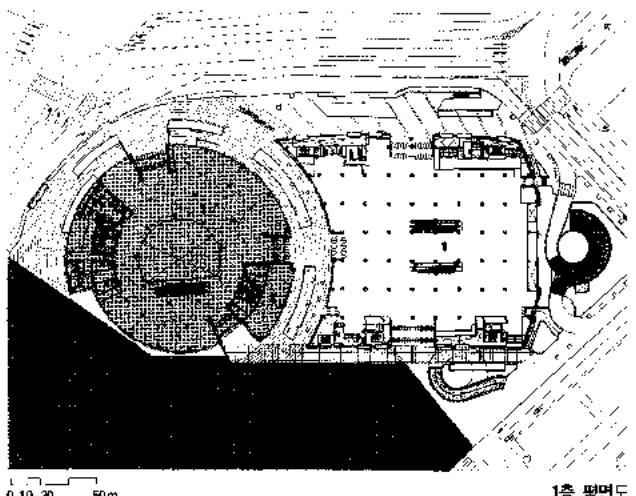
01\_ 매장  
02\_ 사무실  
03\_ 보안실  
04\_ 품질실  
05\_ 창고  
06\_ 휴게실  
07\_ 음회홀  
08\_ 푸드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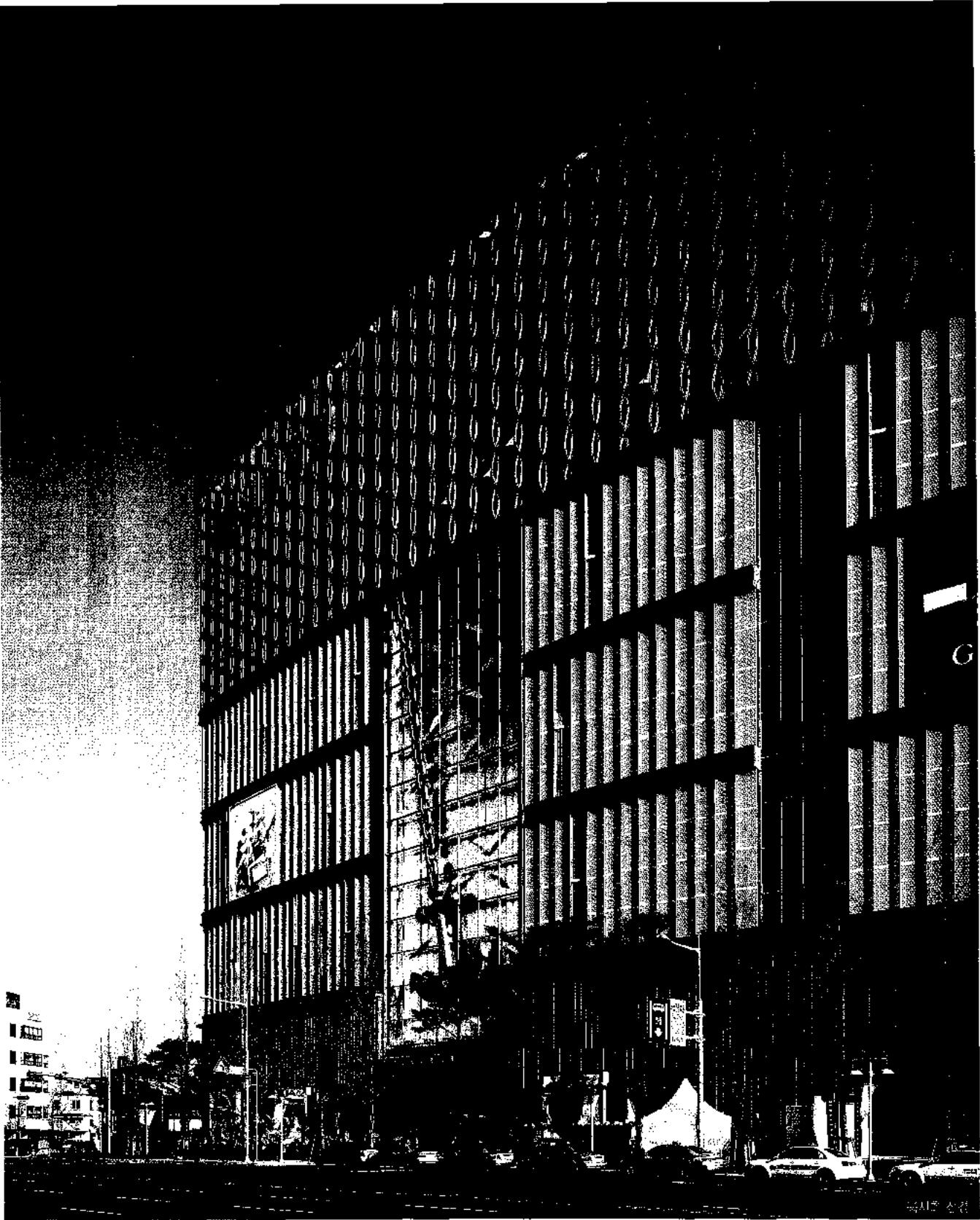


10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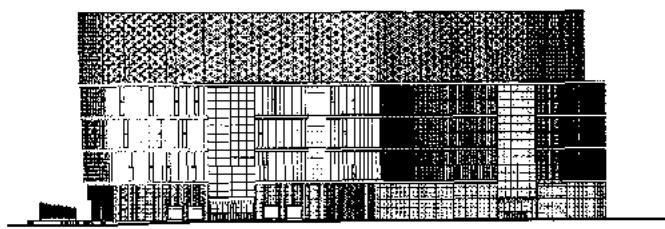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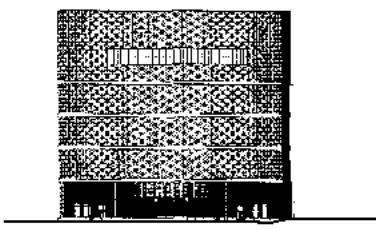


국시동 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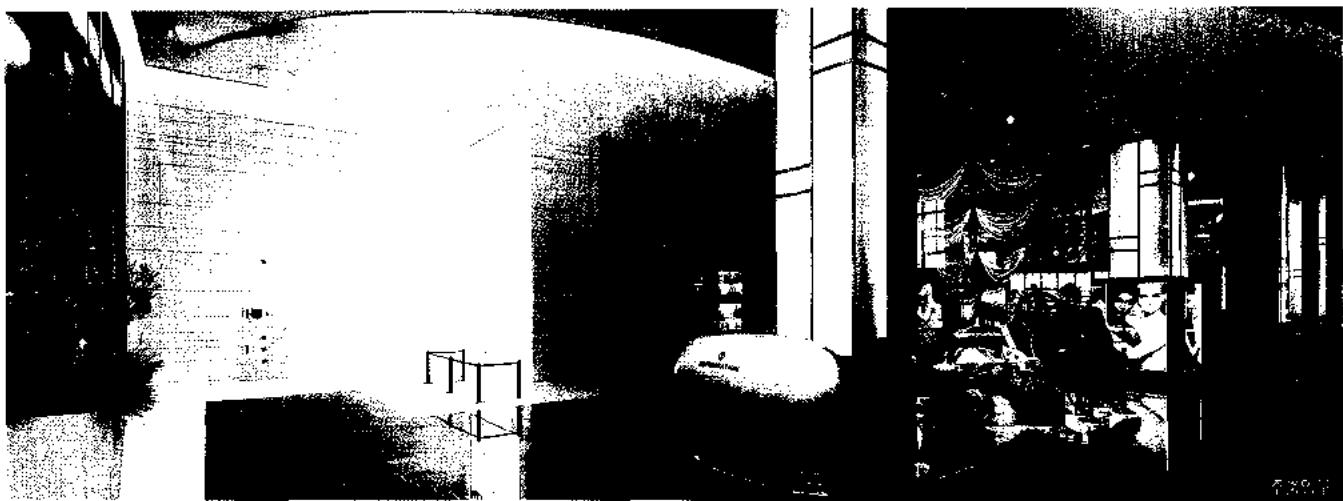


0 5 10 20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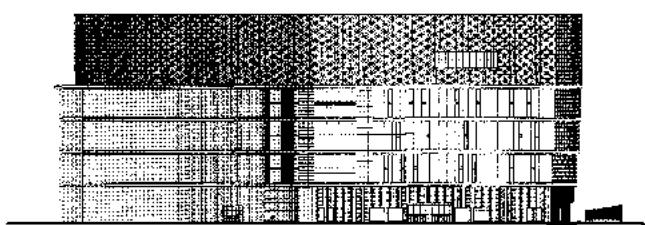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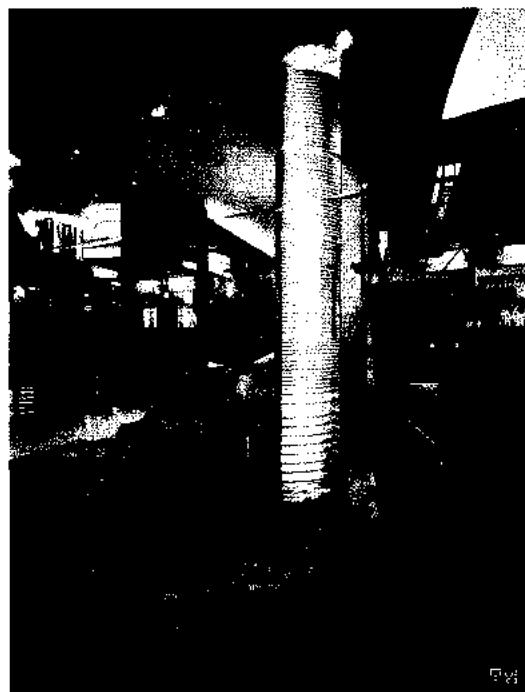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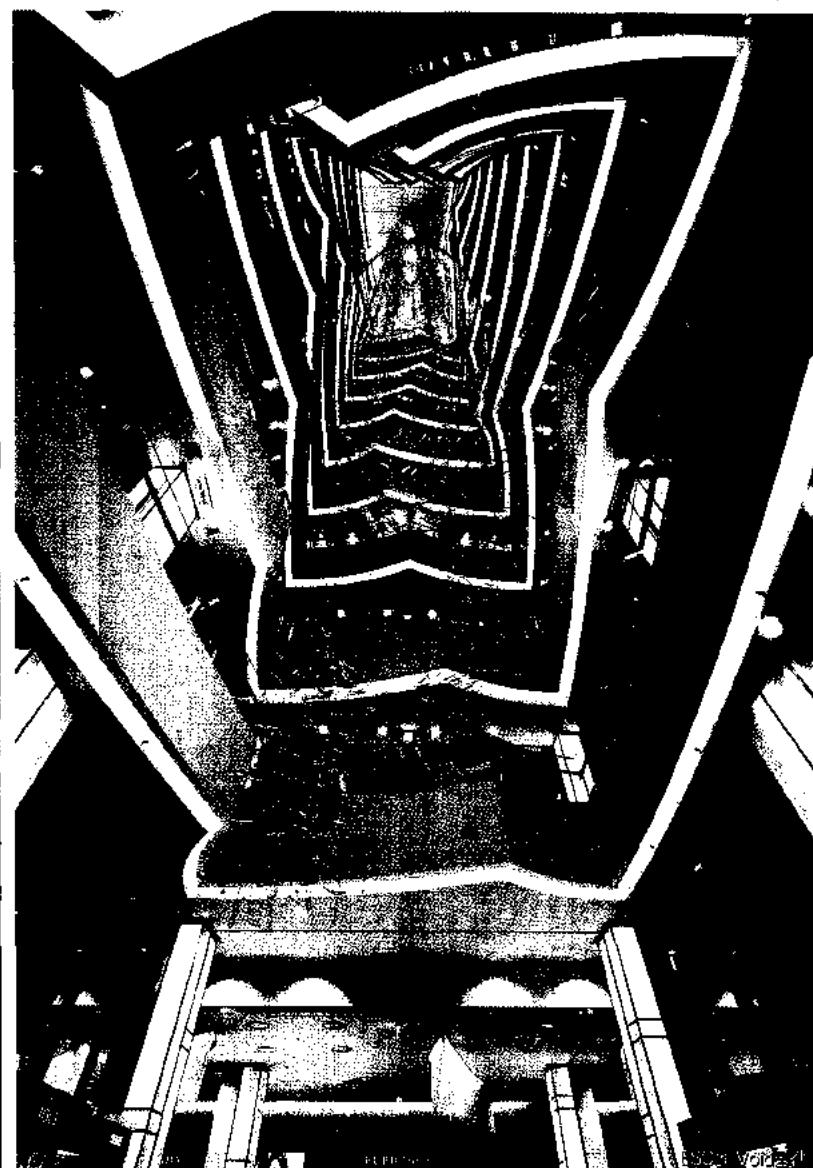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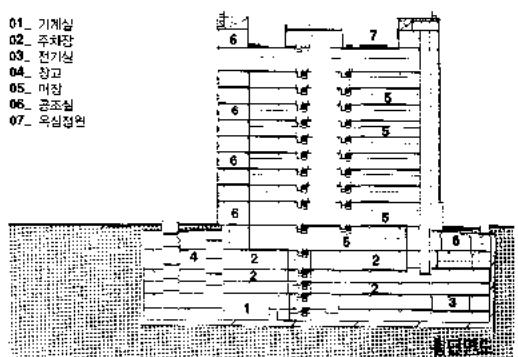


주방부



배면도

- 01\_ 기계실
- 02\_ 주차장
- 03\_ 전기실
- 04\_ 정고
- 05\_ 대합
- 06\_ 홍조실
- 07\_ 유통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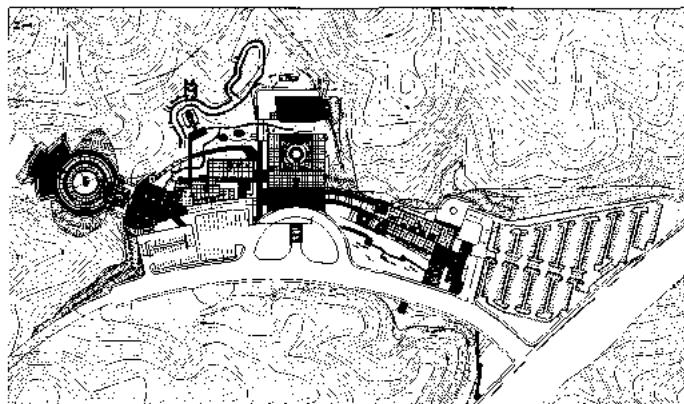


# 세종시 은하수공원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Funeral Culture Center

조상훈 / 정희원, (주)함도시 건축사사무소  
by Cho, Sang-hoon, KIRA

장용호 / 정희원, (주)두호 건축사사무소  
by Jang, Yong-ho, KIRA



1. 김례수금당 2. 화장장 3. 관례통 4. 충분관 5. 유적등산 6. 남궁금당

배치도

대지위치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벽_Marble, GRG Board, Paint
주요층도	묘지관현시설, 장례식장	천장_Paint on plasterboard, Gypsum Tex
대지면적	4,1910.00m <sup>2</sup>	구조설계 3D Structural Engineers Co.,Ltd
건축면적	6,840.05m <sup>2</sup>	설비설계 Han Kook Engineering Co.,Ltd
연 면적	17,671.36m <sup>2</sup>	환경설계 NALA Engineering Consultant
건축률	1.90%	시공_건설 SK E&C
용적률	3.23%	발주처 SK Energy, SK Telecom, Korea Land Corporation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안테리어 KDA Group of Korea
구조	철근콘크리트	설계담당 DooHo Architects Associates
외부마감	Color-Pat Glass, Granite, AL Sheet	감독_김재현, 이희철, 김민용, 박윤종
내부마감, 바닥	Rubbing Granite, Marble, Polyvinyl Tile	세종시_임병희, 정상규, 김종조, 신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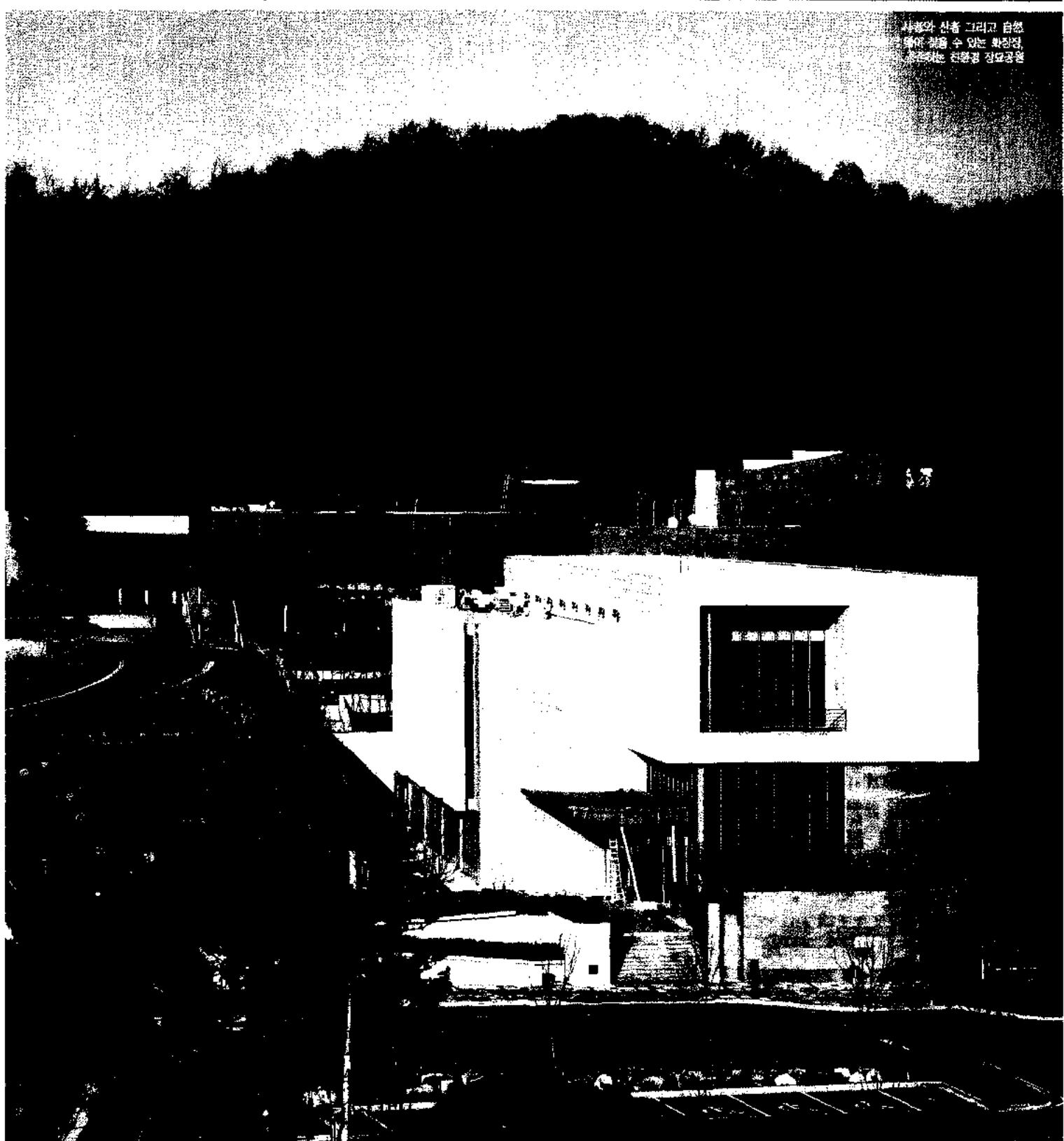
### 共存

세종시 은하수공원은 장례식장, 화장장, 봉인당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한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종합 장사시설이다. 은하수공원의 건축기본방향은 자연과 인간,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공생하는 도시를 추구하는 세종시의 건설개념과 그 궤를 같이한다.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을 수 있는 화장장, 고인을 추모하고 효를 실천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추모시설, 친환경 공원조성을 목표로 사자와 산자, 그리고 건축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상사시설이 우리가 세운 목표이자 방향이다. 세종시 은하수공원은 장례의식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몇 안 되는 규모나 시스템을 자랑한다. 세종시 은하수공원이 국내 장사시설을 선도하고 장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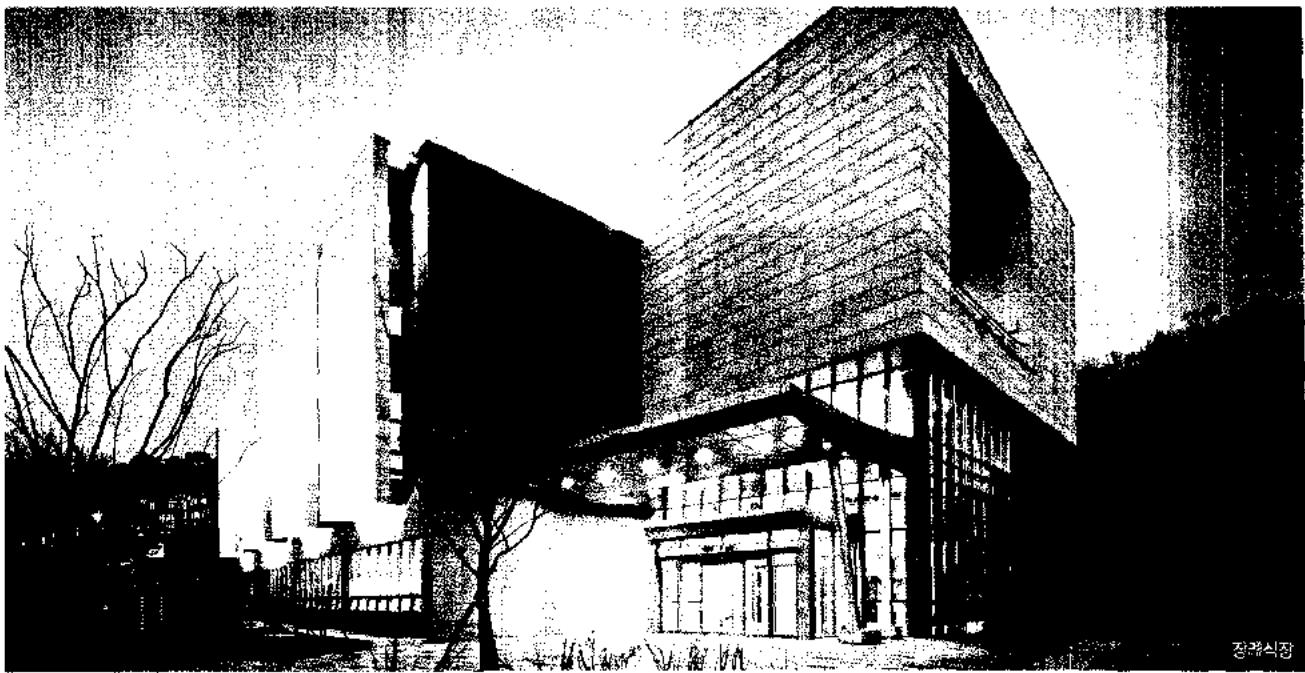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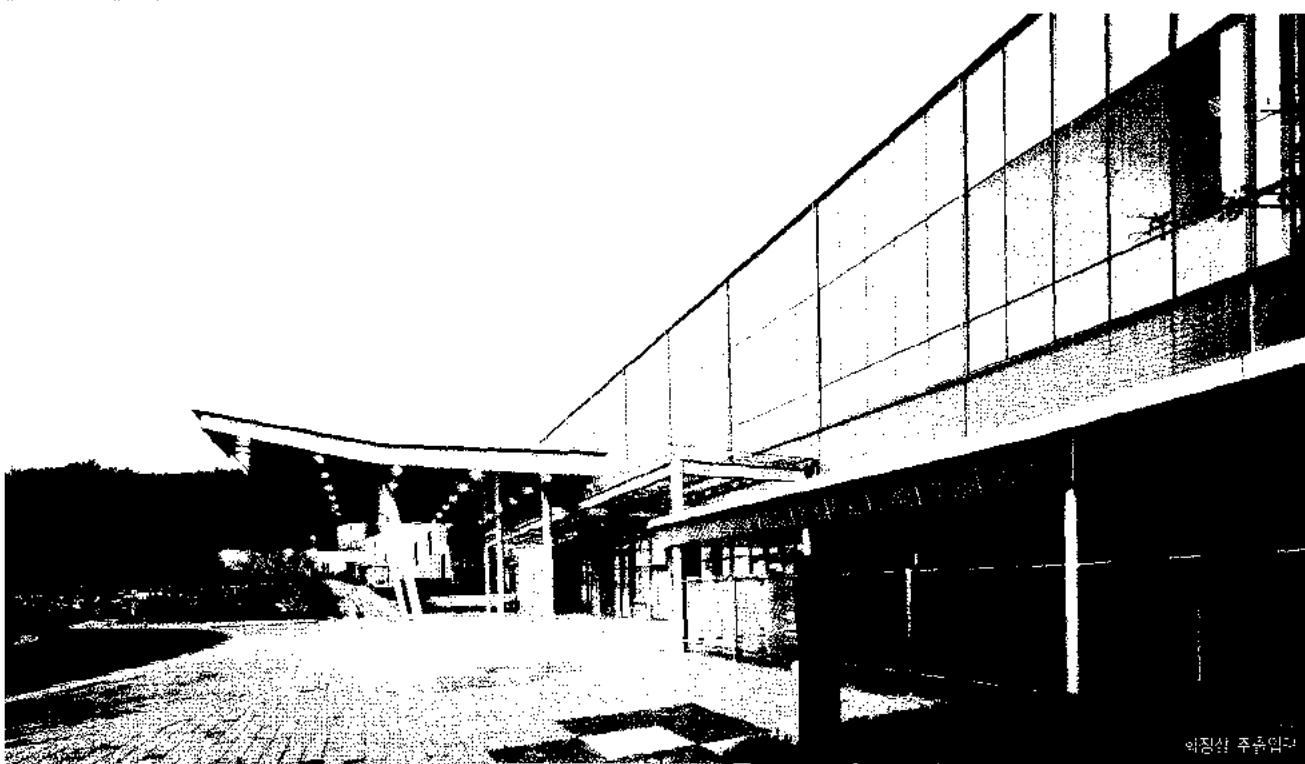
한식당 (한국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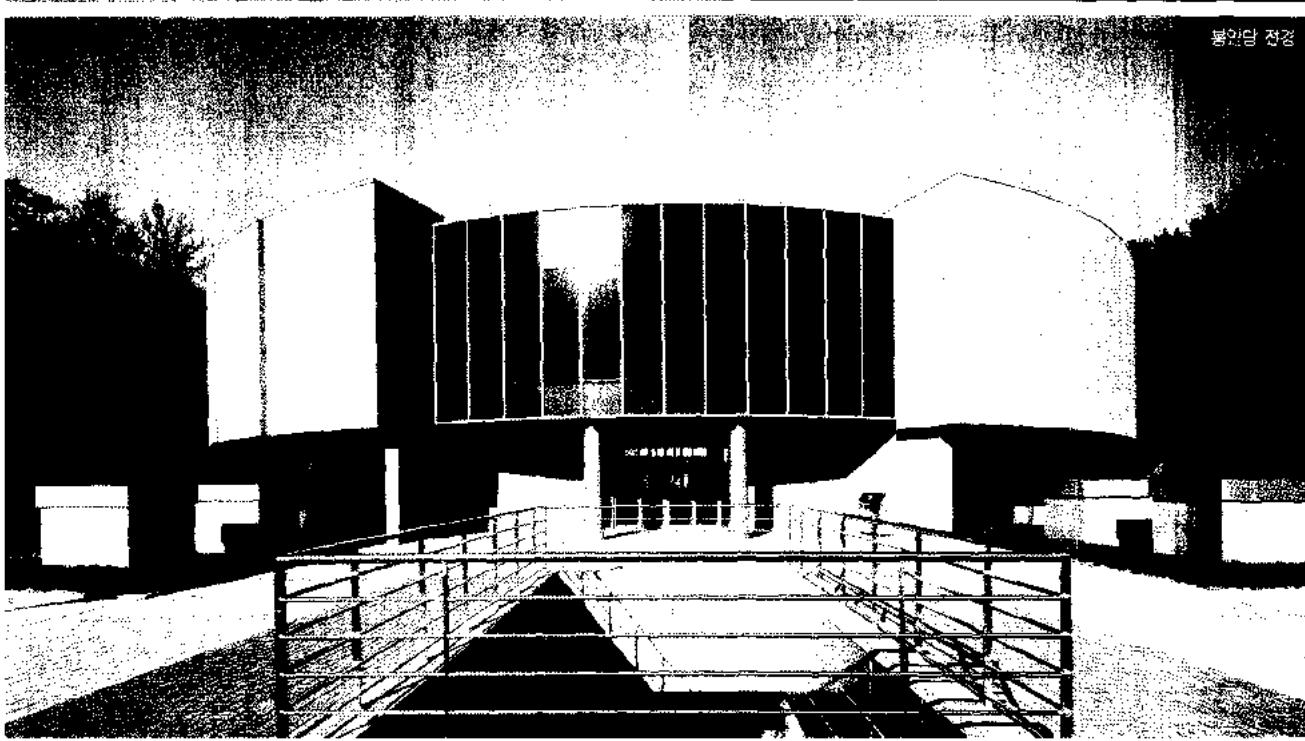
사랑의 산책 그리고 自然  
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화장장,  
수제화는 한류경 장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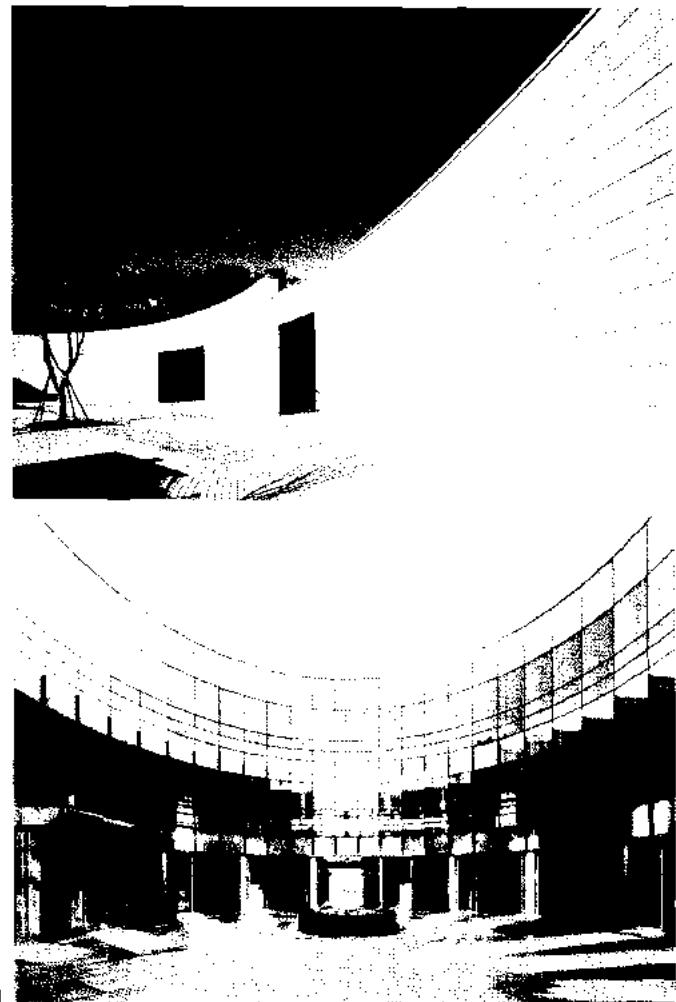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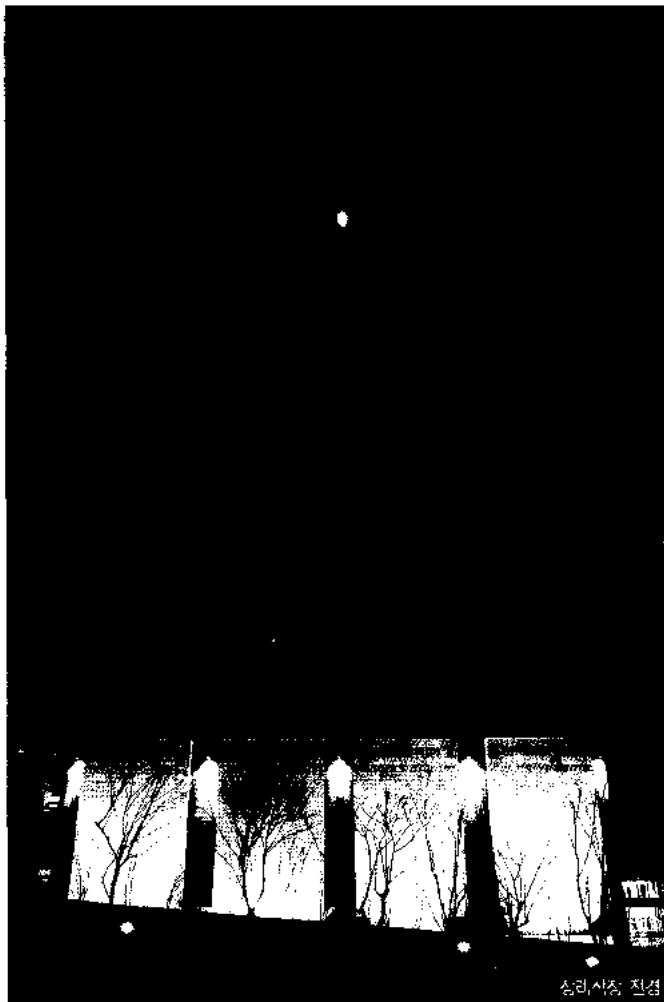
장례식장



여정선 주총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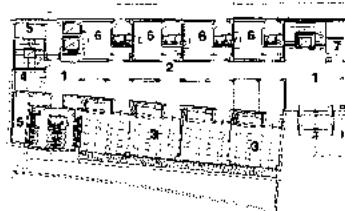


봉인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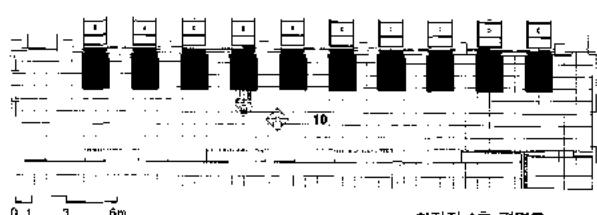
승리사장 진경

- |        |          |
|--------|----------|
| 01_홀   | 07_한내실   |
| 02_포도  | 08_전망    |
| 03_청객길 | 09_동양한실  |
| 04_휴게실 | 10_로전실   |
| 05_창고  | 11_유리트인구 |
| 06_민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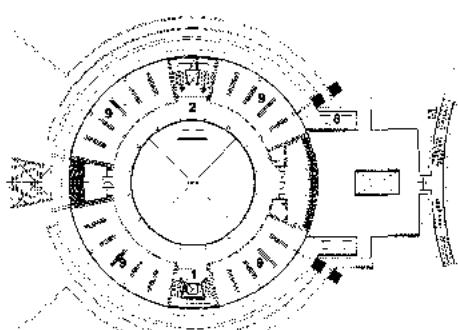


0 1 3 6m

장례식장 1층 평면도



화장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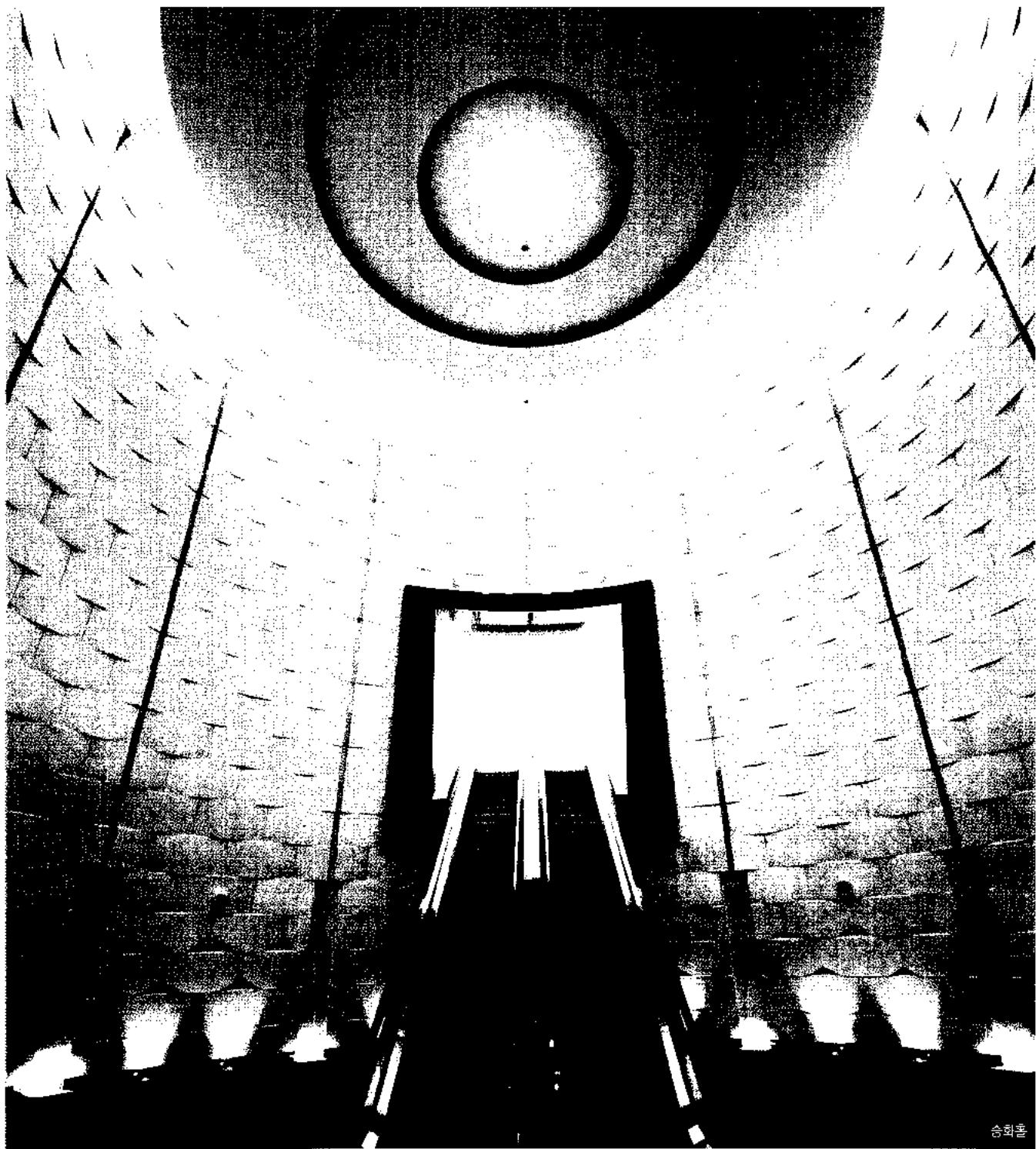
0 1 3 6m

남골당 1층 평면도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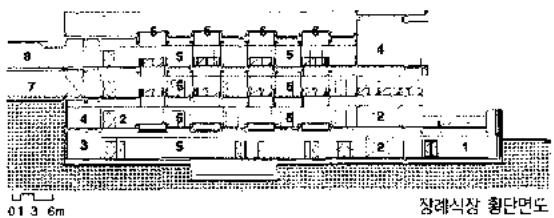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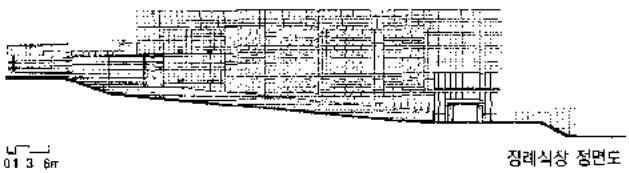
유택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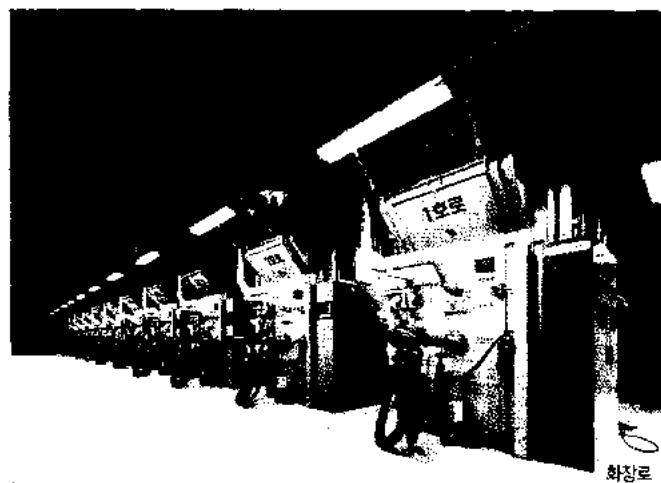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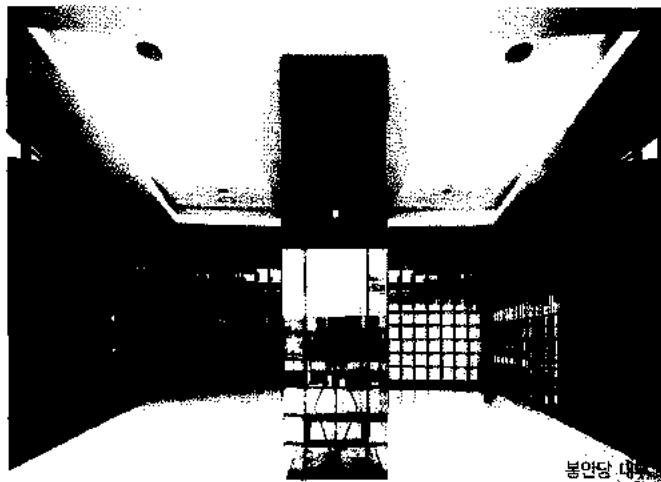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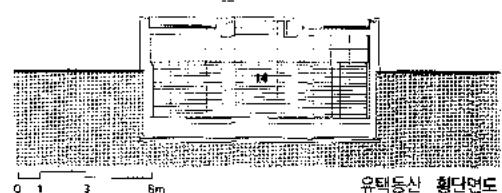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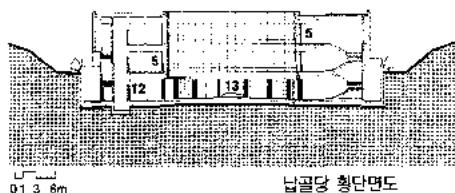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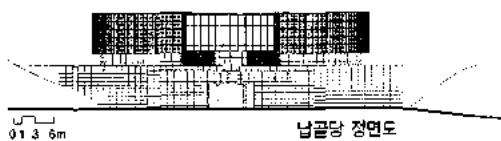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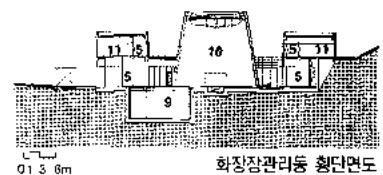
승회출



승회



01_ 영결식장	05_ 낙도	09_ 풀병크실	13_ 행농 현화대
02_ 품	06_ 산장	10_ 응회홀	14_ 유택농신
03_ 선기 냉	07_ 강동구	11_ 유품대기실	
04_ 품전실	08_ 육외 영결식장	12_ 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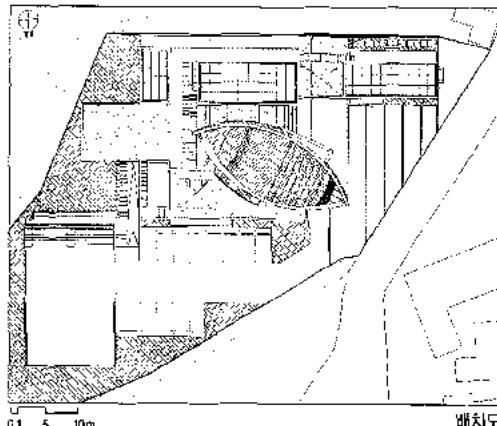
# 병산교회

## Byeongsan Church

권문성 / 정희원, (주)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십칠

by Kwon, Moon-sung, KJ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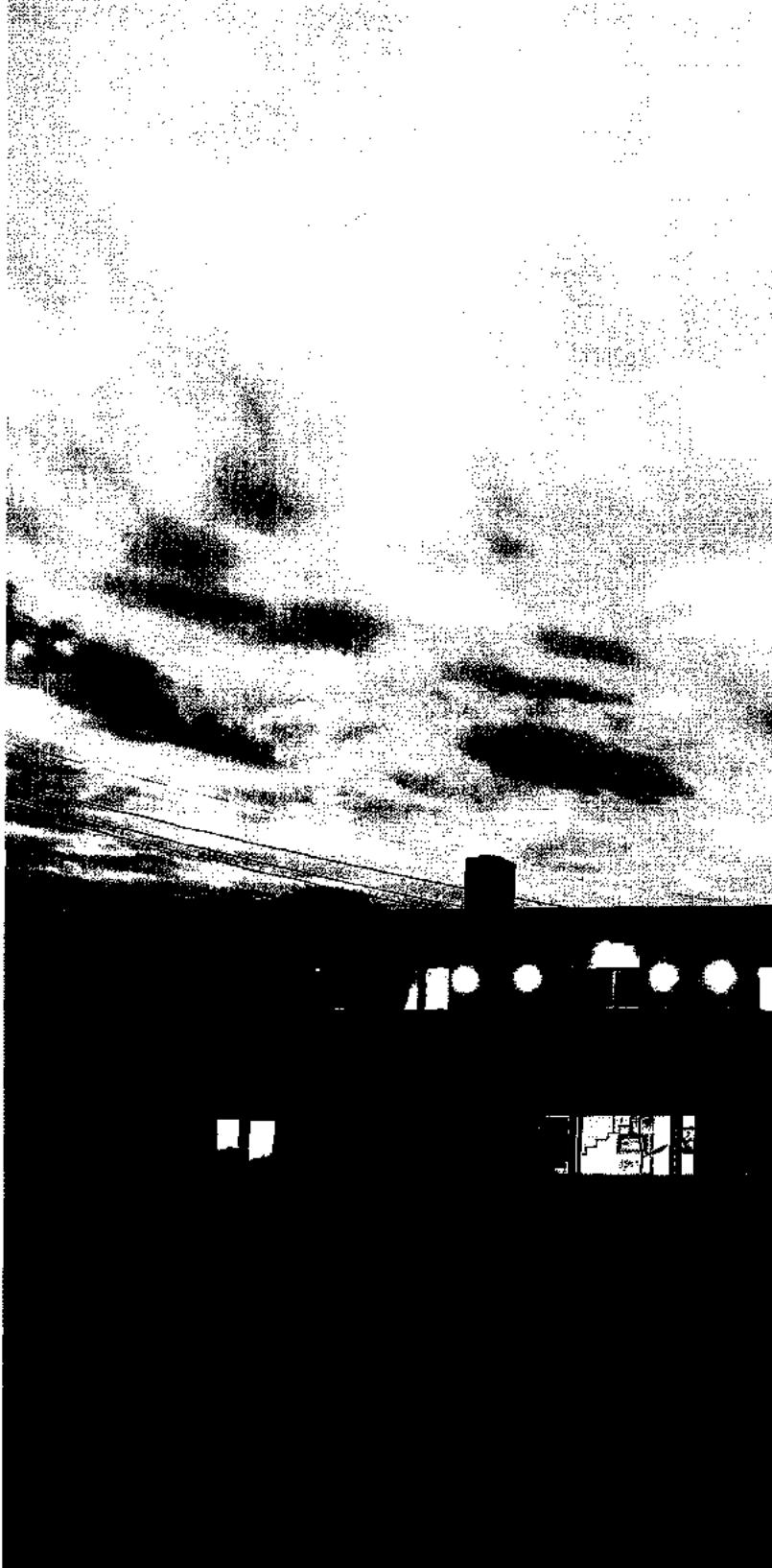
제작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00번지	외부마감	기세마루, 노출콘크리트, 쟁반돌방
지역/지구	경리지역, 2종 지구주택제작구역	내부마감	금어내기
주요봉도	종교시설(교회)	내부마감	반색벽돌,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내적면적	1,350.00m <sup>2</sup>	목재	
건축면적	693.56m <sup>2</sup>	구조설계	(주)ES건축구조엔지ニア링
면적률	1,242.41m <sup>2</sup>	설비설계	기술서사무소 타입테크
건축률	51.82%	전기설계	신경전설주
총적률	92.03%	시공사	이원우(신학총침건설)
구조	자상 3층	설계담당	김건현, 최재우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병산교회는 다섯 번째 교회를 짓게 되었다. 양평군 읍내에서 남한강 양근대교를 건너며 하류 쪽으로 눈을 돌리면 마주 보이는 낮은 소나무 언덕이 너른 밭을 편안하게 감싸고 있고, 그 언덕이 시작하는 곳이 대지이다. 남한강의 낙원함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마을이 자리 잡은 곳이다. 강 너미로는 용문산 백운봉이 험찬 기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이다.

대지의 조건들을 살피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며 사무실 가족들과 백운봉을 올랐다. 가파르고 뾰족한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며 그곳에 지어질 교회가 어떻게 대지의 일부가 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되 지나치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살폈다. 수려한 산세가 흐르고 강 쪽으로 낮게 펼쳐진 미을로, 대부분 집들은 언덕에 기대어 비록 단열페널과 파란지붕의 생경함이 있어도 주변 환경과 마을 전체에 거스르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새로 지어질 교회도 그렇게 마을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좁은 농로로 들어서면서 바울과 함께 사용할 교회마당을 빚겨난 진입도로에 이어 만들었다. 마당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길 양편에 두 개의 긴 매스를 평행하게 놓고, 그 위로 두 개의 곡면 벽이 물고기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는 본당을 올려놓은 구조이다. 남쪽의 긴 매스는 마당 쪽으로 사택이 들어가고, 암쪽으로 교육관을 놓았다. 두 기능 사이에 마당을 만들어 교회 앞마당과 쉽게 이어지게 하였다. 평소에 많이 사용되는 남쪽 건물은 방마다 해가 잘 들게 만들었다. 농촌의 노인이 대부분인 신도들이 쉽게 와서 미을 사랑방처럼 쓰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는 곳이다. 본당 하부는 작은 예배공간과 아이들과 젊은 신도를 위한 찻집이고 또 도서관이다. 두 매스 사이에 난 언덕길을 올라가면 강 쪽으로 또 주변 언덕으로 탁 트인 위 마당에 이르고, 이곳에서 본당으로 또 목사집무실로 이어진다. 교회의 중요한 시설들이 모두 외부 공간으로 이어져 주변 자연환경, 풍경과 동화될 수 있게 만들었다. 강 쪽으로 이어진 본당 로비로 들어서면 백운봉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곡면 벽으로 감싸여진 예배실은 2층 높이이고 그 옥상은 하늘로 향한 또 다른 예배공간이다. 옥상에서 다시 외부공간으





영근대교에서 바라본 전경



주수성당

전경



로 위 마당까지 계단과 테라스 공간들로 이어진다. 차운 교회지만 사용하는 방법도 공간의 연결도 모두 조밀하게 서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외부와 내부동선이 이어지는 방법과 내부공간끼리 이어지는 방법이 건물 내외부를 계속 감싸 안고 돌아가고, 연결된 길과 복도마다 주변 환경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곡면 벽 분당은 외부, 내부 모두 백색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나머지 부분은 벽돌과 어울리는 백색 드라이비트, 백색시멘트 층석돌을 긁어내기 마감이다. 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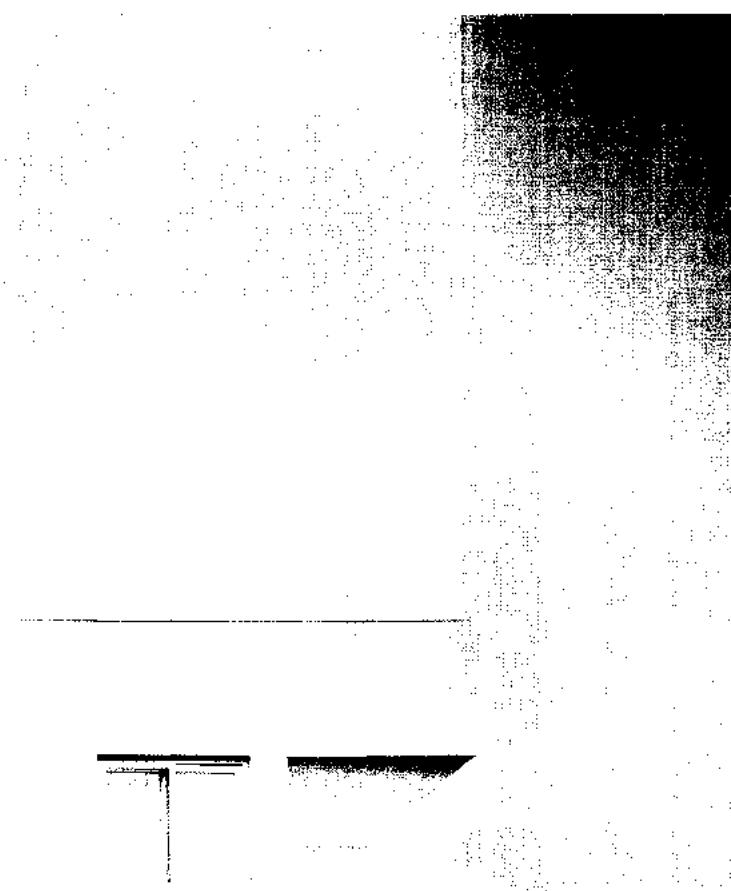
은 공기와 주변 언덕의 나무의 녹색, 벌의 붉은 빛, 녹색의 농작물과 소용히 대비되고 빛과 그림자로 만들어지는 조형이 잘 드러나는 재료이다. 바닥은 콩자갈을 심은 콘크리트로 하여 농로의 느낌이 연속되며 건물재료와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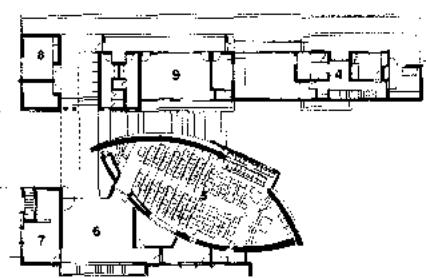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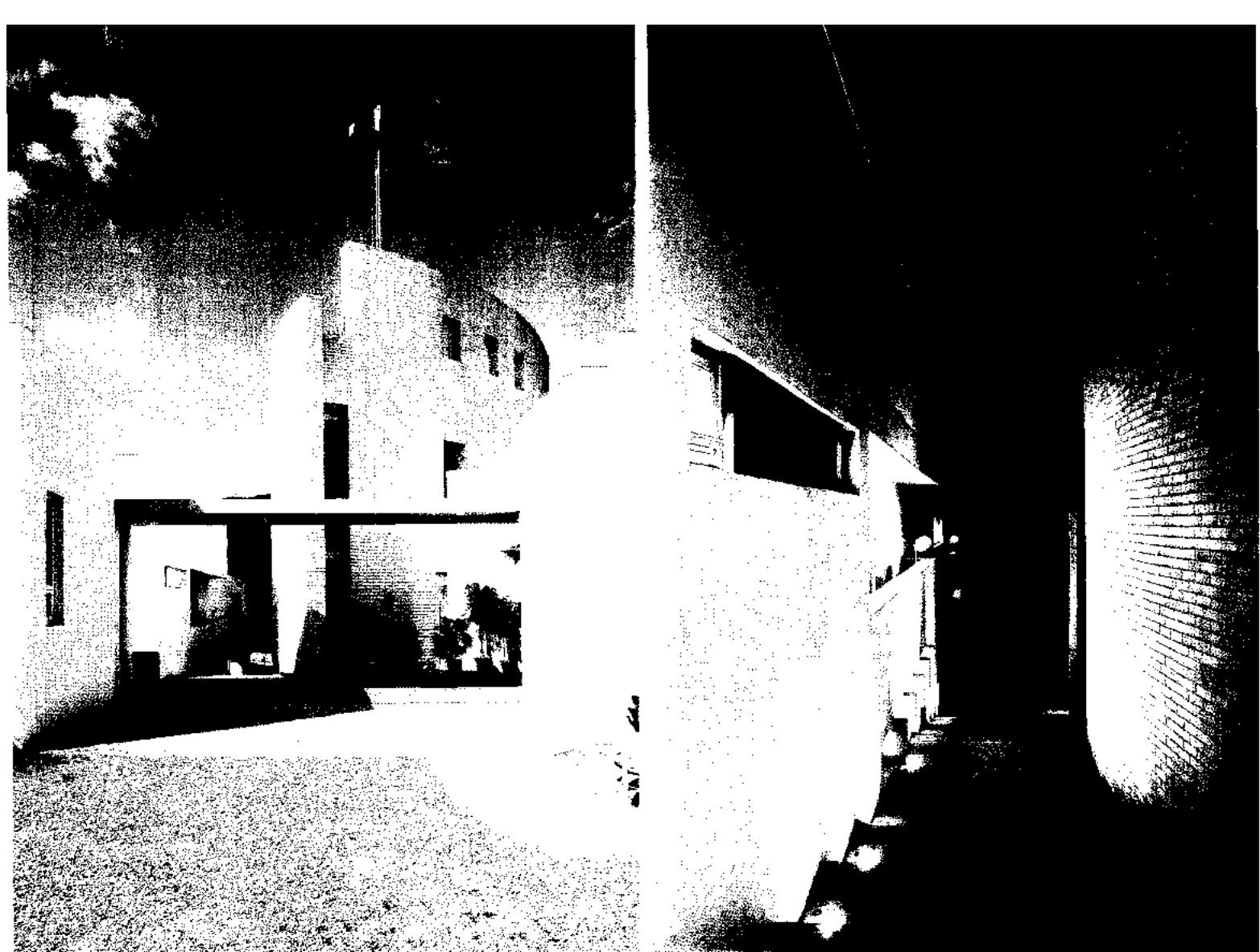
주변에 새롭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서 올 새 신도들과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온 농촌의 신도들의 영혼을 오랫동안 지켜줄 교회가 되길 바란다. ■

〈글\_권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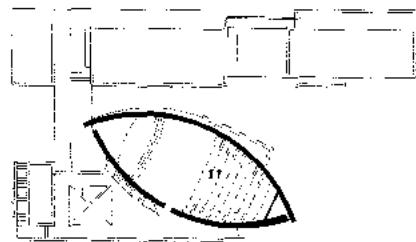


봉화병산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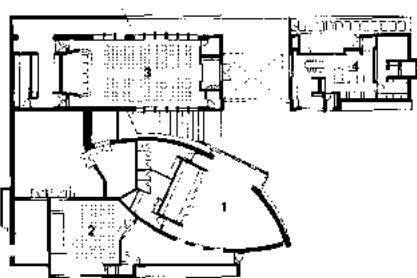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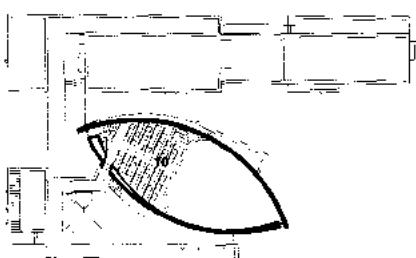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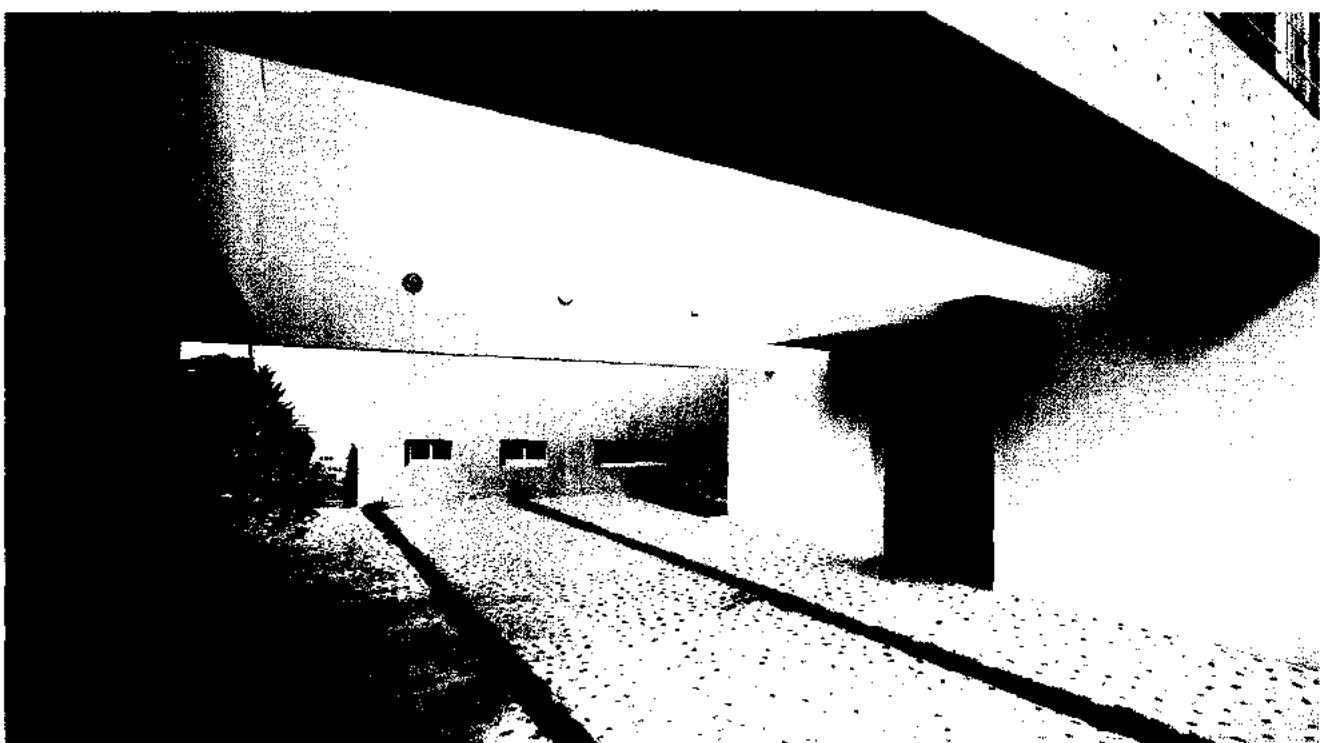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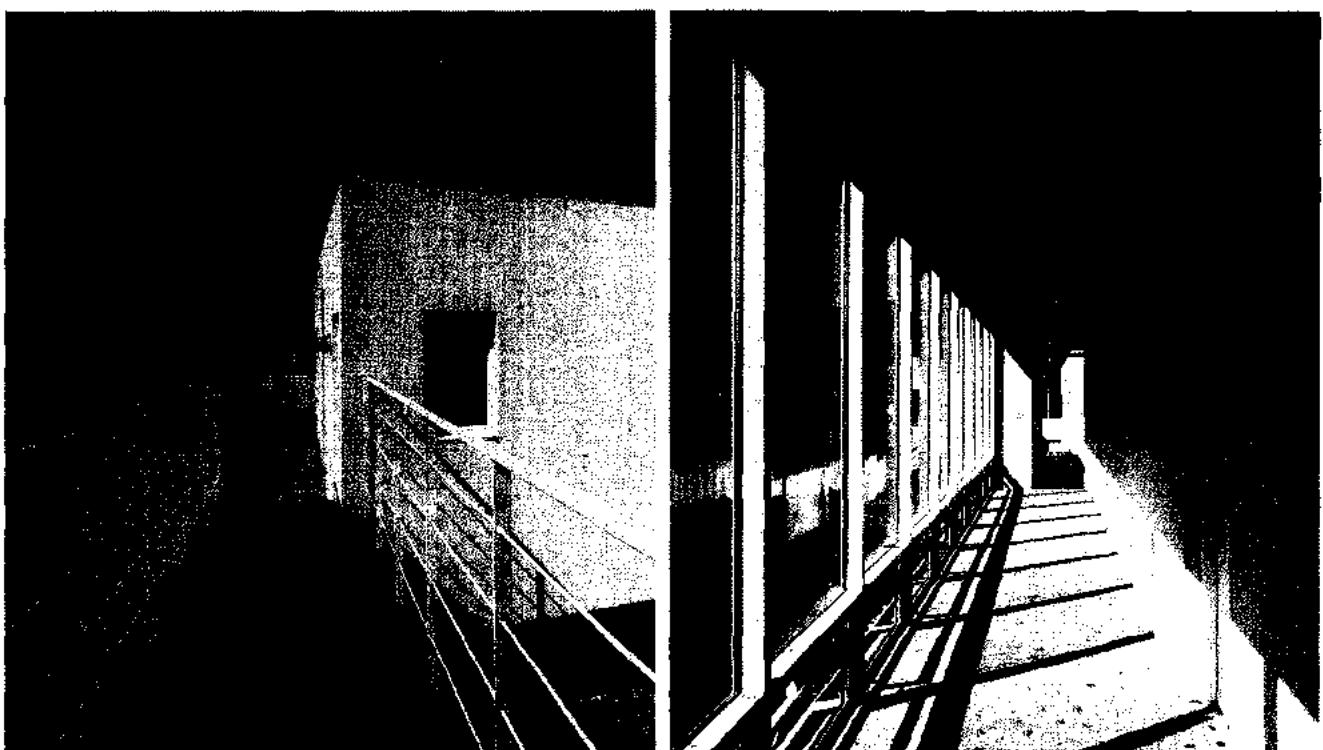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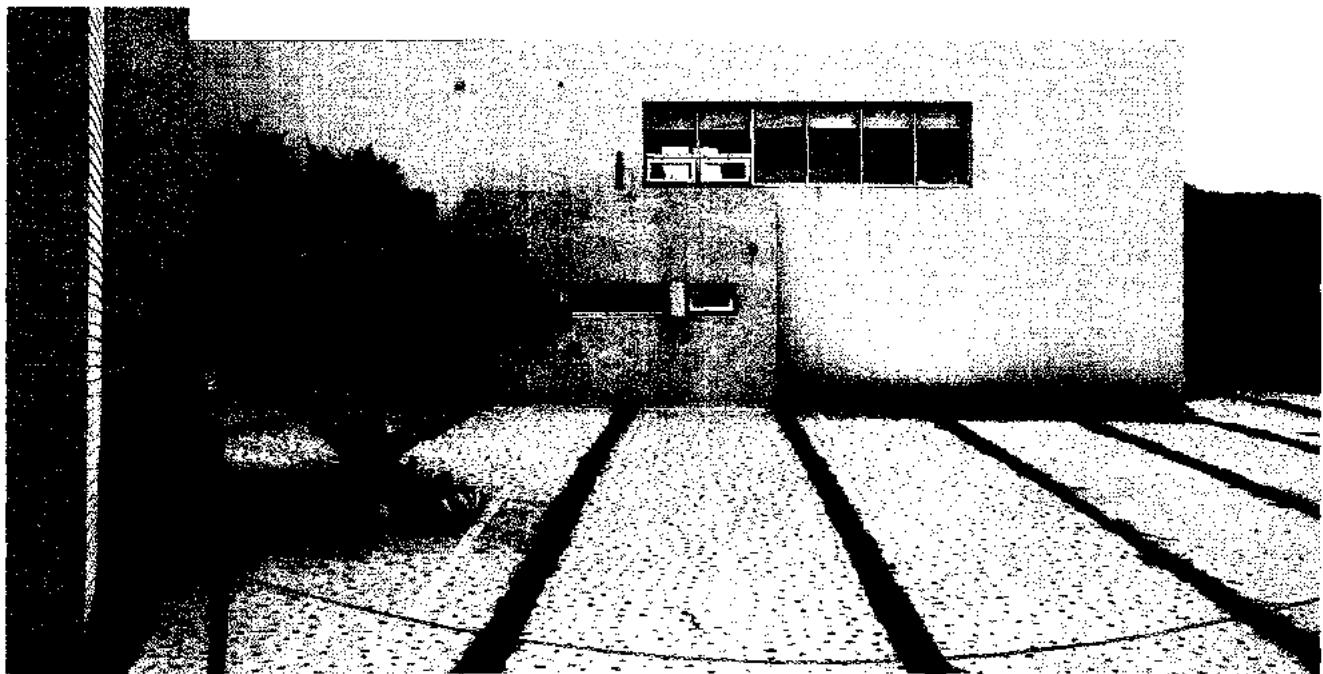
- 01. 카페
- 02. 교육관
- 03. 소예배당(노인대학)
- 04. 사무실
- 05. 예배당
- 06. 풀
- 07. 사무실
- 08. 동회장실
- 09. 청년부 모임실
- 10. 중층 예배당
- 11. 옥상 꽃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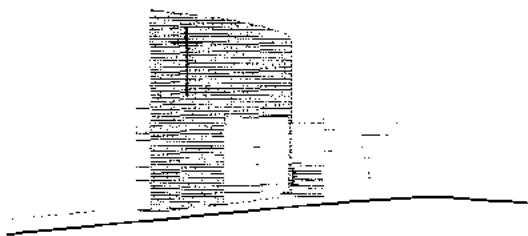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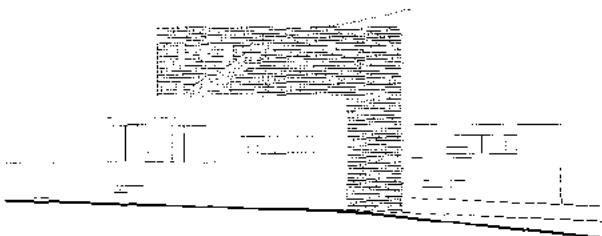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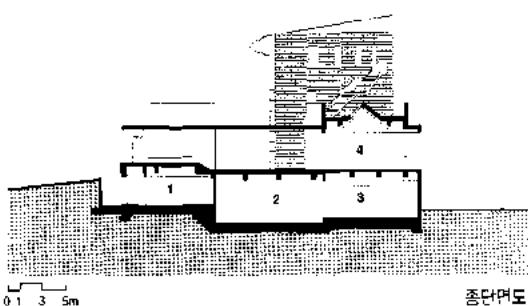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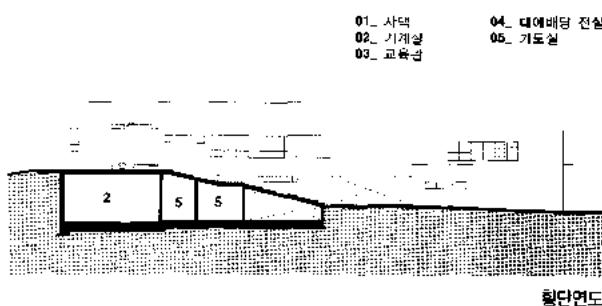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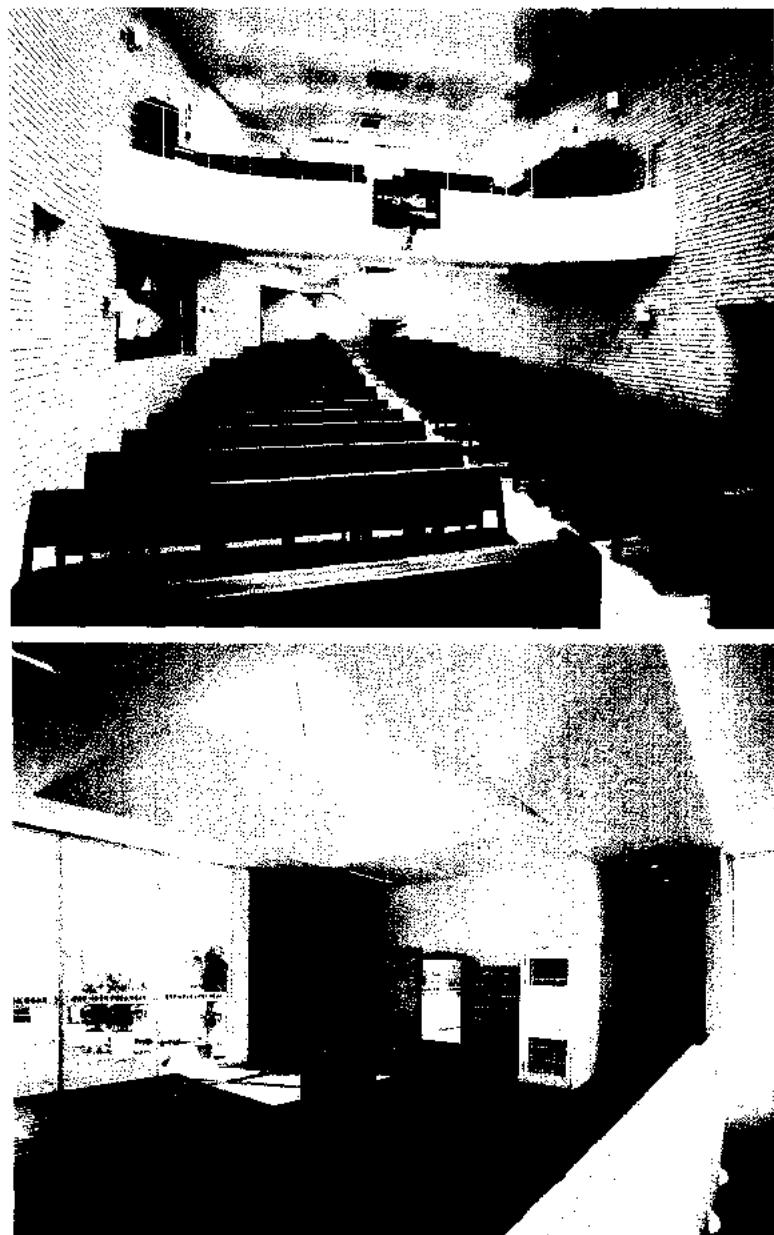
좌측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 갤러리 303



바쁜 시간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준 운생동 건축사사무실의 신창훈 건축사와 장윤규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대전에서 인터뷰를 위해 상경하시어, 내용을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해주신 우송대학교의 유정훈 교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글\_박인수 건축사

••• 박인수(이하 박) : 비쁘신데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인터뷰의 취지를 잠깐 설명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건축사」지에서 건축물을 다루는 방법은 투고자 중심으로, 설계자가 자신의 건축물에 대해 주도적으로 소개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건축사」지가 협회지인 관계로, 회원들의 작품 계제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축을 소개하는 잡지로서 설계한 건축사의 일방적인 내용 보다는 좀 더 다른 시선으로 건축을 다시 생각해 보고, 특히 설계를 하는 과정 중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혹은,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런 인터뷰를 통해 건축사지의 건축 소개에 대한 기준역할을 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데 신임 편집위원들의 의견이 모여, 과월호 중 한 작품을 선정하여 다시 그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자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이에 오늘 인터뷰를 위해, 설계하신 신창훈 건축사님과 장윤규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 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송대학교의 유정훈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훈(이하 유) : 장윤규 교수와는 사실 오래 전, 여의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할 때, 친구들과 함께 잠깐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 유명한 분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 장윤규(이하 장) : 유명해졌다고 말씀하시니 사실 좀… 최근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에 워낙 국제적으로 유명한 건축사들이 많이 와서 발표를 하니, 한국에서 온 젊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 유 : 사실 그건 안 온 사람들이 손해인 것 같아… 결국 유명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 박 : 말씀이 재미있어서 좀 더 나누고 싶지만,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시간관계상 아쉽지만, 본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 유 :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사지에 소개된 내용이나 이미 알려진 것이라 풀 수 있겠죠?

인터뷰 일자 2010년 3월 6일 오후 2시  
장소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주), 회의실

참석자 운생동 건축사사무소(주) 신창훈 건축사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장윤규 교수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 장 :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갤러리 303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저희가 사실 모델하우스를 시리즈로 세 개를 했습니다. 청주에 하나를 했고, 이건 광주에 있고, 서울의 크링(Kring)도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두 공교(?)롭게 금호건설의 모델하우스였어요. 사실 다른 건설사들도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예를 들어 대우건설의 경우는 강남대로변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기본으로 해서 각 모델하우스를 유사하게 짓는 반면, 금호의 경우는 서로 다른 모델하우스를 원했어요... 지역적 상황을 반영하자, 지역의 테마를 만들고 변화하는 것을 해보자는 것이었죠. 사실 모델하우스는 가설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설 건축물 보다는 좀 더 일반건축물인 것처럼 접근을 했었어요. 사실 청주의 모델하우스는 일반 건축물로 허가를 받고 진행 하였지요. 가설건물이라고 하니까 원가 대충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설이 긴 해도 건축이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모델하우스이다 보니 브랜드와 관련된 상업성이 없을 수도 없고 해서, 가설 건축물이라 하여도 일반건축물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가 가설 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건축주가 이건 단순한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계속 사용될 것이란 이야기를 하여 모델하우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일회성이 아니고 오래가는 건축이었던 거죠.

• 유 : 그러니까, 청주의 경우는 일반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과정을 모두 거쳤다는 것이죠?

• 장 : 그렇죠. 문화 및 십회시설로 진행을 하였고, 보다 오래가는 지역의 커뮤니티 사설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 유 : 그럼 이 광주의 갤러리 303도 일반건축물로 진행하고 싶거나 석어도 그렇게 생각하며 설계하기 원하셨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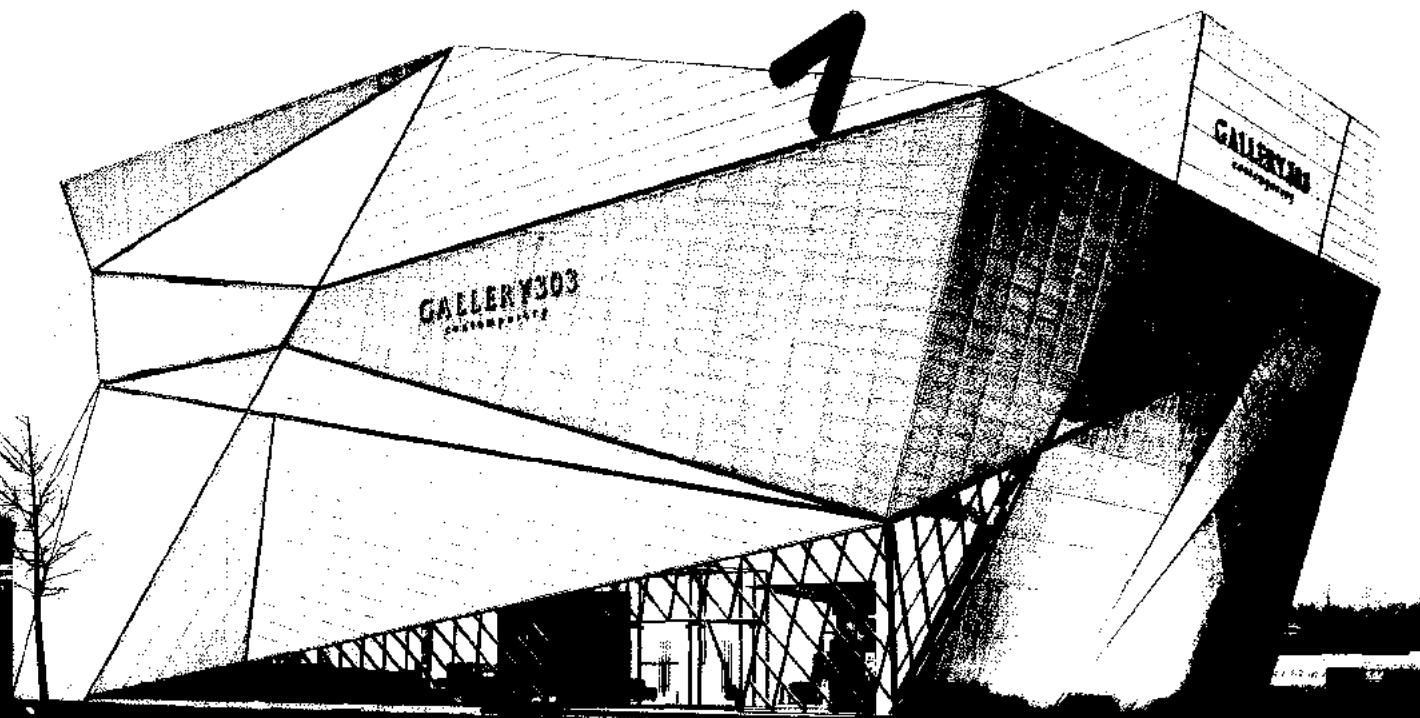
• 장 :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분양 후 즉시 철거하는 건물을 보다는 그 사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서울의 크링의 경우도 분양 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링은 사실 그 땅은 건축주의 것이 아니라 임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대지 사용을 위하여 임대를 한 것인데, 10년 후에는 있을지 없을지 예측할 수 없는 건물인 것이죠. 10년 정도면 템포리리(Temporary)라는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유 : 그렇다면, 계속 사용하기 위해 가변성이나, 내부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었겠네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넣기 원하셨을 테니까. 크링의 경우는 아마 당분간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지역에서 어떤 아이콘이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재료만 잘 버텨준다면 제 역할을 다하고 장렬히 최후를 맞을 수도...

• 신창훈(이하 신) : 아마도 국내의 대부분 모델하우스가 그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기 보다는 10년 정도의 대지 사용권 임대를 통해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 : 그렇다면,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지 사용기간이 끝나면, 대지의 원소유주가 크링을 아무 마련 없이 철거할까요? 만일 부수지 않고 계속 쓴다고 하면, 현재 대지를 벌려 쓰는 사업자가 권리금 같은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그것이 인정되어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건축설계의 가치 창출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인니까요. 그런 면에서 10년 후 대지 사용권이 끝날 때쯤 해서 다시 모여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설계의 가치를 계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이런 사례들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갤러리 303 전경 / 「건축서보」 2010년 2월호(동권 490호) 게재



• 장 : 저희 역시 원 대지 소유자가 크링을 인계 받았을 때, 진짜로 부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 유 :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우리 갤러리 303으로 넘어와서… 이 건물이 가설 건축물인지 알기 전에 가진 의문이지만, 이 건물의 유효 수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설계하였는지요? 재료의 수명이나 내구성, 상징성, 지역에서의 역할 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랜 걸 것이라 생각하셨어요?

• 신 : 사실 이 갤러리 303은 한 5년 정도라 생각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크링과 달리 프로젝트 베이스로 기획된 건물이라, 물론 분양 후에도 잠시 사용될 순 있겠지만, 크링처럼 다양한 가변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갈 것이란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 박 : 말씀을 나누다 보니, 건축을 사용 연한을 두고 생각한다는 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의 경우는 내구성을 위해 많은 자본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모델하우스는 정해진 수명을 두고 설계를 하다보면, 좀 더 자유로운 면이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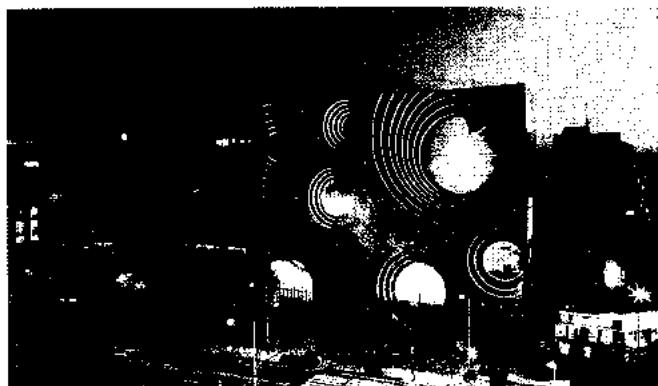
• 신 : 사실 저희 건물이 모델하우스이다 보니, 가설 건축물인데도, 건축사지에서 표지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간 건축사지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 허가를 받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박 :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이니까요.

• 유 : 사실 갤러리 303은 매우 문이 좋은 것이죠. 작년에 떠들썩했던 창경궁의 콜하스(Koolhaas) 트랜스포머(Transformer) 같은 경우는 결국 해체되었고 훈적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진이야 남아있겠지만, 해프닝 또는 이벤트였고, 다시 언급될 필요도 없지 않겠어요? 이 건물을 계속 쓰라고 하면, 연장하여 계속 쓸 수는 있겠지요? 또 궁금한 것이 공사비는 어느 정도였나요? 건축주가 시공자였음이 특이하긴 하지만.

• 신 : 일반건축물 보다는 약간 적었던 것으로 압니다. 약 2년 전 가격 기준으로…

• 유 : 만약, 갤러리 303을 일반건축물로 설계하였다면, 무엇이 달라졌



서울 '크' 건설 모델하우스 'Kring'

• 장 : 아무래도 마감재와 구조시스템 등이 달라졌겠고, 설비 등도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겠죠. 하지만, 형태나 건축의 개념 같은 것은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 박 : 생각해보면, 가설이란 조건, 즉, 언젠가 없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형태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실험적이고, 플레이풀(Playful)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장 : 그런 면이 있죠. 건축주도 물질적 부담이 적고, 많이 과감하여도 건축사의 정신적 부담이 덜 하죠. 건축사들에게 이런 가설 건축물, 모델하우스나 샘플하우스 같은 유형의 건축물을 설계할 기회가 자주 있다면, 공간이나 설계 방법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됩니다.

• 유 :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사진 상으로 이 작품을 처음 볼 때, 이해는 다 못하였을지도, '이거 보석함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라는 콘텍스트에서 명동히 빛을 발하는 보석 또는 보석함'이라는 표현을 가끔 쓸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좀 더 투명하거나 자체발광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즉 도시의 야경을 배려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이런 것이 궁금한데요.

• 장 : 야간 조명을 생각했었죠. 형태가 꺾여서 면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외부에서 조명을 주면, 반사되는 빛의 강도차이로 면들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모형 등 원안을 보시면 일부 면들이 유리로 처리되어서, 내부의 빛이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었어요. 현재는 1층 로비 부분에만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런 유리면들을 통해서 빛이 나오도록 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건축주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구분하라는 건축주 측의 강한 요청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모델하우스가 그렇듯이 내부로 모든 시선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용공간인 1층을 제외하고는 창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형태적으로는 불투명, 반투명, 투명 등 다양한 면들의 조합을 생각했었어요. 당시 의도가 아직 일부 남아있는 것은 재료를 다르게 쓰거나, 편침 메탈 등을 이용하여 두 겹의 스키를 만들거나, 미디어 월(Media wall)로 일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면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긴 하죠.

• 유 : 보다 단적으로 비유를 말한다면 도쿄 롯폰기힐의 프라다건물을 항상 야경으로 표현되잖아요. 외부에서 안이 보이고 모델하우스는 '집 속의 집이다.'라고 서술한다면 또 하나의 의미가 주어질 것 같아요.

• 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갤러리 303과 같은 모티브로 근생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건 좀 더 진화하여, 일정한 패턴을 갖고, 구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야간 경관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유 : 또 굳이 말하자면 이 건물의 외관은 걸죽 커버업(Cover-up)에서 외부의 모습이 내부에서는 재현되지 않고 심지어 읽혀지지도 않지요. 가설 건물이란 설명을 듣고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적어도 로비 등의 공용공간에서만이라도 외부의 자유로움이 연결되는 시도가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 : 사실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공사비의 한계와 설계의 신행상 매우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유 :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도 모두 운생동에서 진행하셨던 것인가요?

• 신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건축, 인테리어, 감리를 수행하였고, 아파트 모델하우스만은 다른 전문업체가 진행하고, 또 건축주와 저희 사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여러 관련인들의 중지를 모아기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외부는 크리스탈 같은 느낌이라면, 내부는 갤러리처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 유 : 뜻밖에, 시간이 지나, 모델하우스가 빠져 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이 공간에서 가능할까요? 갤러리 기능은 너무나 명백하니까 그 것 말고 생각해 본다면…

• 장 : 청주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주로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 전용 학원, 그리고 프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 같은 것으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 박 : 주로 전시와 ‘보여지는’ 기능 위주의 프로그램들이군요.

• 장 : 아무래도 이 건물이 브랜드와 관련된 브랜드 스페이스처럼 생각되니까요.

• 유 : 긍정적인 순기능으로서 이런 유형의 건물들이 통네마다 있어서, 커뮤니티를 증진하고 도시에 활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건물이 있는 장소가 광주에서 어떠한 곳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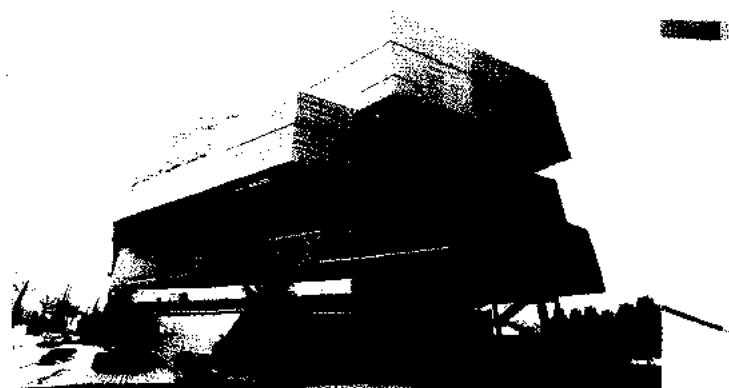
• 장 : 여기가 광주의 상무지구라고,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너편에 있어요.

• 유 : 혹시 주변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세요?

• 장 : 그런데 이 건물이 있는 위치가 이런 류의 모델하우스들로 물려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건물에게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 특별한 기능을 기대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모델하우스 없이 혼자만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옆에 있는 모델하우스는 오더(Order)로 된 신전처럼 되어있어요. 신전 개념으로.

• 박 : 이 건물이 일단 선전 보다는 ‘실용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형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단순히 비즈니스의 목적을 넘어 다른 기능으로도 활용되게 하는 복합화 경향이 있겠다고 생각되는군요. 다시 요약하면, 상업적인 내용이 그 목적을 넘어 모델하우스 자체에 기여하는 쪽으로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지요?

• 장 : 사실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해답은 없고, 계속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 해답을 계속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최근엔 조만석, 승효상 같은 국내에 알려진 분들 뿐 아니라, 다니엘 리베스킨트도 부산에



청주시 'g' 건설회사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설계하였죠.

처음에는 순수한 모델하우스로만으로 역할을 했지만, 계속 다른 기능들을 부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사들의 참여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생각해요.

• 유 : 자기의 제품을 더 잘 팔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넘어 사회적 환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어요.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 장 : 서울의 크링같은 경우도 모델하우스는 3층만 사용되구요. 다른 모델하우스도 일부만 모델하우스로 쓰고, 나머지는 퍼블릭을 위해 사용되고 있거든요.

• 유 : 이 건물의 건축주와 시공을 함께 한 건설사의 기업이미지는 이런 모델하우스 이전부터 음악, 미술 등 일련의 예술 지원을 통해서 높아진 것 같아요, 혹시 이러한 건축적 사업들을 통해서 건설사가 사업에서도 이익이나 칭찬을 받았거나 하는 내용이 알려진 것들이 있나요?

• 장 :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 신 : 하지만 최근의 상황 같아선 이런 갤러리 303 같은 건물은 지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만 해도 경기가 좋았고, 따라서 모델하우스들은 남과 차별화하기 위해 각 건설사가 경쟁을 하면 시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모델하우스는 그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화된 업체들이 주로 처리 하였었거든요. 결국 저희가 이렇게 세 개의 모델하우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경기와 아래 파트너사의 분위기가 한 몸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 박 : 사실 그건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전 모델하우스들은 전형적인 모습이 있었거든요. 차량들이 많아 오게 되니까, 모두 필로티로 만들어 어딘가 영성(?)한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기 일쑤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유 : 아직도 대전지역의 모델하우스는 그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 박 : 이런 갤러리 303같은 모델하우스들이 가능해진 것이 이제 과거처럼 치열한 과열 양상이 없어져서 주차 등의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 유 : 경기가 어려워 졌을 때, 오히려 이렇게 차별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건설사들이 나서서 말이죠.
  - 박 : 혹시 진행의 문제는 없었나요?
  - 장 : 하지만, 크링의 경우도 처음에는 건설사에서 순수한 모델하우스를 만들기 원했어요. 지명 현상설계에서 저희가 그것을 문화 콤플렉스로 만들자고 새로이 제안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당선이 되었고 또 지어진 것입니다.
  - 유 :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더욱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문화적 기능을 담은 모델하우스들을 건설사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겠네요. 건축설계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 : 모델하우스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건설사가 설계의 제안을 그렇듯 단번에 수용을 하게 되었다면, 대단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장 : 그러니까 어려웠지요. 사실 많은 논의가 있었고, 조금만 해 볼까? 좀 더 해볼까? 이런 식의 논의를 수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사와 설계사 사이에 코디네이팅 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업체에서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파악하고 전개하는데 그 코디네이팅 회사의 역할도 컸었습니다.
  - 유 :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것이 많죠?
  - 신 : 떨어진 것도 많습니다.
  - 박 : 표현이 어떨 진 모르겠지만,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 신 : 글쎄요.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25~30%정도의 성공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박 : 또 다른 계약관련 내용으로, 운생동에서는 설계계약을 할 때, 감리나, 인테리어 등도 함께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계약의 내용은 건축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과도 관련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운생동에서는 최초 제안할 때, 설계, 감리, 인테리어 등 모든 업역을 한꺼번에 제안하시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으시나요?
  - 장 :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건축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이 함께 이뤄지지 못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 유 : 제 경우에는 오히려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저 역시 생각은 원 설계자가 감리와 시공 등 모든 분야에 직접적인 입김을 넣고, 또 결정할 수 있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내 교안이나 강의록으로 다른 사람이 나처럼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라는 표현을 써서 설득해 봅니다.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송하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만에 하나 설계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 폐될 수는 없잖아요. 설계한 건축사가 책임지도록 하면 됩텐데…
  - 장 : 저도 매우 불만입니다.
- (장윤규 교수가 선약으로 인하여 자리를 떠남)
- 신 : 아뇨. 아건 수의계약이었습니다. 또 최초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한 번에 진행하였던 거를 아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일자전리로 진행되었죠.
  - 박 : 사실 우리 설계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의견수렴의

의미에서도 설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계속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설계 진행과정에서 곤란한 면이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하는 면이 있었나요? 이 질문은 그간 설계를 하면서 많은 사무소들이 같거니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보니 계속 문제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밝혀두실 내용은 없는지요?

• 신 : 우선 일반적으로 이런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전체 아파트 공사비에서 본다면 매우 낮은 비율의 금액을 설계비로 책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 금액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럴 때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설계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금액이 건축주로부터 제안된 후 거기에 맞추거나, 안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특정 프로젝트를 두고 말한 다가 보다는 국내 건축계에서 설계비를 협상한다는 것이 참 불가능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설계비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좋은 컨설턴트를 쓸 수 없고, 또 양질의 조사나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진행하면,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다시 설계자에게 돌아오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 박 : 참 좋은 지적이신데, 그럴 경우 운생동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 신 :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른데, 여건이 어렵더라도 대부분은 건축주와의 관계상 그냥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어려운 점은 설계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건설사들의 경우는 공사처럼 기성을 위주로 자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시 선급금이라는 걸 받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는 설계 진행 상 현금 흐름에 매우 고통을 야기하게 됩니다. 금액의 전체 액수도 문제지만, 그 금액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 유 : 대부분의 우리나라 건축주들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데 비해, 설계비에 대해서는 매우 박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신 : 저희 프로젝트를 떠나서라도 유사한 사례들에서 금액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모델하우스에는 보통, 건축, 인테리어 및 상품의 모델을 만드는 업체, 유닛 샘플하우스를 만드는 업체 등이 함께 일하게 되는데, 로비에 있는 공동주택 배치 모델(물론 매우 크게 만들긴 합니다만)을 만드는 비용이 전체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건축 설계비보다 많은 경우가 보통이더라고요.

• 박 :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설계비 보다 크지 않았지만, 거의 50% 수준에서 모델이 발주된 것을 보았습니다. 건축설계에서는 인원도, 기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필요하고, 또 그 가치가 큰데도 설계에 대한 비용보상을 매우 낮게 정했습니다.

• 유 : 문제는 건축이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물이해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개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설계비로 예산을 잡는 방안이 상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상식선에서 금액들이 결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사들이 물이익을 무릅쓰고 계속 그 금액에서 타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새로운 대안을 협회나, 전체 차원에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가야죠.

• 신 : 제가 최근에 모 공공부서를 방문했는데, 외국의 유명한 건물을 프린트해서 벽에 걸어두고, 우리도 이런 건물들을 만들자는 또 참고하자는 취지의 전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는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만 쉽게 갖고 오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유 : 이런 저런 사례들이 있지만, 하여간에 갤러리 303의 건축주인 건설사는 이 사업을 통하여 많은 가치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사의 분위기가 전 회장을 비롯하여, 문화 및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니, 아무래도 여타의 건설사와는 분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 신 : 유 교수님 말씀대로 이 건설사가 좀 차별된 건축주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의 경우, 여러 건설사와 일을 하였는데, 도급순위에 따라 다른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의 그 건설사의 경우, 업계에서 10, 11 위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히 그 보다 상위에 랭크된 건설사와는 문화, 예술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 박 : 그럼 이렇게 건축과 설계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건축주와 설계 진행과정을 통합해서 볼 때, 무엇이 설계하기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 신 : 차별화되고, 저희가 설계하기 좋았던 환경은 다른 건설사들의 경우, 모델하우스면, 그 스킨과 배치, 구조 등 엔지니어링부분만 의뢰하고, 인테리어, 모델하우스 전문업체 등을 별도로 계약하여 진행하는데 비해 갤러리 303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을 건축이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는 건축주였던, 금호건설의 깊은 이해도 필요했고, 또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던 회사의 안목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원하는 개념의 건축을 효과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상상해 보면, 아마도 진행과정이 다른데의 연속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저희의 경우는 전체 모델하우스에서, 내부에 전시되는 유닛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 박 :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보자면 모델하우스에서 중요한 업역이 스킨, 배치, 내부 공간, 전시되는 유닛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전시되는 유닛을 제외하곤, 모두 건축에서 진행하였단 말씀인 것이죠?

• 신 : 그렇습니다. 만일 다 나누어서 했더라면, 참 힘들었을 거예요.

• 박 : 유닛을 하신 분들과는 코디네이트 하는 부분이 없지요?

• 신 : 없습니다. 유닛 인테리어도 몇 분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일을 보면 같이 일하기 참 어려워요. 건축은 많은 부분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놓고 일을 하는데 비해 유닛의 경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코디네이트 하기에 매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유 : 연관해서 질문을 하면, 외관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보석함 같

기도 하고, 크리스털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부의 유닛은 사각형 박스 타입이란 말이죠. 그때, 겉 스킨과 내부 유닛의 외피, 즉 박스의 외곽과의 사이는 어떻게 정의 되는 것일까요?

• 신 : 아… 한마디로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인 것이죠.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 유 : 차라리 건물 한 가운데에 모델하우스 유닛을 두고, 적당한 거리가 생겨되는 공간을 공용으로 디자인 했다면 더 개념에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 신 : 물론 그렇기 한데, 모델하우스의 경우는 다양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성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공사가 매우 빨리 진행하게 되어, 사실상 다양한 생각들을 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 : 바쁜 공사 스케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공사를 진행할 때, 그런 바쁜 스케줄 때문에 설계자가 현장의 결정사항에서 배제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가요?

• 신 : 갤러리 303의 경우, 그렇진 않았어요, 저희가 감리도 하고 현장에서 계속 결정을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현장에선 매우 좋은 관계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 박 : 좋으셨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빗대서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보통 현장에서 설계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도면이 매우 충실히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힘을 실어 주어, 설계자를 통해 현장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갤러리 303의 경우에 어떻게 하여 건축설계가 현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나요?

• 신 : 물론 말씀 드린 대로, 감리도 저희가 했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 도면이 어느 정도 충실히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는 업체가 분양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품질을 요구하였고, 이들이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데, 매우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박 : 그럼 분양사가 설계자의 입지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네요.

• 유 : 혹시 운생동에서 이 모델하우스 말고, 허가 받고, 준공되어서 내포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 있을까요?

• 신 : 글쎄요, 최근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지은 건물이 있겠네요. 현상을 하고 당선해서 진행하였습니다.

• 박 : 그렇다면, 그 건물은 감리를 하진 못 했겠네요

• 신 :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용 없이 저희는 계속 현장을 지원했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계속 대응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집트

대사관, 예화랑, 또 마주에도 출판사 건물이 한 곳 있습니다.

• 유 : 들어보면, 큰 건설회사 말고, 작은 건설회사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규모가 절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작은 곳과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 : 주로 형태나 콘셉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예화랑의 경우, 당시 공사비로 350만원/평 정도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하지만, 임대료는 주변에 비해 높게 받고 있지요.

• 박 : 저도 그런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건축설계 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 것아죠. 예를 들자면 처음 시작하는 연구는 일련의 사례를 조사하는 수준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상을 받은 건물들을 대상으로 예화랑처럼, 주변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다든지, 앞에서 이야기 하였던 서울의 크링처럼, 대지 반환 때, 건물 값을 받는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공장을 지었더니, 그 회사의 주가가 올랐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설계가 실제 경제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윤곽이 삽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설계를 가치라는 면에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유 : 결국 그 이야기는 건축주와 건축사와 관계가 계속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 박 : 혹시 기존에 설계를 하여 건축을 하였던 건축주에게 또 다시 설계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 신 : 글쎄요. 저희가 운이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건축주와의 관계는 계속 좋아요. 그 분이 다시 설계계약을 의뢰 한다기보다는 우선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요.

• 박 : 지금 운생동의 인원이 몇 명일까요?

• 신 : 현재 스물두 명입니다.

• 유 : 아주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 신 : 걱정이죠.

• 유 : 혹시 설계한 건물 중에 비가 샌다거나, 원가 하자가 있다고 연락 오는 경우는 없나요?

• 신 : 비가 샌 경우는 없었지만, 환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 된 적이 있습니다. 뭐 A/S 차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 박 : 사무실 이름이 '운생동'인데요, 무슨 뜻인가요?

1) 작품을 통계적으로 꾸준히 했을 때 최고로 요구되는 정신적 감정과 공간적 감각과 운율적 감정과 생명적 감정과 생동적 감동력을 밟았다. 다른 말로 한복의 작품 속에 것들인 정신적 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기론(正氣論)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사물을 관찰할 때 어떻게 기를 살려 표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으로 정신적 감정, 공간적 감각, 운율적 감정, 생명감, 생동감을 표현하는 문제이다. 출처: <http://mybox.happycampus.com/sun84/2148298>

• 신 : 원래 '기운'이라는 말이 있다고, 동양학에서 사용하는 화법입니다. 마지막에 그림을 완성하는 화법이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그 충 한문을 좀 바꾸어서 저희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등에서 '같을'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윤규 교수께서 붓 편으로 직접 쓴 글을 저희가 명함에 쓰고 있습니다.

• 박 :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인터뷰들이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소위 '데이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중간에 고란한 질문을 하진 않았나 생각도 되는데,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의 끝내야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 신 : 이게… 모델하우스이지 않습니까? 그간 모델하우스는 건축사들이 하지 않는 건물 유형이었거든요. 그간 모델하우스 전문업체들이 했던 유형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요구가 바뀌면서, 이제 건축사들이 한 걸음 내 디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전 건축사들이 이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대부분의 전문업체들은 도면 몇 장 그려서 공기가 촉박하다는 핑계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진행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축사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잘 조정하여, 좋은 모델하우스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인죠.

• 박 : 결국 그 말씀은 '임시 건물이지만, 그 임시기간 동안이라도, 도시와 또 도시민의 삶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다.' 한 뜻으로 들리는데요. 또 책임도 따르고….

• 신 : 임시라는 시간적 한계는 있지만,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건축물도 건축물로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유 : 청주에서는 일반 건축물로 접근하였다고 들었는데, 그 때는 대관업무 등의 면에서 어땠나요?

• 신 : 그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모델하우스로 임시건축물을 매우 심풀한데, 일반 건축물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 박 : 결국, 도시나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데, 임시 건축물이란 이유로 매우 단순한 규정을 받게 되고 또, 이런 가설 건축물과 같은 상황인데도 일반 건축물이란 이유로 매우 솔리드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고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 법 규상 문제는 없는 건지 등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또, 최근 에스에이취 공사에서도 집은 사는(Buying) 것에서 사는(Living) 곳으로 바뀐다고 하며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용이란 측면에서 임시 건축물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 유 : 저는 이 건물을 보면서 앞으로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건물의 일부를 가설 건축 즉, 임시건물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열풍이 국내에도 불었는데, 사실 콘크리트로 건물을 만들어 버리면, 매우

비 친환경과 비 지속가능한 건물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인터뷰 하면서 일반 건축물들도 10년 이상 되면 모두 폐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 변경 등을 계획하게 되는데, 임시 건축물들도 1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 판단됩니다.

• 신 :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매우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되는 게 일반 건물인데, 그 보다는 이런 건물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친환경적이라 생각됩니다.

• 유 : 운생동에선 어떤 방식으로 결의를 하게 됩니까?

• 신 : 모든 것은 합의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저와 장 교수님이 주로 결정을 하고 세 명의 부소장이 피엠역할을 하게 됩니다.

• 박 : 혹시 이렇게 파트너 쉽을 운영하다 보면, 현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가 불편하진 않으신지요. 예를 들어, 의료법인, 법무법인 등은 법인과 개인과의 전문영역과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데, 건축사사무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법무법인은 법인의 대표가 있고, 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개인 크레딧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신 :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프로젝트들이 사무실 규모를 보고 수주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선 많이 필요하기도 하죠. 현재 독립 채산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협업이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사무실이 되긴 어렵죠. 저도 건축법인(말이 생소하긴 합니다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오늘 인터뷰를 돌아보면, 수의계약을 하시고, 한 번에 안이 통과되어, 인허가 없이 진행하고, 시공간 설계자의 의도를 잘 반영하였다 고 하시니, 참… 질문의 내용이 많이 출간 했는데, 어때신지요.

• 신 : 그렇다면 하더라도, 아쉬움은 많죠. 사실 이게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진행 되었어요. 참으로 정신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 박 : 의사결정에서 여럿이 함께 모여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까요?

• 신 : 저희는 열려있어요, 직원의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내고, 좋으면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 유 : 운생동 사무실은 얼마나 되었나요?

• 신 : 현 위치로 이사 온 지는 4년 되었고, 사무실을 만든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 박 : 알겠습니다.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 또 좋은 건물 설계 많이 해주세요. ■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승호상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1952년 10월 부산 생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1975년)



신학, 미술전공은 부모님의 반대로, 누나의 권유로 건축을 전공하게 되다 고3때 신학을 전공하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독실하신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것에 대한 사춘기적 갈등인 셈이었는데, 그 덕에 일찍부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비행학생이었지요. 다만 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은 확실히 합니다. 그러다가, 건축과는 잘 알지 못하는 문이였고, 화가가 뇌려 미술대학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장남으로 집 안도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미술대학 졸업에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세가 좋아하는 누님이 건축과 가라고 권해서 건축과에 가게 된 겁니다. 누님이 권하는 한 무엇을 권유해도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 막상 건축과에서는 건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

건축과에 가보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것이 없었지요. 건축에 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군부독재의 정국이 하도 어수선할 때인데 제가 한 일은 데모대 앞장 서서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 데모에 열중하고 학교는 휴교상태의 연속

데모하다가 잡혀도 가곤 했지만, 건축은 배우지 못한 채, 슬한 데모 때문에 학교는 늘 휴교하기 바쁘고, 가끔 선배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거동 낭으로 듣는 것이 건축에 관한 전부였습니다.

## 조교선생에게서 꼬르뷔제와 칸을 알게 됨

손재주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선배들에게 불려가서 그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1학년을 보냈습니다. 학년말에 공대학생 회장하던 분이 고교선배인데 마침 건축과 선배이기도 하지요. 그 형이 너는 이제 데모하지 말고 건축공부 하라고 진지하게 말해주더군요. 늘 대장처럼 섬기던 선배가 그렇게 말하니 그때부터 건축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딱상 2학년 본과수업 시작 시 첫 강의를 '거룩하게' 들었는데, 건축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제도기는 구얼 사라고 말하는 통에 실망이 이만 서만 아니었고 이런 학교는 다시는 나니지 않겠다고 결심했었지요.

수업은 듣지 않고 밖으로만 빙빙 돌면서도, 건축은 알고 싶어 원서가 출비한 미국공보원에 가서 건축에 관련된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교 조교로 계시던 김국영 선생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건축공부에 관한 지도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책을 소개해주시거나, 꼬르뷔제, 루이스칸 등 대가의 작업을 트레이싱지에 그려보라고 권유받는 등, 그 당시 제게 필요한 특별한 수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요.

아마 수업을 나가지 않았으니 정상적으로는 졸업이 불가능한 것인데 휴교가 하도 많았던 시절이라 그냥 졸업은 한 쟁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불안정한 시국이 졸업을 시켜준 셈이지요.

## 김희춘 선생의 소개로 김수근 선생 제자로 들어가다

운명은 저도 모르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졸업 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대학 4학년 때 선배사무실을 잠깐 나가면서 미국유학을 갈까 고민 중인데, 학교의 마지막 수업시간을 기념처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김희춘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다 진로를 물어보시는데 저에게만 물어보시지 않다가(잠깐 좌절했지요), 수업마치면서 저더러 내방으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짜고싸 "자네는 김수근한테 가지 그래" 하시는 겁니다. 황망스러워 엉거주춤하는 사이 즉석에서 김수근 선생께 전화하시더니 "학생하나 보낼 데니 써주게나" 부탁하시는 겁니다. 영겁결에 저의 진로가 결정된 겁니다. 그때가 1974년 12월이었습니다.

## 공간에서 두 번의 탈출

공간연구소에 들어가서 15년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에 김수근 선생을 피해 두 번 도망갔지요. 한번은 1978년도에 마산성당 설계를 마친 후 국제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1년 동안 가게 됩니다. 그곳 에시의 생활은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월급은 많이 받아 온갖 허세를 다 부리며 다녔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1년 반에 공간으로 복귀한 셈이지요.

두 번째는 1980년 야만적 광주민주항쟁을 보고, 이 땅에서 건축하며 사는 것이 죄악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도피하게 됩니다. 유학시험을 볼 필요도 없고 비자 받을 필요도 없는 복잡한 절차가 없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과대학으로 1980년 8월에 떠났습니다. 돌아올 기약은 그 필요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혼자 떠날 작성이었는데 떠나기 한 달 전에 집사람을 만나게 되어 갑자기 약혼하고 가게 되었지요.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 1982년도에 공간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외국에 가보니 김선생의 건축을 아직도 덜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국내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외국에 가니 내가 아직도 김수근 선생에 대해 덜 배운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김선생 건축이 더 궁금해진 것이지요. 외국 것을 알면 알수록 비교가 되고 건축의 본질에 대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제게 김수근 선생은 확실한 스승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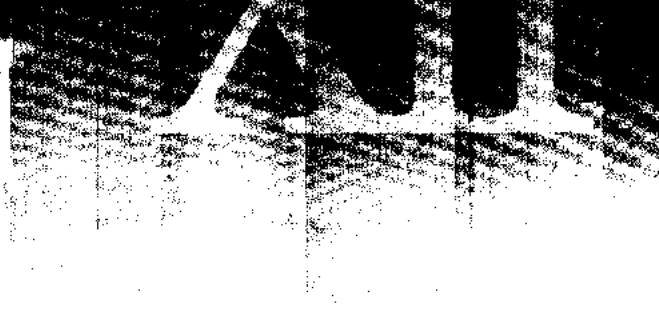
## 공간에서의 작업

공간에서 한 작업 중 기억나는 것은 1977년 마산성당입니다. 책임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한번 이탈하였고 다시 돌아온 후, 1979년에 청주박물관과 경동교회(1979~1980)의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는 것 까지 보고 오스트리아로 유희간 것입니다.

## 공간의 침체기에 복귀

유학 마치고 1982년도에 공간으로 복귀하고 보니 사무실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에 지난 정권에서 일하던 분들을 배척하는 정치적 분위기라 그런지 정부 일도 못하고 프로젝트도 많이 줄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당시 주미대사관저를 담당했을 때인데 김선생이 병으로 아프게 되시



조각가 부랑쿠시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해  
천신만고 끝에 친구의 도움으로 파리에 가서 방을 얻었는데  
방에 표어를 붙여놓았습니다.  
건축사를 지망하는 건축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처럼 창조하고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하라”  
저는 이 말을 건축사의 창조력과 직능에 대한 자존적 자부,  
그리고 그를 위한 차별화 삶에 대한 경구로 삼고 있습니다.

고 사무실이 침체기로 접어든 셈이지요. 결국 김선생은 198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 지방법원 당선은 궤도일탈의 소산

1983년도에 서울법원청사 설계경기가 있었는데 사무실이 어려울 때와 제 생각에는 무소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일념에 참가를 말리시는 김선생을 설득하여 우겨서 제출하였고 결국 당선은 되었습니다. 제가 당선될 만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김선생께서 1985년도에 병을 앓으시고 사무실은 어렵고 하니 구조조정 한다는 등 어수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소장제로 서울 운영한다고 제도도 바꾸고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사무실을 공통으로 옮기고 했지요. 저는 김선생 돌아가시면 공간시대도 끝이나고, 나도 독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 공간의 대표가 되다

그런데 1986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는데, 김선생을 장세양 선생과 같이 문병 드리라 갔더니 들어서 공간을 지겨달라고 유언처럼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은 한 달 후인 6월 14일 돌아가셨습니다.

#### 고난의 2년

당시 제게 건축사 면허가 있어 법적으로 제가 대표가 되었는데 밖은 것은 빚 30억 원이었지요.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빚쟁이가 된 것 이지요. 은행과 사채업자, 임금체불로 직원들이 소송을 하지 않니 노동부에 블려 다니지를 않나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2년이 지나니 견딜만해졌습니다.

공릉의 땅과 사옥도 처분하여 악성 빚도 갚고 해서, 맷집도 생겼지만 사무실 사정은 꽤 나아졌습니다. 마침 장세양 선배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저는 독립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요.

#### 이로재라는 이름으로 독립

그래서 1989년 녹립하였습니다. 작년 말이 20주년 되는 해라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개업 전에 공간사의 생활이 어려움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것도 독립의 이유가 되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김선생 사후에 공간 작업들이 내 건축 인지 김선생님 건축인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누군가 작품에 대한 퀄리티를 물어볼 때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작업이다 라는 생각도 품고 김선생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이 도리어 김선생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거지요.

승효상 건축은 무엇인지 제자신도 모르는 것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 대단한 욕구가 밀려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끊고, 아무가진 것도 없이 대하로에 방을 얻어(89년 12월 27일) 시작한 거지요.

기습속에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다시 나의 이름으로 건축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저나온 과정들이 오히려 눈을 나도록 고마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 수출당이 첫 번째 프로젝트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일들 중 공간에서부터 계속했던 일들을 제외하고는, 민사의 미학이라는 회두를 내걸며 작업한 수출당(1992년)이 첫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수백당(1999년) 등이 시작 때의 일입니다. 그 후로는 웰컴사티(2000년), 혜화문화관(2002년) 그 다음 일이 중국에 진출해 첫 번째 프로젝트인 장성주거단지(2002년), 다소 큰 규모로는 휴맥스(2005), 파주출판단지 코디네이터(1999~2009년), 중국 차호웨이소호(5만평, 2008년), 현재 진행 중인 일로 말레이시아 재개발사업인 복합건물인 샌들디투(15,000평) 등이 있습니다.

#### 중국에 진출하다

2000년 중국에 초청받았는데 중국 최고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소호차이나입니다. CEO는 장신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시아건축사 12명을 초청해서 만리장성 인근에 빌라를 짓는 것입니다. 장영호라는 중국건축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그중에 제가 포함된 거지요. 저는 클럽하우스를 맡았지요. 그 후로도 소호차이나시와 좋은 관계로 프로젝트를 계속 받아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중국 땅에 한국건축사집을 짓는 것이 아마도 단군 아래 처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기는 1994년에 오사카에서 열린 IAA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장영호라는 중국건축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 후로 친해졌습니다. 중국은 개인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들이 필요하여 초청받지 않으면 힘들지요.

#### 중국 프로젝트 이후 세계로 진출하다

그 이후로는 세계 여기저기에 일을 하게 됩니다. 아부다비에 새로 신도시 짓는데 구겐하임 뮤시엄에서 매니지하고 있는 것에 계획설계(2007년)를 제출하고 진행 중입니다. 아부다비 시내에는 게리, 장누벨, 자하 하디드, 다다오 안도 등 메이저급 건축사들이 박물관을 설계하고 비엔날레 전시관이 20개정되는데 저도 포함되어 전시관 설계를 맡은 거지요. 도시 전체는 2016년 혹은 2018년에 완성됩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일본에도 일이 있습니다.

#### 김수근 선생의 영향

김선생의 건축작업의 어휘는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것이고 김선생 본인의 건축사적 태도, 건축하는 방법, 삶 등 모든 것들이 제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토대의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 집중해야 되는지, 김선생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분인데 그런 카리스마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저는 김선생님과 많이 부딪쳤습니다. 다른 직원보다 유난히 많이 부딪힌 셈입니다.

#### 나의 건축이 김수근 선생의 건축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공간에서 나와서 제 건축을 한다고 할 때 막막했습니다. 김수근 건축 말고는 다른 건축은 아니도 몰랐으니까요. 4, 3그룹에 참여해서 활동하게 된 것도 다른 건축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지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대학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실로 오랜만에 건축사 승호상을 만나게 되었다. 같은 공간출신이라도 나는 근무한 횟수에 따라 김수근 선생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량이 다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처럼 영리한 건축사가 무려 15년을 김선생 밑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김수근 선생의 짐재력이 컸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그의 건축의 바탕 저 밑에 김수근 선생의 건축이 깔려있고, 그 위에 승호상의 건축이 다져져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실제로 이제는 꽤 유명한 건축사가 되어 매스컴 특히 신문에서는 심심치 않게 그의 글을 읽을 기회가 있다. 처음에는 그저 잘나가는 건축사에 대한 질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세를 타는 건축사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야 건축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인터뷰 다음날 급히 미국으로 떠나는 그의 바쁜 발걸음이 그의 현재를 충분으로 말해준다.

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미 길러진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어 아무리 김수근 건축에 대한 교육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다른 깨달이, 원래 각 인간의 타고나고 길러진 성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전시적 성질도 다르고 그 당시 교육내용도 세가 받은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니까 어릴 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릴 때 환경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철저한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자랐지요. 즉 성경의 교리나, 칼빈니즘의 원칙, 대소 요리문답 등 저의 정신적 바탕을 이룬 것들이 기억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의 토대였던 것이지요.

#### 유명한 건축사보다는 좋은 건축사가 되고 싶다

유명해졌다는 것은 허울이고 그래서 그런 말이 거북스럽습니다. 유명한 건축사가 반드시 좋은 건축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해지기는 쉽지만 좋은 건축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남준 선생이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한 것은 타고난 실력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 있겠지만, 제 경우는 다릅니다.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지요.

한번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반대편에 아주 예쁜 여자가 있어 쳐다보고 있자니 갑자기 일어나서 제게 오기며 저는 항의하려 오는 줄 알았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한 일이 있어 당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없다

명해지기 위해 노력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매스컴에 글 쓰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건축계몽차원에서 쓰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거꾸로 제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이겠지요. 건축인들이 보는 건축잡지 보다는 대중잡지에 글 쓰는 기회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 나도 100살까지 건축을 하고 싶다

건축사의 비전이라는 것이 지난 프로젝트에서 저지를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브라질의 오스카 니마이어는 나이가 103살인데 98세 때 다시 결혼하고 그러면서 아직도 실무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신은 더없이 행복한 삶이겠지요.

좌우영? 그런 단편성을 별로 좋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경사무실은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있기도 하고 자주 가 볼 수도 없어 민경식씨가 북경 이로재 대표입니다. 제게 보다 많은 기회를 던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내부지향적인 한국건축계

너무 내부지향적입니다. 요즘시대는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호해지는 건데 IMF때 국가가 개인을 살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연대를 통해 직능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하는 일이란 직능이 아니라 직업의 연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건축사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할 때 개인이 홍보 못하잖아요. 이런 때 단체에서 개인 혹은 일부 집단을 홍보해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래의 기능이 정지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직업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과는 달리아는데 학회도 마찬가지구요.

#### 단체의 통합은 필요

경계를 허물어야지요. 저는 그런 단체들 근처에도 잘 안 가지만 통합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통합해서 직능에 관한 논의하고 꼭해야만 할 건축적 행위가 많습니다. 국가가 건축에 관한 개념이 없으니 개인사무소의 생존은 각자의 문제지만, 예를 들어 한국건축의 담론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것도 그런 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 건축사의 해외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기회만 있으면 한국건축사를 잘 소개시키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됩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단체가 세계유명도시에서 한국건축사 순회전시회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세일 문제 되는것이 출판에 관한 것인데, 일본건축이 출판으로 세계시장에 일본건축의 정보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었습니다. 한국에도 건축잡지가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서점에 가면 한국건축서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책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협회 같은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정부

양극화현상은 정부의 잘못이지요. 턴키다 피규 신사다 해서 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데 한탄스럽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이걸 없애달라고 권력 학심부에 말해도 믹이사슬이 워낙 강해서 아마도 근세기 내에는 해결될 기미가 안보입니다.

대형회사(Big Firm)에서 조금 윤리의식이나 한국의 건축 발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일단 좋아가는 형국이라면 결국 공멸하고 말겠지요.

작은 사무실은 동서고금을 마루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간규모 사무실이 없어진다는 거리시 건축 설계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는 풍토가 걱정 아닐까요.

대형조직은 작품성을 논하고 소형사무실은 작가성을 논하고 이런 형세가 점점 심해지겠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꼭 니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부입니다.

#### 부랑쿠시의 표어를 가슴에 품다

조각가 부랑쿠시가 어렸을 때 집인이 기난해서 천신만고 끝에 친구의 노움으로 파리에 가서 방을 얻었는데, 방에 표어를 붙여놓았습니다. 건축사를 지망하는 건축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처럼 창조하고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하라”

저는 이 말을 건축사의 창조력과 직능에 대한 자존적 자부, 그리고 그를 위한 치열한 삶에 대한 경구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직원 30명과 북경지사에 5명 있는데, 30명은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 매출액? 모르긴 하지만, 일인 당 1억 이상은 해야 사무실이 유지가 된다고 말은 듣고 있습니다. ■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t Seoul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축설계 아이디어 당선작이 지난 2월 1일에  
발표됐다.

총 113개의 제출작 중 최우수작 5팀, 우수작 5팀이 선정됐다. 최우  
수작 5팀에게는 저명초청설계공모의 참가자격과 상금 5천만원, 우수  
작은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됐다.

올해에 최종안을 선정할 예정이며, 2012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이 지원은 국립현대미술관 사업관리팀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편집됐  
다. 최종 최우수작만 게재토록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건축사사무소 / 민준호 외 4인

- (주)건축사사무소 엠에이알유 / 정일교 외 4인
- (주)창림건축 총합건축사사무소 / 이필준 외 3인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신준규 외 3인
- (주)진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동훈 외 4인

### 우수작 명단

-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 강인철 외 1인
- 건축사사무소 이자 / 박호 외 4인
- (주)건축사사무소 베타 inc / 우의정 외 1인
- (주)건축사사무소 핸드 / 박명일 외 1인
- 종합건축사사무소 라움에이엔씨 / 최운정 외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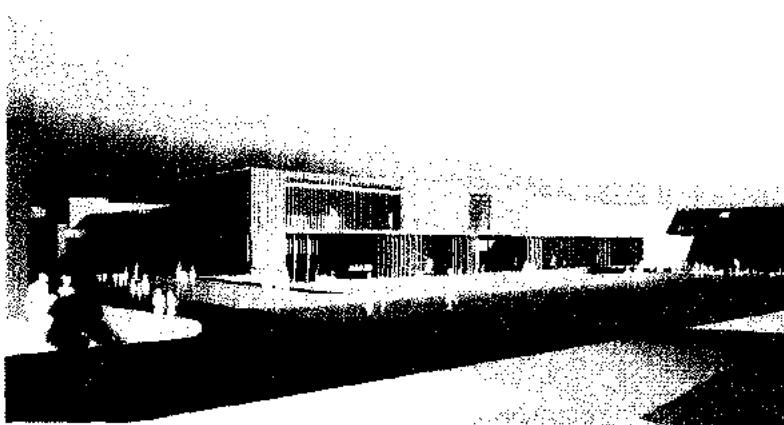
## 쉐이프리스 뮤지엄

### Shapeless Museum

mp\_Art 건축사사무소

· 민현준  
· 이우진 · 최성열  
· 박종민 · 박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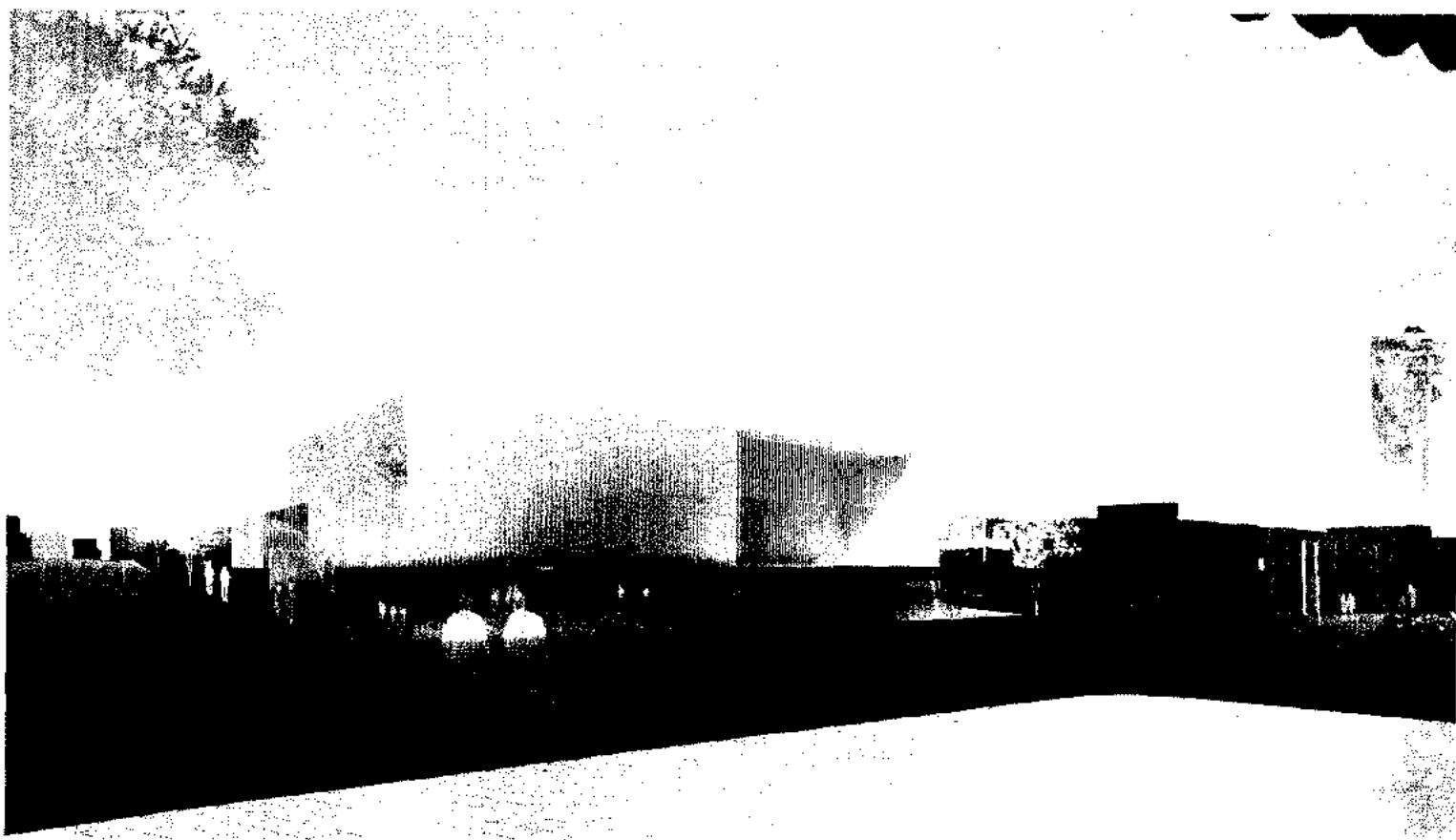
· 대지면적 27,354m<sup>2</sup>  
· 건축면적 11,148m<sup>2</sup>  
· 연면적 53,748m<sup>2</sup>  
· 건폐율 40.75%  
· 용적률 55.87%  
· 규모 지하 3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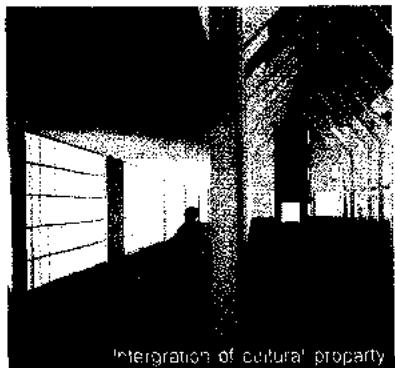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국립서울미술관이 오보제적 형상이 축소된 체, 컨테스트에 녹아든 조용한 이미지고자 했다. 하나는 주어진 대지주변이 경복궁, 북촌 및 기무사 등 중요한 역사와 현대사의 주변의 상황이 새로운 형상이 추가되기에 부담스러웠고, 다른 이유는 건축물이 요란하지 않은 미술품 전시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건축사가 좋아할 미술관보다는 미술가들이 좋아할 미술전시 프로그램이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미술관이고자 했다.

배치는 주변의 경복궁과 북촌의 대비적인 컨테스트에 대하여 매스가 아

니라 일련의 다양한 크기의 마당으로 반응하였다. 이 마당들이 건물의 외피가 되어 건물의 형상보다는 마당의 형상들이 강조되고 미술관의 아이덴티티가 되고자 했다. 마당들은 미술관의 기능적 이외에도 도시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 도시적으로는 기무사 등 독립적인 시설들에 의해 단절되었던 대지 주변에 활력을 주는 단초이고자 했다.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에 반응하는 다양한 취향의 마당이 되고 이 마당들이 다양한 대중들의 관심사를 내부의 순수미술로 수렴시키는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장치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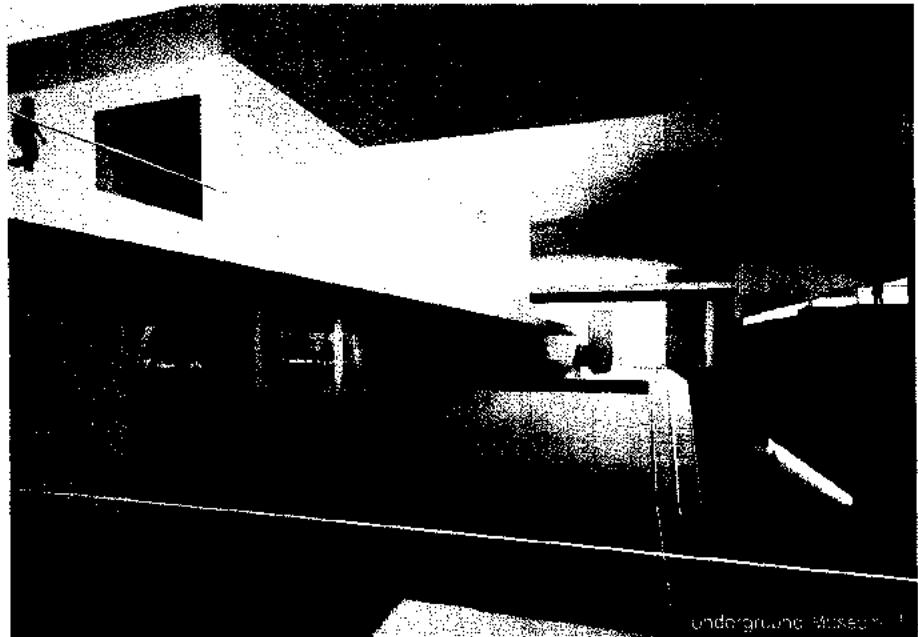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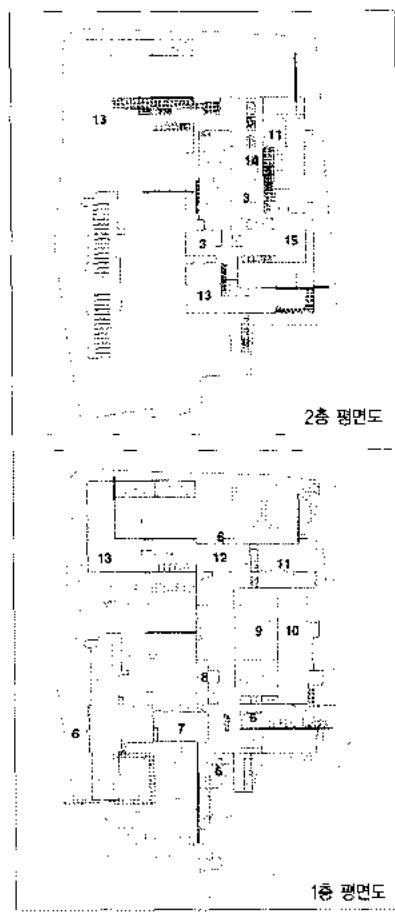


Old &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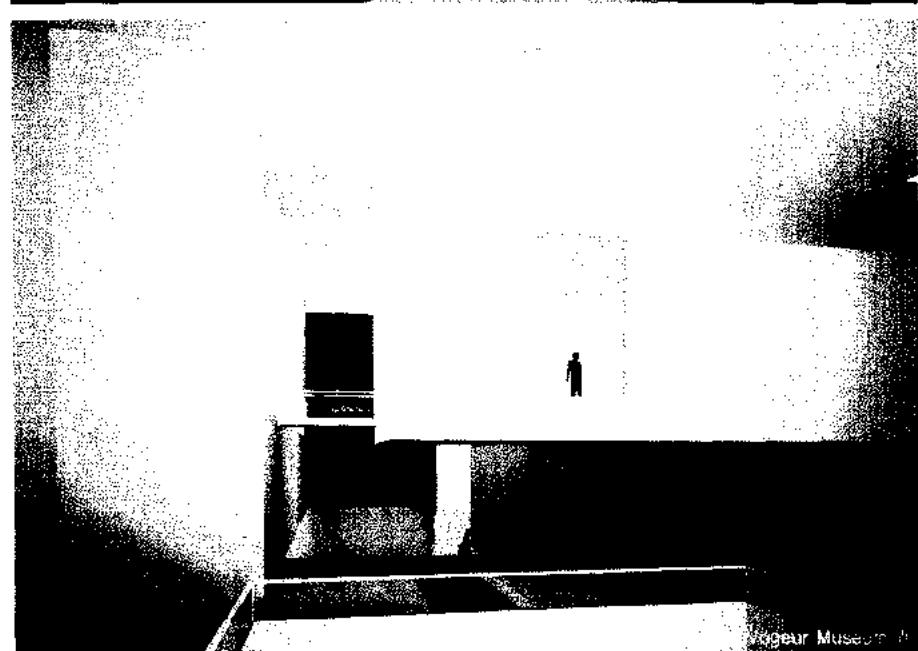


Integration of cultural prop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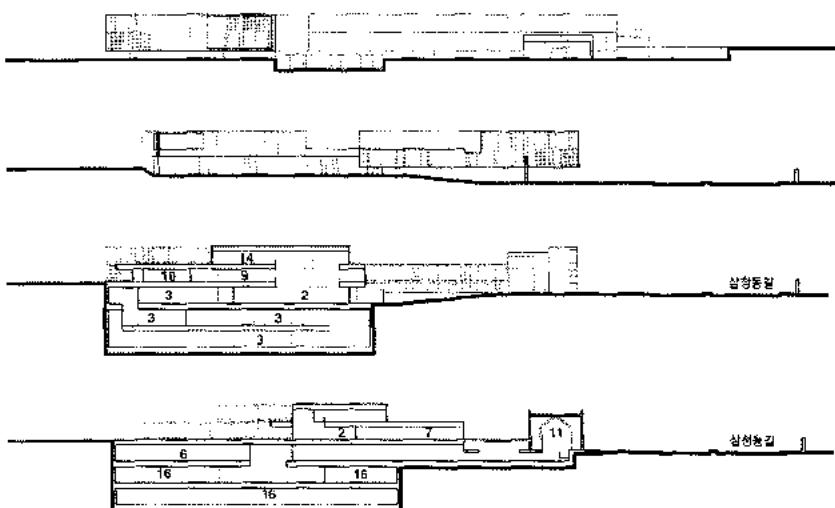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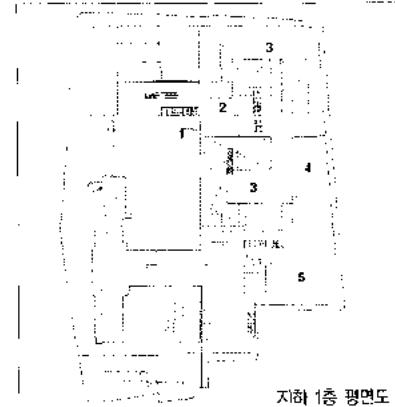
- |            |            |             |
|------------|------------|-------------|
| 01_ 주출입구   | 07_ 레스토랑   | 13_ 엘트, 디디어 |
| 02_ 총      | 08_ 상점     | 14_ 카페      |
| 03_ 전시실    | 09_ 미술관상품숍 | 15_ 도서관     |
| 04_ 아울렛    | 10_ 패러리    | 16_ 주차장     |
| 05_ 청교/준비실 | 11_ 노동관    |             |
| 06_ 출입구    | 12_ 로비     |             |



underground Museum 1



underground Museum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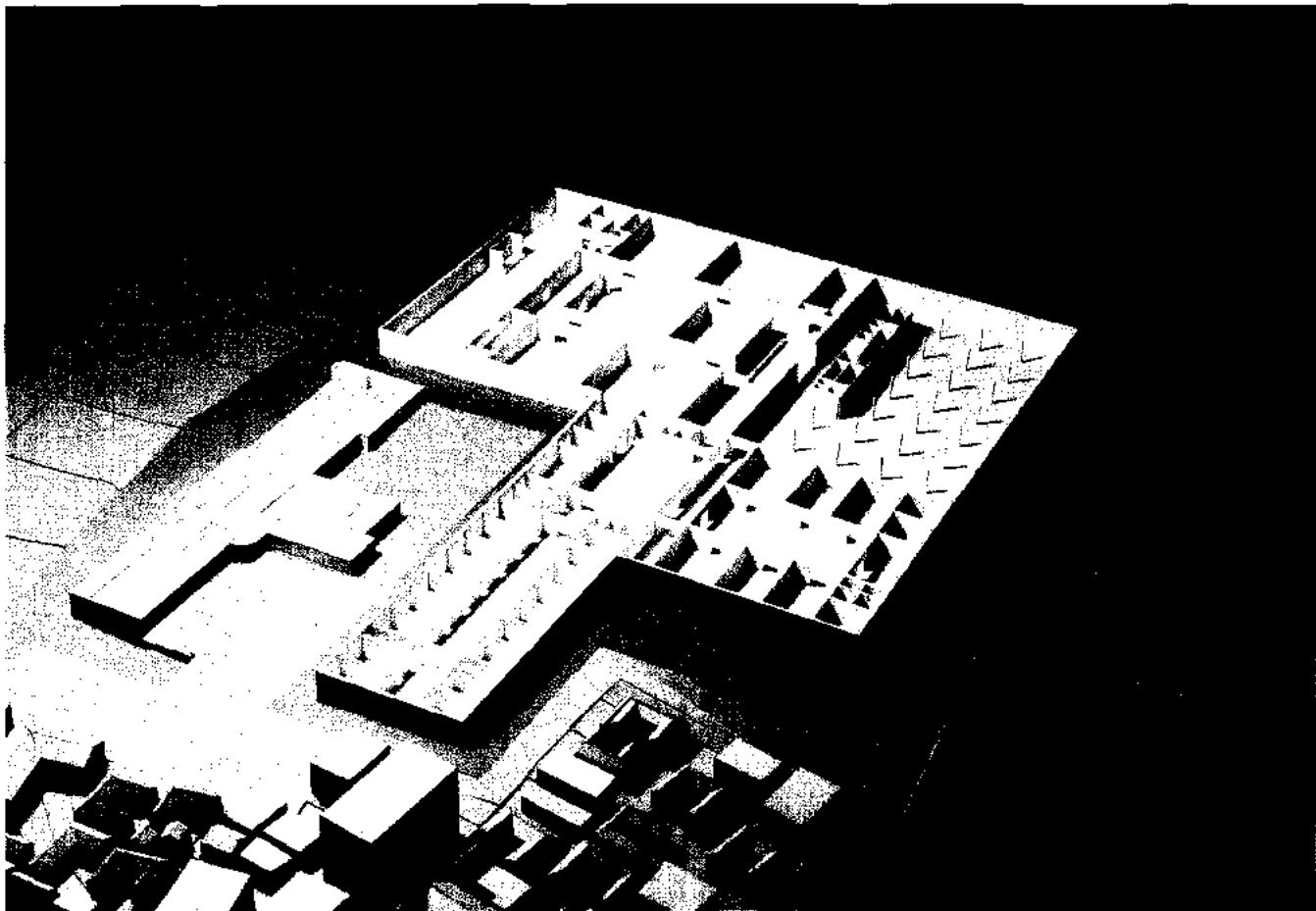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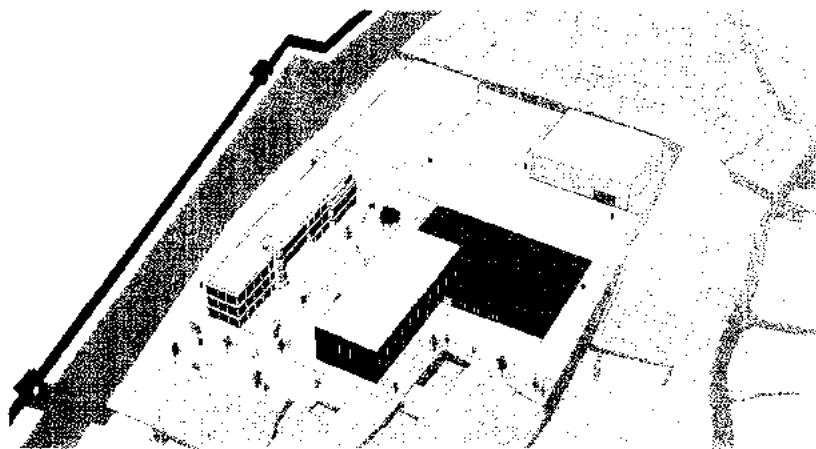
# 퍼블릭 룸으로 써의 국립 현대 미술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s Public Rooms

(주)건축사사무소 엠에이알유

- 정일교  
- 김종규  
- 민준기  
- 최준우  
- 장별

대지면적 27,354m<sup>2</sup>  
건축면적 15,066m<sup>2</sup>  
면적률 50.924m<sup>2</sup>  
건폐율 65%  
용적률 81%  
규모 지하 3층, 지상 2층



도시 공간의 조직\_기무사를 포함한 대상 부지는 큰 공간적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경복궁과 세밀한 휴먼 스케일을 갖고 있는 북촌 마을의 사이에 위치 한다. 이러한 스케일의 차이는 '국립 현대 미술관'의 공간적 스케일이 대조적인 두 스케일의 원충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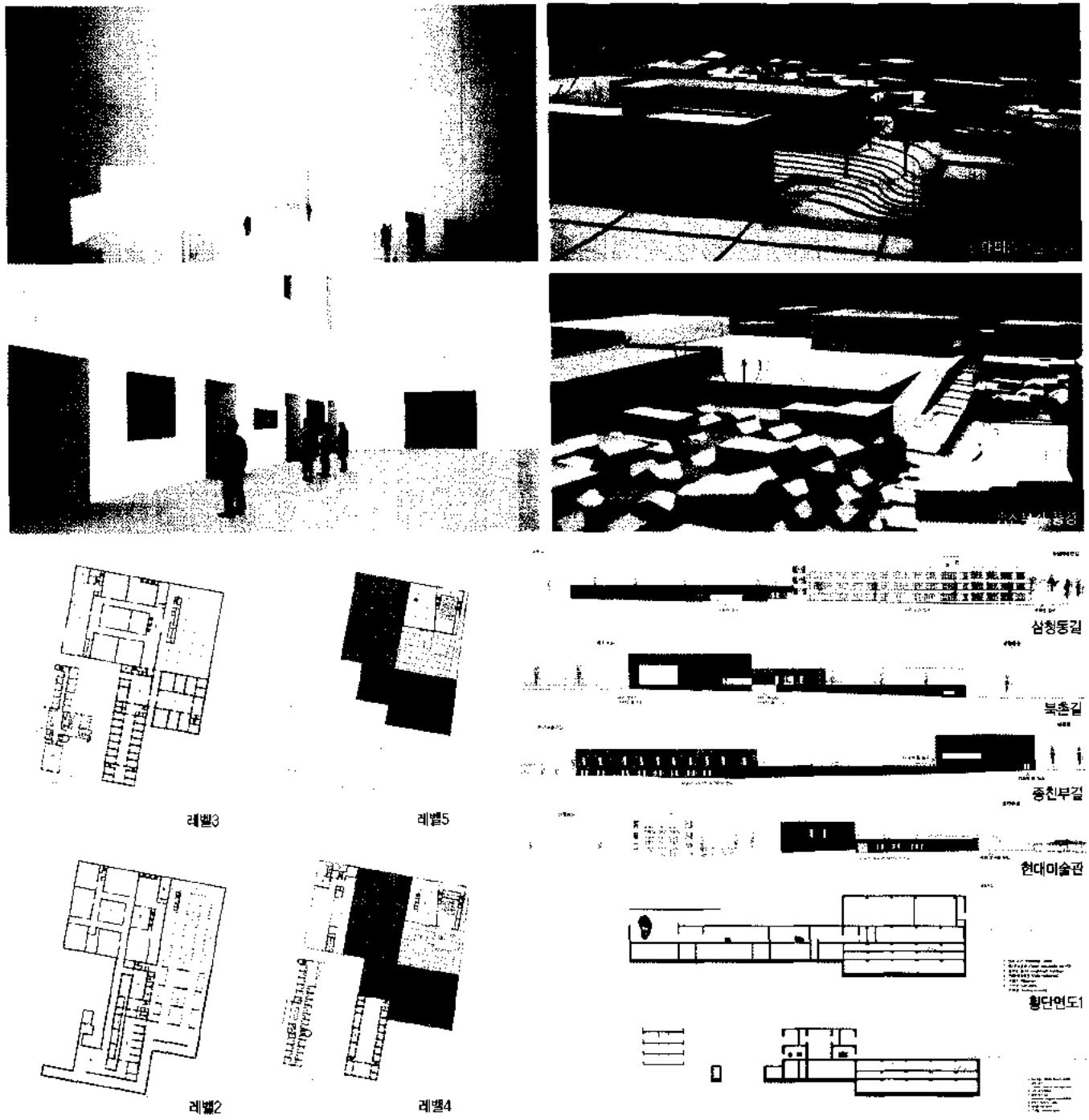
연결성\_전통문화유산과 현대적 문화 컨텐츠가 공존하는 징소인 대상부지는 세 개의 길들(삼청동길, 북촌길 그리고 종친부길을 면하고 있다. 세 개의 길들은 그 것들이 연결하고 있는 문화적 컨텐츠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길들의 연결과 교차가 대상부지의 문화적 성격을 부여 한다.

문화 응집체로서의 세 개의 퍼블릭 룸\_대상 부지의 다양한 문화적 컨텍스트와 현대 미술관이 제공할 다양한 예술 문학 요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기존의 대형미술관들이 주는 권위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 방법으로 세 개의 '퍼블릭 룸'을 제안한다. '퍼블릭 룸'은 컨텍스트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성격들을 담는 공간이자, 예술 문화와 대중이 교우하는 문화 응집체이다. 이러한 개념은 확대되

어 삼청동 지역을 도시의 거대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기무사와 퍼블릭 룸\_각각의 퍼블릭 룸은 서로 접하고 있는 길의 성격과 이웃하는 문학 컨텐츠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문학재인 기무사 건물은건축적인 의미 보존을 위하여 문화적 프로그램의 무리한 적용과 물리적인 조작을 자제하고, 원형 보존과 근본적인 건축 용도에 합당한 프로그램의 짐유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퍼블릭 룸을 위한 공간 조직\_특정시대의 건축물인 기무사와 각각의 퍼블릭 룸은 문화적인 성격에 맞는 쓰임새를 위한 개별적인 건축적 평면 구조를 갖게 된다. 가변적인 공간 구성이 가능한 오픈 플랜, 다양화 크기의 실들이 소합된 복도 없는 평면, 그리고 실들의 독립적 운용이 가능한 복도형 평면을 각각의 퍼블릭 룸에 적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낮은 층고와 작은 방으로 분할된 평면을 갖는 기무사는 공간 규모에 합당하며 원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공간으로부터의 외관\_입면의 구성 또한 건축적인 평면 구성 방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오픈 플랜은 자유로운 입면을 가지며, 복도 없는 평면은 조직 건물의 입면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고, 복도형 평면은 각 실이 녹립적인 입면 및 채광을 갖도록 구성된다.

여느 역사적인 도시처럼 북촌의 도시 체계는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조합이다. 기구사 건물이 그려하듯, 세워된 공간 구성방식에 충실한 외관을 제안 함으로써 대규모 계획이 주는 획일적 패턴의 이질감을 파하고, 기존 컨텍스트와 융화되는 입면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컨텍스트에 의해 성격 지워진 퍼블릭 룸은 세 개의 차별적인 평면방식에 의해 구성되고, 평면의 건축 언어는 세 개의 다른 외관을 이끌어 내며, 이는 다시 컨텍스트로 환원된다.

각 실의 성격\_제안된 세 개의 건축적 평면 구성 방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실들과 기구사 건물의 실들은 공간의 크기, 실의 높이, 채광과 미디어 설비 소건

등에 따라 재분류 된다. 이러한 분류는 공간을 객관적이며 물리적인 성격으로 코드화 하여, 구체적인 운용 계획에 의해 성립된 프로그램이 힘리적으로 각 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또한 이러한 공간의 코드화는 다양한 형식의 예술 장르에 대한 대응과 미술관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전시 개념에 따른 공간 구성\_공간 코드화에 의해서 세분화된 공간들은 각각의 특징에 맞게 유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현대 미술관의 경향이 일방향성의 전시관보다는 양방향성의 체험과 소통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전시 공간의 평면 구성만으로는 이러한 다변화되는 공간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힘들 것이다. 서로 다른 공간 조직의 조합은 공간 운용 개념에 따라 공간을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현대 미술에 대응 가능한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다.

중축 개념\_건축 계획상 건폐율의 하용 범위와 지하 공간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용적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추후 계획될 증축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 하였다.

# 어반 캔버스 Urban Canvas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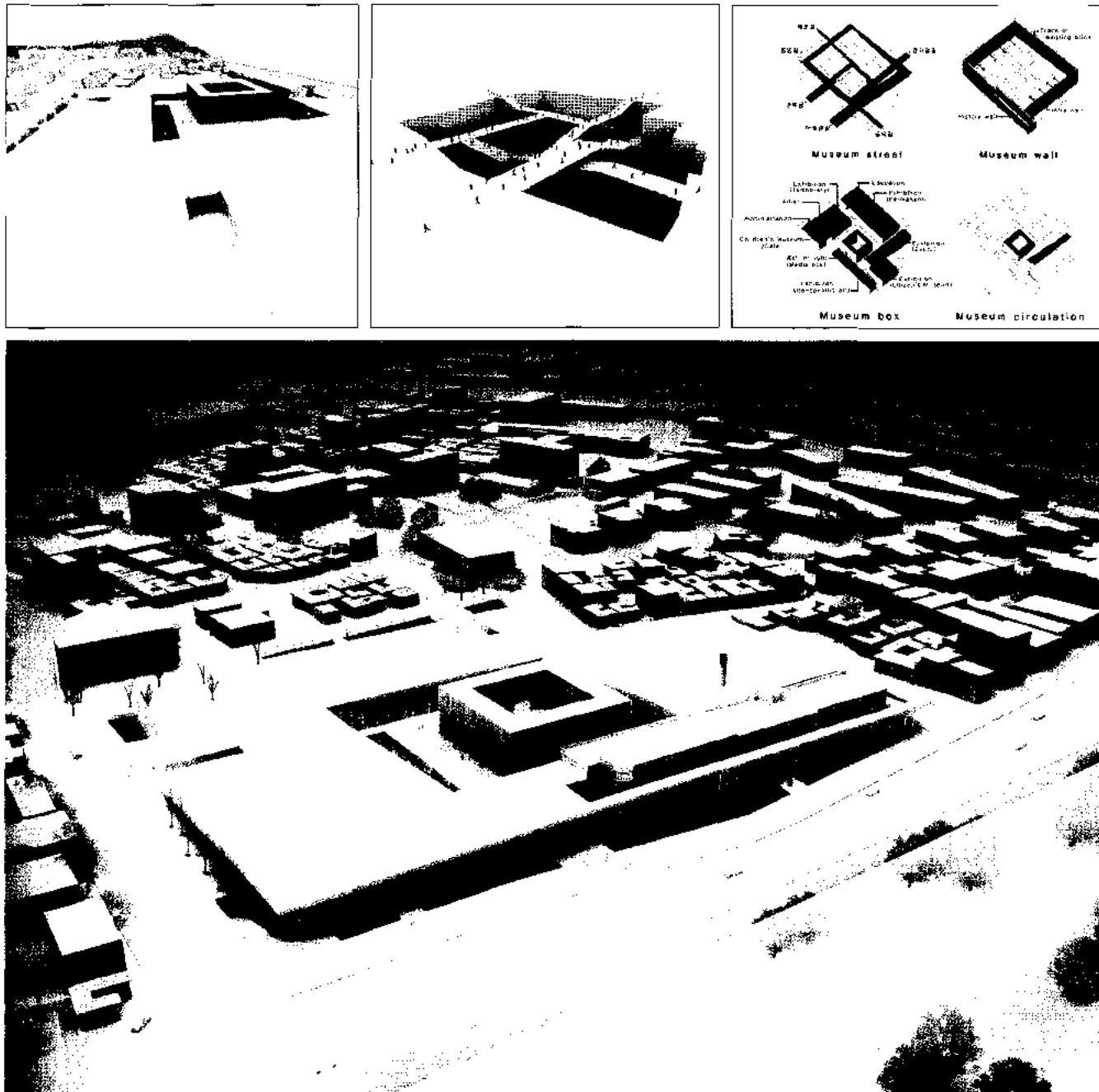
- 이필훈
- 김성우
- 임성필
- 정우진

대지면적 27,354m<sup>2</sup>  
건축면적 4,954.96m<sup>2</sup>  
연면적 56,442.84m<sup>2</sup>  
건폐율 18.11%  
용적률 28.18%  
규모 지하 4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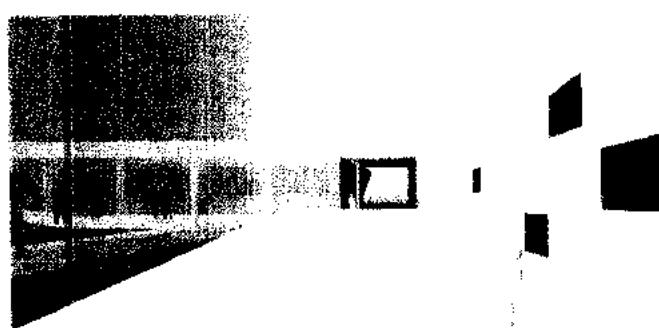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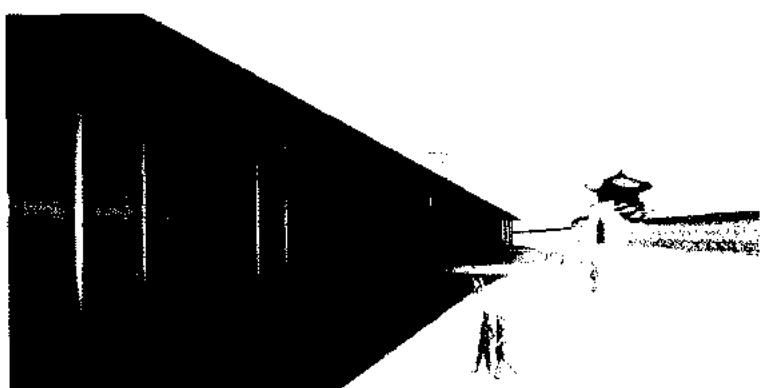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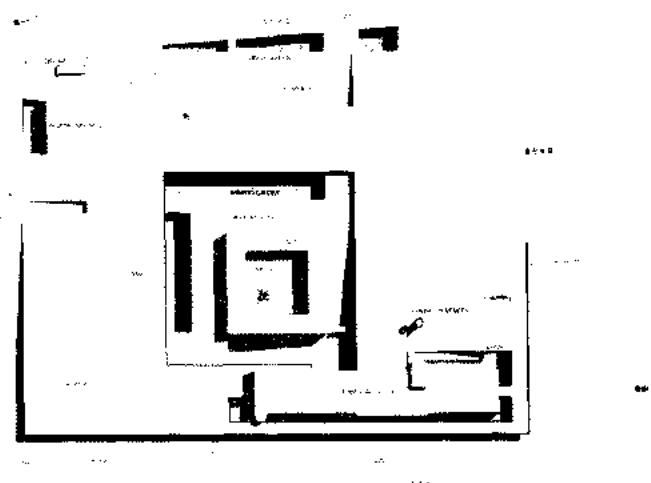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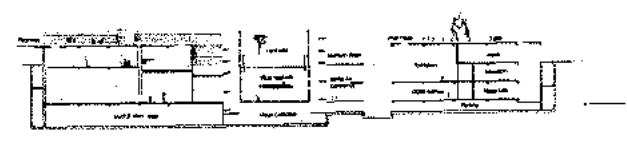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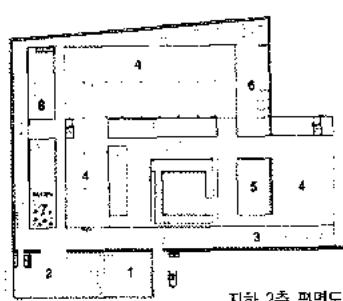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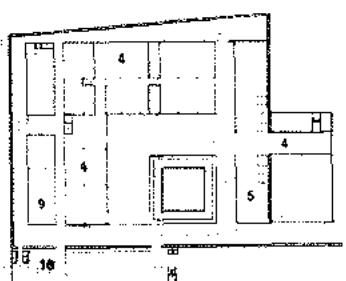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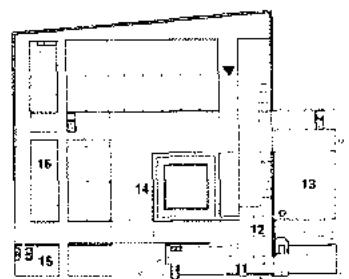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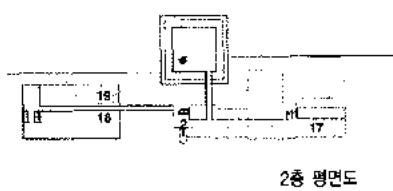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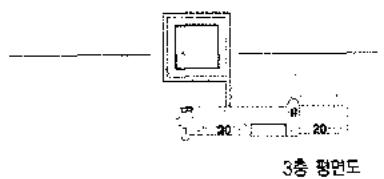
## 흰 빛으로 그린 풍경

비워내는 것이 계획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이곳 '북촌'이라는 도시 밀도에 대한 해석과 단절의 역사를 간직한 '땅'의 도시적 재생을 고민했기 때문이다. 새로 드러나는 미술관은 북촌의 낮은 도시 흐름이 연장된 '판'으로 형성되어 경복궁과 멀리 인왕산을 낮게 드리운다. 이렇게 규정된 플랫폼(Museum Platform)은 '열려진 대지'를 형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술적 활동을 담아내는 베이스(Base)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도시 미술관'으로써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위(Activity)를 유발시킨다. 한편 도시에서 이어지는 '길'들은 판의 상부와 하부를 통해 내부로 관입되어 미술관의 내부 동선으로 확장된다. 이로써 연속적인 공간 구성을 통한 건물 내외부 상고관입을 만들어낸다. 미술관은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으로서 북촌의 좁고 긴 골목길의 '흔적'이 스며들어 내부전시물과 어우러진 '기억의 산책로'를 형성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의 풍경이자 한국적 마당이 가진 '비움'의 정서이다.



01_ 미디어 극장	06_ 계단 전시장	11_ 로비	16_ 아뜰리에
02_ 풀	07_ 라이팅	12_ 전시홀	17_ 특별 미술관
03_ 카페	08_ 스튜디오	13_ 시민 갤러리	18_ 교육실
04_ 전시장	09_ 강의실	14_ 전시장 거리	19_ 카페테리아
05_ 뮤직박스	10_ 강당	15_ 미술관	20_ 카페, 스카이아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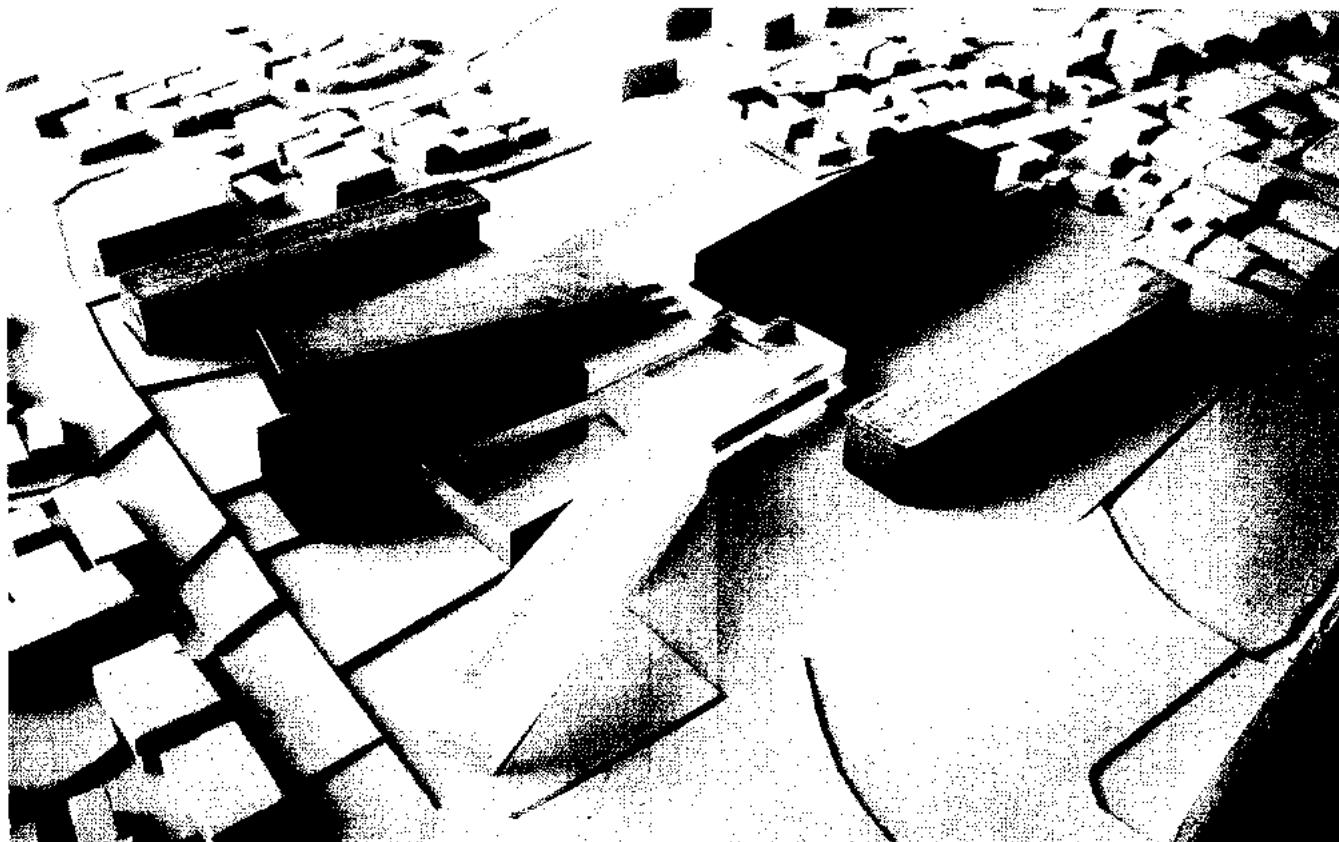
## 모도 募道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신춘규
- 최윤정 (플랜\_씨)
- 최춘웅 (고려대학교)

대지면적 27,354m<sup>2</sup>  
건축면적 7,174m<sup>2</sup>  
면 면적 33,866m<sup>2</sup>  
건 폐율 26%  
용 쪽 률 123%  
규 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다원성\_현대미술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단일한 기념비적인 긴줄이 대변할 수 없고 전시할 수도 없다. 미술관 설계의 건축적 접근은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의 논쟁을 소통시키는 한면 이전에 주변인으로 간주되었던 목소리들도 현대기술의 주류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일하고 육중한 건물대신, 일곱 개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구조를 구 기무사 대지에 지을 것을 제안한다. 근대건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존 기무사 건물과 이를 낸수한 형태로 본는 일곱 개의 밖내형태 건물들이 대지 내에 일련의 오부공간의 틀을 구성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일반일반인의 접근자체가 차단되었던 군대 시설 부지에 참신한 개방감, 접근성 및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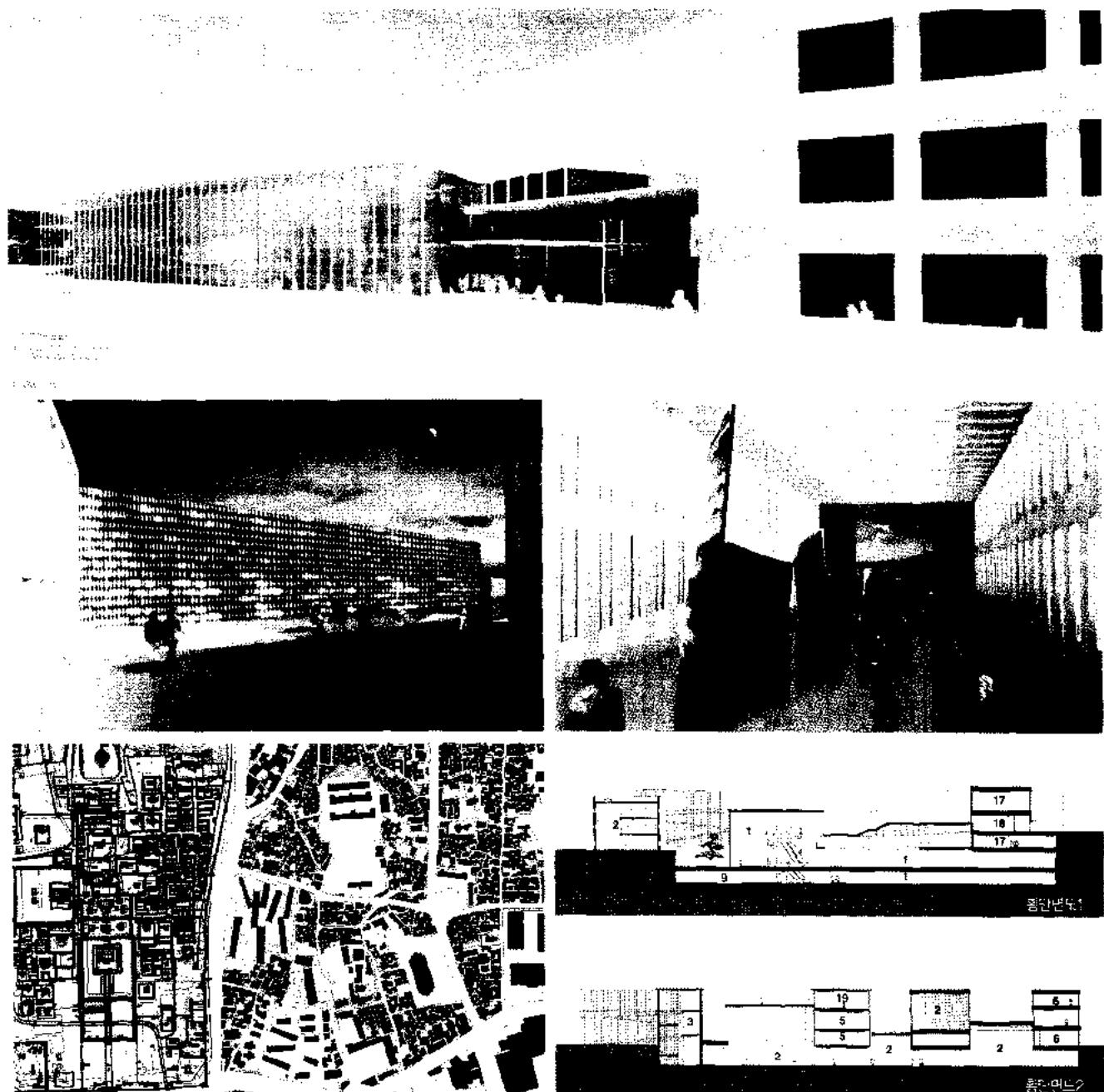
일곱 개의 건물들은 각기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의관상 다원성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반면 이들을 연결하는 우동직인 지하층 공간은 다양한 예술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미술관이 표방

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진열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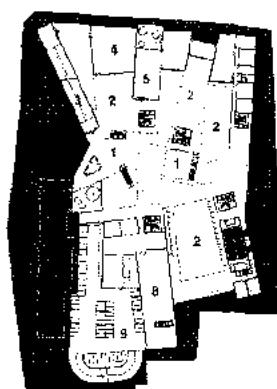
개방감\_구 기무사 건물은 한국 군사장권과 권위주의로 대표되는 과거의 상징이다. 북촌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권위의 섬이 그 지역의 활기찬 흐름을 끊는 커다란 구멍과 같은 형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물리적 상황 또한 과거의 인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새 미술관 건물의 분절된 다양성이 마치 예술 전반에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과 이에 따른 결과물에 씩응할 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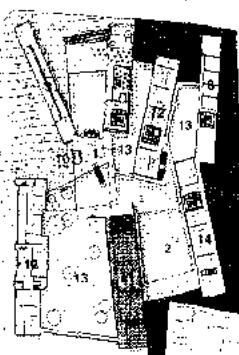
구 기무사 건물을 포함한 일곱 개의 건물들은 브리지와 지하층의 전시공간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건물 사이에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외부공간은 모두 두로 레벨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대지주변을 따라 건물을 사이에 존재하는 확연한 투과성은 단절되었던 주변 동네의 크고 작은 골목길을 연결시켜줄 뿐 아니라 가벼운 만남이나 즉흥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크게는 미술관 전체에 실험적이고 관용적인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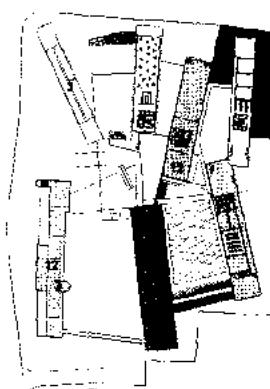
- 01\_우비/풀
- 02\_대전시공간
- 03\_점밀집표
- 04\_서점/개념용품판매
- 05\_카페테이미
- 06\_교통관
- 07\_미디어극장
- 08\_수장고
- 09\_주차장
- 10\_주류인구
- 11\_설성전시관
- 12\_기획전시관
- 13\_온인조각공원
- 14\_미디어전시관
- 15\_미디어멀티관
- 16\_미디어카이브
- 17\_미디어센터
- 18\_미디어박
- 19\_리스트판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화이트 큐브

### White Cube

(주)진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동훈  
· 김주원

**대지면적** 27,354m<sup>2</sup>  
**연 면 적** 17,820m<sup>2</sup>  
**건 평 풀** 36.8%  
**용 적 풀** 83.4%  
**규 모** 지하 4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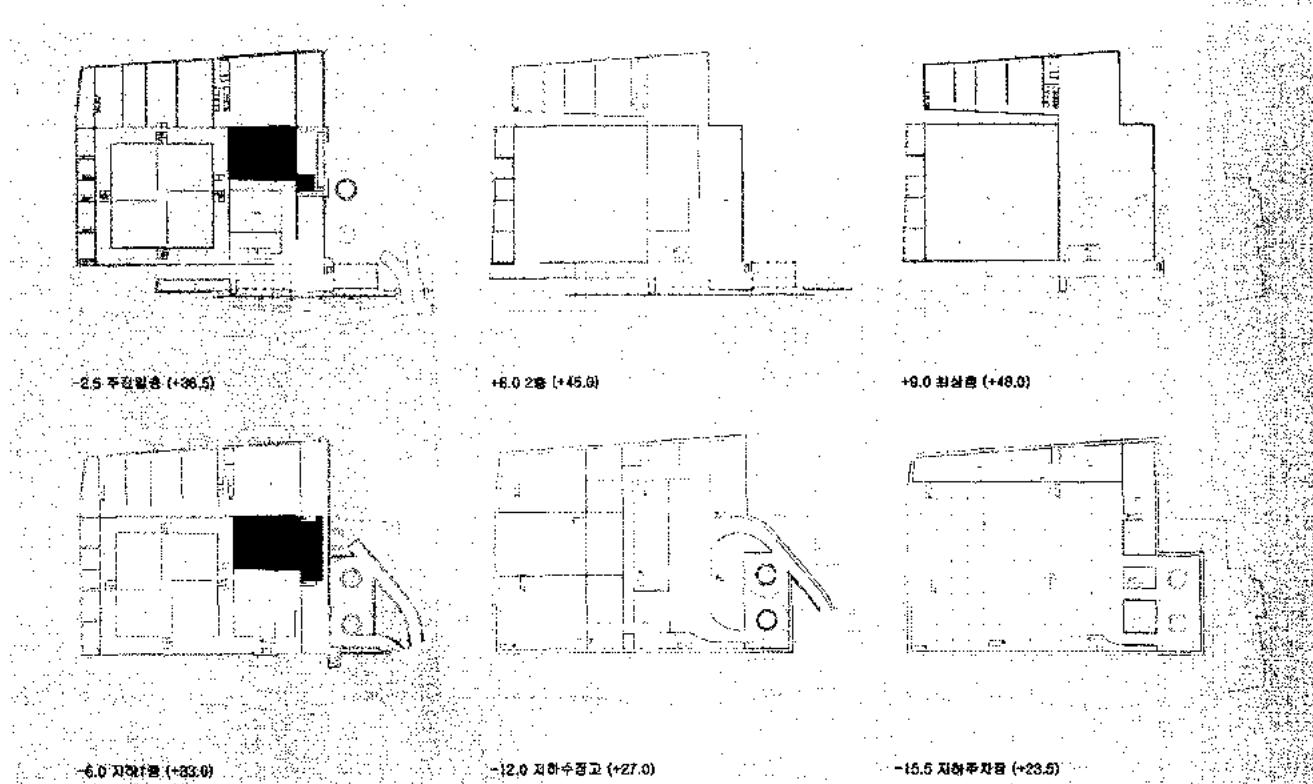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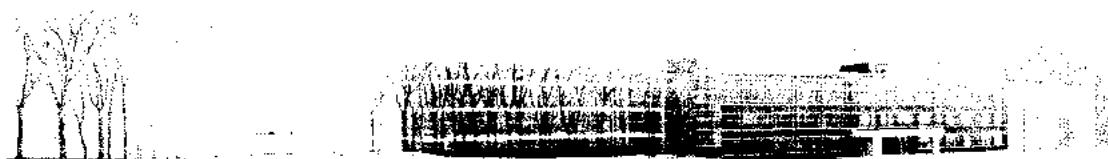
군청권시설의 식고마김 아래에 존자하는 건물의 원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벽돌, 금속유리창호 외장 어 창틀, 슬라브 등의 수요 높이마다 연속적인 수평 띠가 돌출, 박선으로 건물을 감싸는 '930년 초 서양 근대건축의 영향을 짙게 받은 양식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수령미는 당시 자동차, 비행기 등 유체역학이 적용된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스트림라인 (streamline)으로 기계적인 속도와 운동을 건축가 념적으로 받아들인내시 탄생하였다. 이러한 오만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며 대지서쪽에 면한 산정동길의 직선적인 도로속에 대안 근대적 해설으로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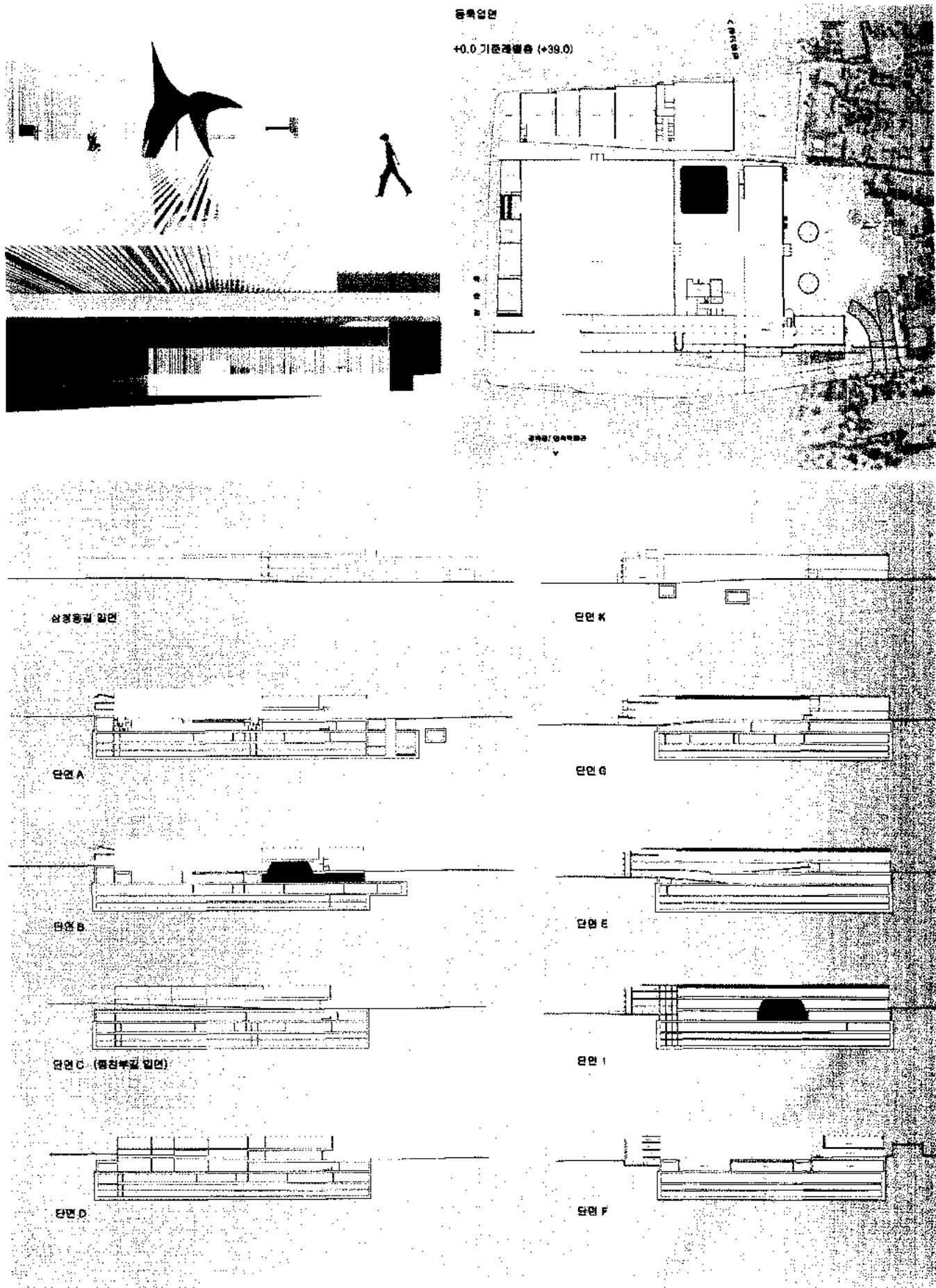
건물 내부는 병원, 사무 등의 용도로 거듭 사용되어온 과정에서 계단실을 세워한 주요공간의 번형과, 심히 디자인적인 새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조슬라브 두께를 포함한 면세의 총고는 3.9미터 정도로 일반적인 현대미술전시 용도로서는 너무 낮아 행정, 사무, 뮤지엄샵, 카페테리아 등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배치하였다. 기무시건물은 경복궁과 북악산이 보이는 탁월한 조망을 고려할 때 이용 가치가 매우 높지만, 기준래벨을 +39.0으로 잡았을 때 현 지붕비단판 레밸은 지구단위계획상 최고 높이 (+51.0)보다 약 2.50 미터 낮아 공공용도로 쓰여기 부

적합하다. 따라서 지붕비단판을 500정도 낮춤으로써 옥상에 회원전용 라운지와 카페 등의 후시공간을 계획했다.

기구시 건물의 낙원은 우선적으로 식고외장을 세거하여 기존 벽들을 노출시키고 근대식의 철물창호를 자설치하는 것을 도모로 한다. 다만 현대적 기준에 비추어 창호의 기밀성이 떨어지므로 내부에 유리벽을 추가로 설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이중창호 구조를 세운한다(타이드모던의 낙원방식과 유사함). 삼청동은 파사드는 윤형으로 복원되며 기존의 필로티 현관은 병유리과 앗볼리 방풍실을 설치하여 새기술관의 주출입구로 계획되었다.

삼청동길은 기존됨장을 하늘으로써 보드를 대지경계로 내 굳을 알끼시 옹장시 카는내 개당성은 확보되시 반 옛 건물이 노로의 소음과 텅신에 노출될 위험에 있다. 이에 삼청동길에 대한 대지 전면에 투명한 TFD가 이식된 유리방음막을 설치하여 차로의 소음을 차단하는 동시에 청단 미디어아트 이미지 또는 다양한 시각정보들이 미술관전시에 노사하도록 한다. 이로써 기존건물파사드는 밝은 대낮에 유리막에 반사된 주위의 풍경과 어둠 속에서 찾을 반해 LED 이미지의 중첩된 보여 보존이 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새롭게 인식된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 한국 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당선작 / 손명기 · 김관중 한국가스공사 · 한종률 한국가스공사 · 허인  
(주)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영균 한국가스공사(주) 히림 종합건축사사무소)  
황현명 한국가스공사(주) 투에이치엠 건축사사무소)  
강남충 한국가스공사(주) 다음도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34-4일원(대구혁신도시 내)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및 기타부속시설
대지면적	64,892.00m <sup>2</sup>
건축면적	12,548.72m <sup>2</sup>
연 면 적	62,500.04m <sup>2</sup>
건 폐 율	19.34%
용 적 률	57.70%
규 모	지하 2층, 지상 10층
발 주 처	한국가스공사
설계담당	삼우건축_김창원, 김형철, 강혁진, 송상근, 고성철, 이석철 희림건축_박규용, 김상, 김성철, 정현락, 정용우, 김지은, 신보아

“자연과 도시를 담은 에너지 대동맥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도약”

#### Eco Vessel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대표 이전 기관인 한국가스공사의 기업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업 이미지의 표출과 함께 공사가 위치할 대지의 도시적 문맥을 해석하고 건축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프로젝트 진행 전반에 설계팀이 고민했던 주요 과제였다. 단순한 상징적 아이콘 디자인을 지향하고 도시 및 자연과 호흡하고 청정에너지 기업의 미래성을 공간적으로 표현해 보려는 것이 디자인 전문의 근간이 되었다. 특히, 대지의 위치가 혁신도시 클러스터의 외곽부에 위치하며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색과 주변 저층형의 도시계획을 고려, 타워형의 수직적 상징성을 배제하고 자연친화적 저저층 계획을 선택하게 되었다. 대지가 고지대임을 감안할 때 저층 포니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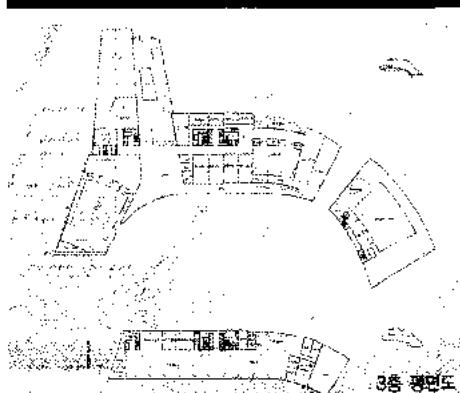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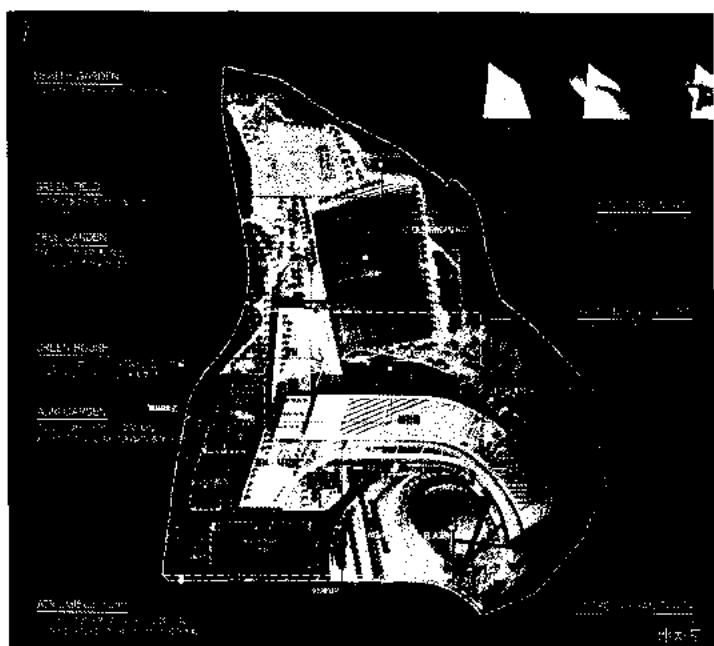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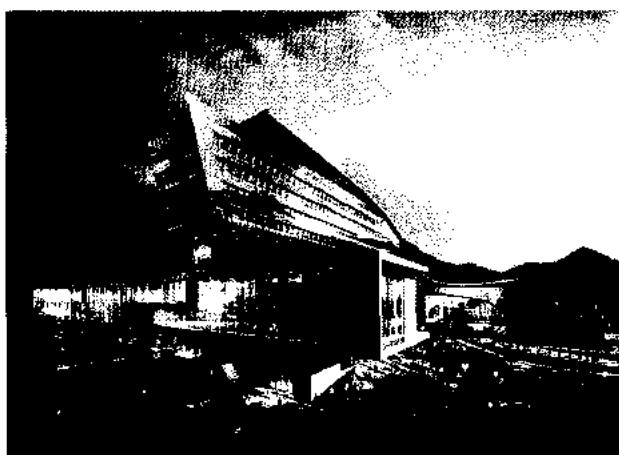
제외한 상부 층은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높은 타워를 계획할 필요가 없었으며 자연지형과 어울리는 조형성과 공간적 상징성으로 기업 사옥으로서의 랜드마크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대지 전면 우측에서부터 진입되는 주접구동선을 자연스럽게 수렴하는 매스의 형태와 대지 후면부에서 흘러내려오는 자연의 흐름을 반영한 매스가 자연스럽게 결합하고 상승하여 에너지가 생성되는 지층의 융기형상을 반영하는 매스형태가 디자인되었다. 또한 두 매스의 접합부에 에코리움과 상층부에 에너자리움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흡사 지층에서 에너지가 집적되는 보이드 스페이스를 유추 해석하여 자연의 청정에너지를 담는 소통의 장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공사 직원들과 도시민들이 공유하게 될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가스공사 사옥은 자연과 교감하여 에너지가 충만하고 이를 도시민들과 공



유함으로 중폭시기는 장이 되어, 가스공사의 청정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도약의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 ■



#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우수작 / 함인선 (주)선진에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한일호 (주)MAP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필준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우일 (협동원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대구시 동구 신서동 134-4일원 (대구혁신도시 내)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64,892,00m<sup>2</sup>

건축면적 19,135.61m<sup>2</sup>

연 면 적 62,566.66m<sup>2</sup>

건 폐 율 29.49%

용 적 률 96.4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24층

설계담당 선진건축\_문진수, 최윤실, 김민수, 정구영,

이지은, 강현철, 김현성

MAP한터인건축\_남정훈, 김태현, 흥서진

정림건축\_강정일, 박성혜

공사의 상징성 및 도시의 아이콘이 되기 위한 랜드마크성과 조망을 고려할 때 저층형이 아닌 타워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디자인의 컨셉은 크게 세 가지로서 Eco-Energy(친환경시설), Community-Energy(지역사회 기여), KOGAS-Energy(직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구현하였다.

공간의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류, 자연채광, 조도 분석에 의한 최적의 오피스 평면형태를 만들고 수평수직의 Eco-Tube, 고효율의 Double Skin, 바람길, 옥상녹화, Eco-Box를 통해 친환경요소를 강화하였다.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를 이용한 녹색공원과 공용공간을 극대화시킨 아트리움은 녹색공원이자 문화공간으로서 이용자 모두의 사용성을 한층 높여주었다.

평면계획에 있어 저층부는 1층부터 각각 공공성 배려, 자연으로의 휴식,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의 개념을 담았고 고층부는 Eco-Box Office, Creative Office, Wind Terrace Office로 계획하였다.

입면은 지층을 뚫고 나온 가스 불꽃을 모티브

로 하였으며 Strata, Blaze, Union의 세 가지 컨셉을 포디움과 입면패턴, 배스에 각각 투영하였다.

## 랜드마크로서의 타워

- 공사의 상징성 및 도시의 아이콘으로서의 랜드마크, 조망을 고려할 때 저층형보다는 타워형이 적합한 디자인.

## Eco-Energy(친환경시설)

- Community-Energy(지역사회기여)  
- KOGAS-Energy(직원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을 구현한 디자인.

## 친환경공간담기

- 기류, 자연채광, 조도 분석에 의한 최적의 친환경 요소를 구현한 오피스 평면형태  
- 수평수직 Eco-tube, 고효율 에너지 Double Skin, 바람길조성, 옥상녹화, Eco-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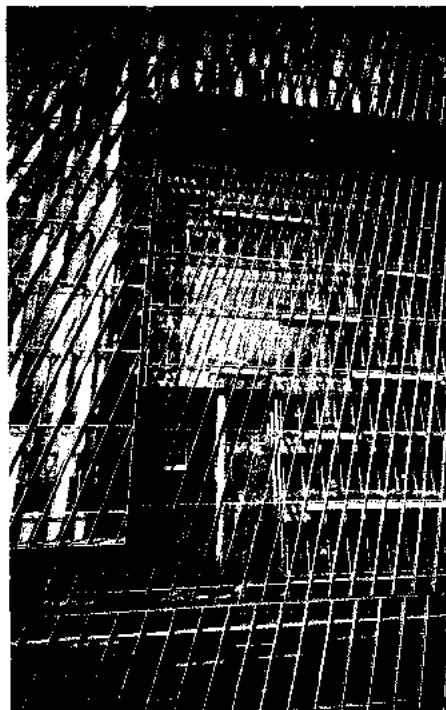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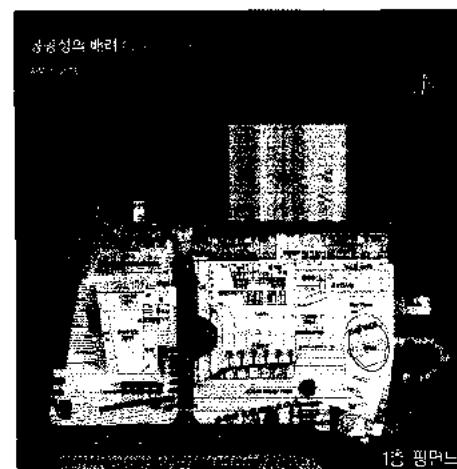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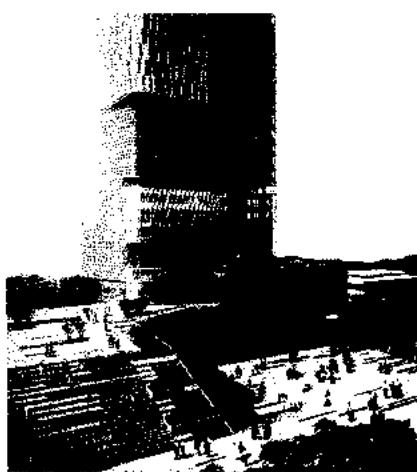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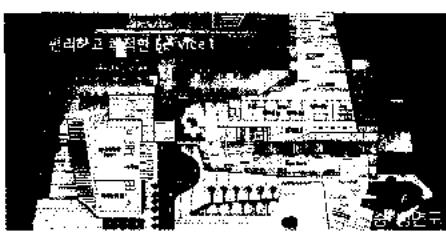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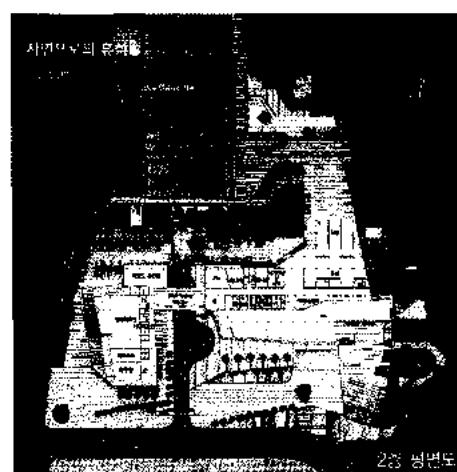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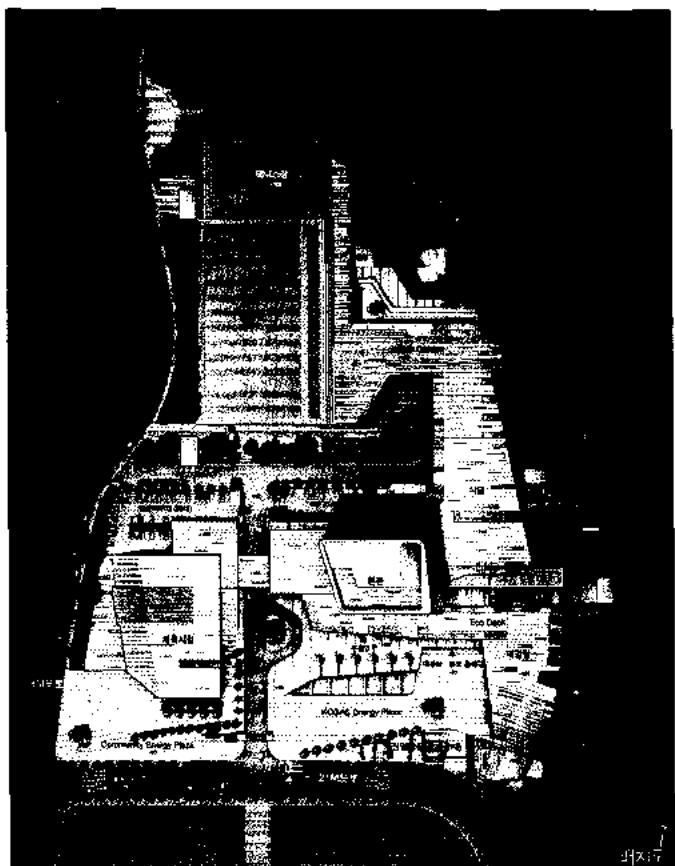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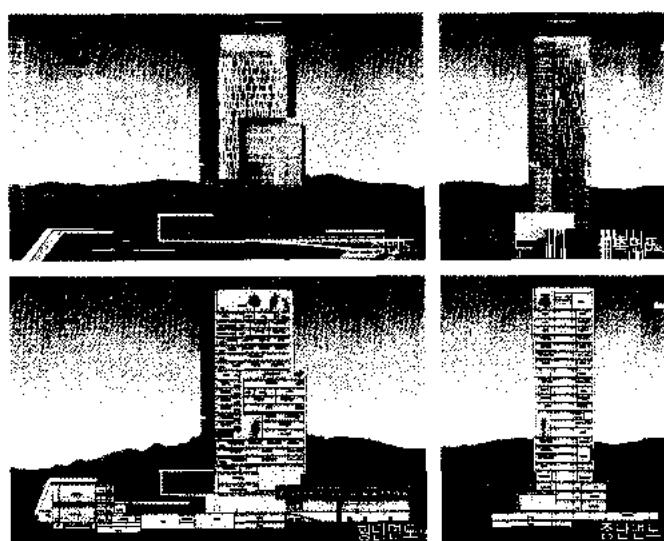
## 녹색공원 담기

-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를 따라 녹색공원 조성 (Deck Garden, Step Garden, Lunch Garden)  
- Check Point를 통한 Security의 개방, 통제 가능



## 문화공간 담기

- 지하주차장 최소화, 공용공간 극대화를 통한 아트리움에 풍부한 문화 공간 제공
- 아트리움 상부의 친환경 태양광 전지판 설치 및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설치
- Stair as Cultural Stage ■



## 한국가스공사본사

Korea Gas Corporation

가 작 / 안길원  
(주) 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대구시 동구 신서동 134-4일원 (대구혁신도시 내)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64,892m<sup>2</sup>

건축면적 13,540.36m<sup>2</sup>

연면적 62,531.12m<sup>2</sup>

건폐율 20.87%(법정 : 60%이하)

용적률 82.90%(법정 : 400%이하)

구조 R.C+S.R.C

규모 지하 1층, 지상 25층

설계담당 조민건, 윤동환, 조은희, 이정철, 박성규,  
김경남, 이정환, 이기현, 김도형, 이기성

계획 대지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 대구혁신도시 내에 위치하며 한국가스공사 기업이념의 적극적 실천과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의 21세기형 신사옥 건립을 위하여 글로벌 종합에너지기업의 이미지를 반영한 참신한 "Landmark" 표현의 미래지향적 건축물 설계를 목표로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현상설계는 타워의 Landmark화, 가스공사의 친환경에너지 이미지구현, 명확한 보차분리, 직원과 방문객 동선분리, 명확한 조닝계획, 다양한 휴게공간조성 및 친환경 생태공원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첫 번째로 타워의 Landmark화와 가스공사의 친환경에너지 이미지구현은 타워 입면에 Energy Wall을 디자인 하여 사옥을 Landmark화한 동시에 가스공사의 친환경 에너지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명확한 보차분리, 직원과 방문객 동선분리는 저층부와 별관동을 두어 직원과 방문객들의 차량동선과 사람동선을 분리하였으며, 홍보관 또한 별관동으로 계획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별관동으로의 접근은 중심가로를 통해 다양한 시설로 연계함과 동시에 방문객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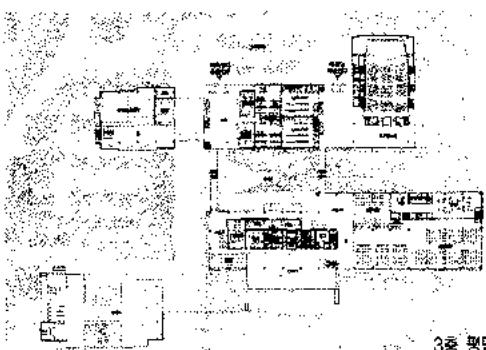
세 번째로 명확한 조닝계획은 별관동과 저층부에 직원편의시설 및 방문객 이용시설을 집중배치 하였고 직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결 브릿지를 계획하였다. 타워부는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본부별 조닝을 하였다.

그밖에 자연과 직원들의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휴게공간 계획으로 창의적이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초례산의 녹지를 자연스럽게 대지내로 유입하여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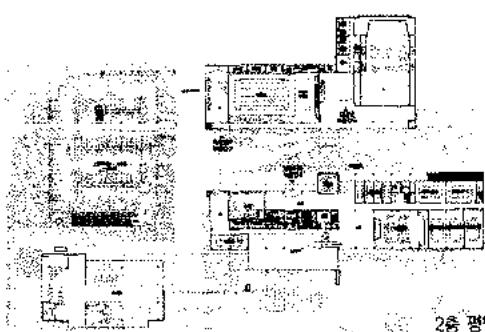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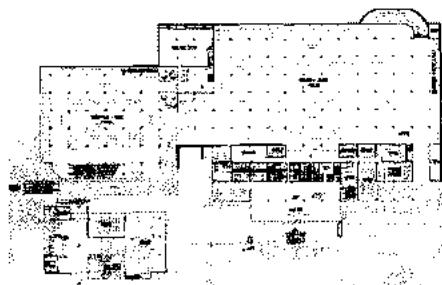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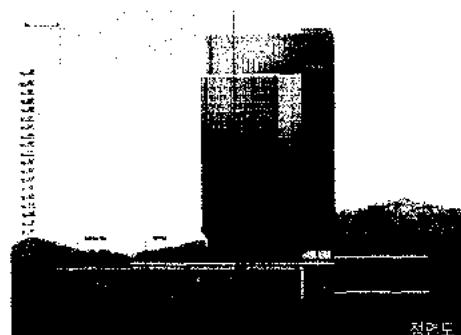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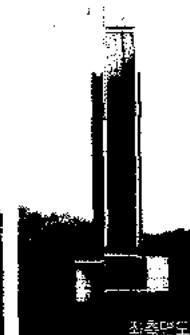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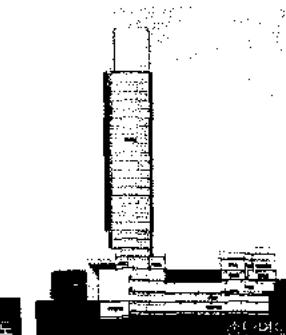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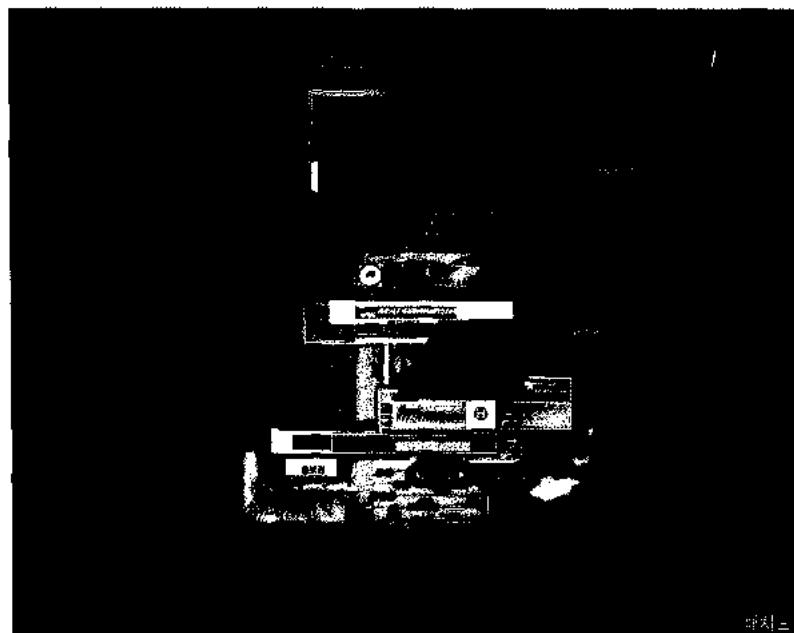
좌측면도



횡단면도



우측면도



내부



# 사림(士林)의 도시(上)

##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개최를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당시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신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격인 전부분은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농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sup>回</sup> 시조 속에 내자한 시주 이끼자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후 병소 소선시내 사류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난 경년이내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아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망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말년에 도산서당을 소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사람들을 살다간 연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나. 동시에 모두 경관이 배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은연의 실태러가 그렇게까지 모신 것인가 놀라도 양산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마한 사람이 숨어있었고,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운의 정여립 고반사건을 치조할 때 그의 흑

독한 두조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깨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객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난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규칙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성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것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반화시킨 서연과 생경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노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물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의 대변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이는 학적 실마리와 출발선<sup>9</sup>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기 기이는 미래의 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답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있는 부단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 목 차

1. 여로(奚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_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미풀\_Puzzle
3. 역사 코드 만들기 3. 단양列傳지도 읽기\_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o
4. 미풀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_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_Toegeae-lee whang and Danyang
6. 선비들의 거처契處 장소 산선수식로(參禪水石路)\_A meeting place for Chu-tz scholars, the Samsuransuk road
7. Walking space, 운계구곡로(雲溪九谷路)\_Walking space, the Ungeoguk road
8. 봉화대<sup>10</sup>의 고개 속중\_A Ridge of the way of Bonwha road, guklyung
9. 죽경 고개를 넘나든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_Who is him, the Chu-t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lyung
10. 풍기현과 사림\_The Chu-tz scholar in t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_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건축사사<sup>11</sup>로 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국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여년간 학부·교과부 과제로 한옥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70여 편의 원고와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해온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좋아하는 「한국개경의 비밀(2002, 두산미술관 출판)」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건축학부 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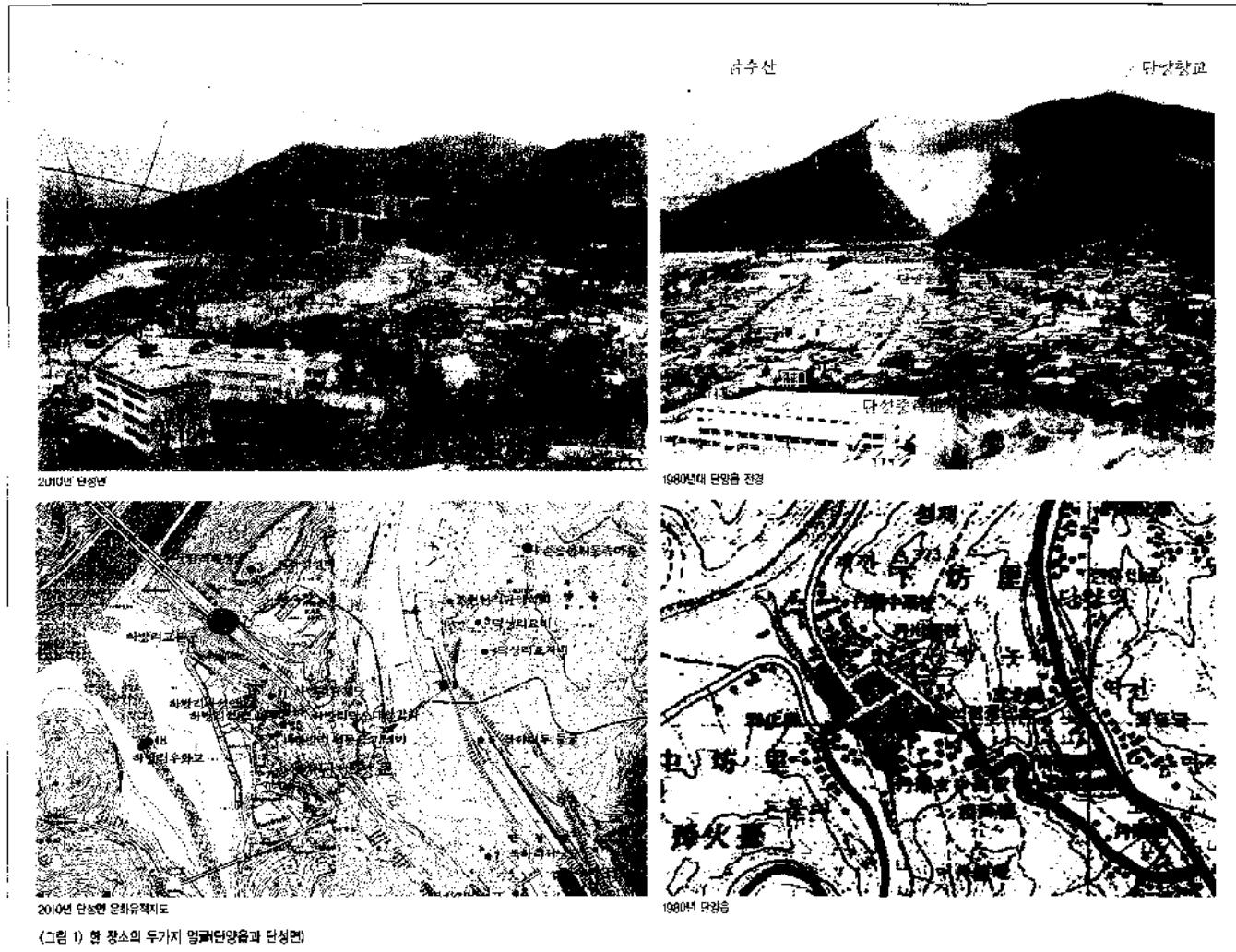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박물관 강연회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

### - Toegae-Lee whang and Danyang -

Mapping 그리고 우화교 찾기



산비탈에 나래선 집들, 꼬불꼬불 비탈진 골목길 이런 도시의 모습에서 제법 산골냄새가 물씬 풍겨 나왔다. 중천을 향해 떠오르는 해가 등골에 다가와 따스한 햇살을 봉화루 마루바닥을 문지른 텁인지 제법 발끝에서 온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외중방리 들녘을 들어선 송파 벙거진 노송들 사이로 불어오는 단양 들녘의 강바람 차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월 들어 이런 기온이 지속된다면 차리리 심리 길을 나서기보다 북청 동태가 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하필이면 식품이 불어 닦치는 엄동에 길을 나섰던 것일까.

1548년 정월, 퇴계 이황은 그의 나이 48세 되던 해, 단양현감에 제수되어 임지를 향해 길을 나섰다. 일년 전 47세 되던 해(1547년

7월) 그는 자신의 품계 정3품 당상에 걸 맞는 외관직인 대도호부 안동 부사로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이제 종6품 당하참관(參官) 자리인 단양현감으로 가라는 왕명을 받들어 낙생역(落生驛, 지금의 양재역)을 지나 단양을 향하고 있었다.

당시 도성에서 충청 경상으로 가는 주로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흥인문(興仁門)에서 한강진(漢江津)과 말죽거리를 거쳐 판교와 용인을 통하는 길과 흥인문에서 살곶이 다리를 건너 삼전도를 거쳐 판교와 용인으로 나가는 길이 있었다. 특히 송파를 거치는 길은 용인을 거치지 않고 광주와 이천을 거쳐 충주로 통할 수 있었고 이천에서 여주와 원주를 거쳐 강릉으로 갈 수 있어 인마의 통행이 말죽거리보다 밤낮으로 떠들썩했던 곳이다. 그러나 그가 낙생역에서 잠간 쉬면서 루에 올라 시를 쓴 것을 보면 흥인문에서 한

강진을 건너 말죽거리에서 판교 용인으로 나아가는 우로를 택했음이 분명했다. 말하자면 그는 36번 국도를 따라 충주에서 충주(忠州) 황강역(黃江驛)<sup>1)</sup>과 수산역(壽山驛)<sup>2)</sup>을 경유 옥순봉이 있는 단구협을 지나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솔거리에서 봉사자락을 잡고 원편으로 길을 돌아 우화교를 건너 단양읍에 당도할 요량으로 길을 나선 셈이다. 이런 퇴계 이황과의 이별을 못내 아쉬워했던 사람들은 독서당 친구 박충원(朴忠元), 민기(閔箕), 남응용(南應龍), 윤인서(尹仁恕) 등이었다. 이들은 그가 한양을 떠나기 달포 전 독서당에 모여 시회(詩會)를 열어 전별(餞別)해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퇴계 이황은 이별의 정리를 다음과 같은 시로 답하였다 것이다.

십재침아괴소찬 十載沈疴愧素餐  
홍온유득군부현 洪恩猶得郡符懸  
실년앓은몸이 국록받기 괴롭고  
임금은혜 크게 입어 고을 얻어간다오

청송백학수무분 靑松白鶴雖無分  
벽수단산신유록 碧水丹山信有緣  
청송의 저 백학하고는 연이 없으나  
단양의 맑은 물과 연분이 두터웠네

북궐연회분족야 北闕懲懷分燭夜  
동호이사상매천 東湖離思賞梅天  
왕은이 고마워서 옛 금연촉일 생각하고  
독서당 떠나면서 매화 필적 그린다오

무마조채파심력 摩摩凋療疲心力  
령각번응억고전 鈴閣鬱應憶故田  
지친 백성 돌보다가 심력이 피로하면  
동현에 홀로앉아 지난 일을 생각하리  
(李家源 역)

이 시를 보면 앞으로 겪을 객회가 저미는 듯 부임지에 대한 생각과 한양에서의 독서당 추억이 절절이 드러나 있다.

조선시대 독서당은 1426년(세종 8)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이 세종의 명을 받아 집현전 학사 가운데 학문이 빼어난 이들에게 사가독서(賜暇讀書)를 시킨 장소를 마련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3군데가 있었다. 하나는 장의사(藏義寺)이고 다른 하나는 남호당(南湖堂), 용호당(龍湖堂)으로 이른한 용산의 사찰이며 또 다른 하나는 두모포(豆毛浦, 옥수동)의 동호당(東湖堂)이었다.

장의사의 독서당은 폐사를 고쳐 만든 것으로 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 6인의 집현전 학사들에게 휴가를 주어 절에서 글을 읽게 하면서부터 세종말기 까지 20여년간 사용했으나 1456년 세조가 집현전을 혁파하고 사가독서제를 폐지하자 폐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남호당(南湖堂) 또는 용호당(龍湖堂)은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1476년 성종은 재위 7년, 채수(蔡壽) 등 6인에게 독서를 위한 휴가를 주자 사가독서제도가 되살아났으나 처음부터 책읽을 장소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제도는 1483년에 이르러서 비로서 용산의 빈 사찰을 하나 얻어 수리하여 장소를 마련하게 되자 성종이 친히 독서당(讀書堂)이라는 편액을 내려 독서당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발생하자 이곳은 다시 폐지되고 말았다. 그런 까닭에 두모포(豆毛浦, 옥수동)의 동호당(東湖堂)이란 중종이 즉위하면서 사가독서에 관한 절복 마련하여 시행하고 1517년 중종 재위 12년 두모포(豆毛浦, 옥수동)에 새롭게 독서당을 지은 것을 말했다.<sup>3)</sup>

제대로 격을 갖추어 원류가 된 것은 물론 두모포의 동호당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자리한 두모포란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던 한강이 광나루와 송파진(松坡津) 그리고 삼전도(三田渡)와 만나 뚝섬을 지나면서 탄천 줄기와 중랑천 줄기가 모여드는 합수머리를 마주 바라보는 곳을 말했다. 이곳에 두 개의 지천 모여드는지라 강폭은 워낙 넓었고 모래섬이 발달하여 경관이 뛰어났다. 그런 탓인지 조선전기 주름잡았던 권신 한명희의 압구정도 강 건너 있었다. 퇴계 이황도 45세 되던 해 압구정을 자주 이용했을 정도로 유명했던 이정자는 선비들이 많이 모여 들었으므로 조선전기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뚝섬과 두모포는 한강상류에서 오는 전곡과 목재 그리고 시탄이 집산되었고 물화가 쌓였으므로 상인들로 들끓었다. 탄천 건너 압구정 쪽 앞에 있던 송파역시 용산이나 서강과 달리 내륙에서 오는 물화가 합쳐져 큰 장시를 이루는 곳이기도 했다. 일찍이 두뭇개와 뚝섬 송파와 같은 동교 장시가 다른 곳보다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廣州) 지경에 있어 금난전(禁亂處)<sup>4)</sup> 권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워낙 절경이었고 교통의 요지였으므로 선비들과 상인들이 이곳을 찾아 모여들자 장소성의 유명세도 그들의 이름과 함께 한몫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성에서 30리에 상거한 이곳에 부를 쌓아준 한강은 다시 십여리 흘러 한강도(漢江渡)가 되고 서강이 되어 서해바다로 흐드러져 갔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퇴계 이황을 위한 전별 시회모임은 압구정일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헤어지는 마당에 굳이 독서당의 매화를 표현한 것을 보면 두모포의 독서당 동호당에서 그날의 시회가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청송과 단양비유만 보더라도 막상 입지 부임을 위해 떠

1) 제천시 한수면 역리 역암마을, 종주호 담수로 옛길 소멸

2)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역길바울

3) 선발된 학자는 집현전이나 홍문관 관원 못지않게 국왕의 총애를 받아, 국왕이 직접 술잔을 내려주며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하기도 하였다. 동호당이 있던 지금의 옥수동 일원을 얼마 전 까지도 독서당 마을이란 뜻으로 '한립말'이라 불렸고, 옥수동에서 옥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금도 '독서당고개', 독서당길이라 부른다.

4) 16세기 초엽 중종 때에도 서울은 시전 이외에 '동네 거리마다' 병방곡곡(榜坊曲曲)에 시장이 들어서 있었다. 그런데 이를 시장이 모두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서 당시 난전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 때에도 금란(禁亂)의 주 대상이 난전이었고, 금란리(禁亂里)들 외 난전에 대한 수탈과 횡포가 심각하였던 것을 보면, 이 미 조선전기에 난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시장이 발달하면서 시전의 종류와 그 수도 증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난전과 사상도고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사설시장의 발달을 가져 왔다. 따라서 서울의 상권을 둘러싼 시전상인과 사상도고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시전상인들은 17세기 초엽부터 금난전권이라는 특권을 부여받아 이익을 득점할 수 있었으나, 정부에 국력을 부담하고 갖가지 경제적 제약을 받았다. 반면 난전 및 사상도고는 금난전권에 대항하여 생산지 매입과 중간 독점 등을 통해 시전을 압박하고 자본을 축적해 나갔다.

나야 할 순간에도 그의 깊은 심기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알반했다. 그는 맑은 물이 있는 단양보다도 백학같은 청송에 더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삼년 전 그의 나이 45세 때인 1545년 11월 2일 정3품 당상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영접도감(迎接都監) 낭청(郎廳)으로 승진했을 때만해도 승진하지 보름도 채 지나기 전 그는 청송으로 외직을 나가길 청했었으나 거절당하고 실록청에 근무하게 되고 말았다. 이를 애석하게 여긴 조정에서 이듬해 고향근처인 안동부사 자리로 가라고 명을 내렸으나 그는 고사했던 것이다. 이런 예기치 못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그가 청송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어제 오늘 단순한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의 청송에 대한 생각은 유독 남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 아닌가. 설사 그는 연이 닿지 않아서 그곳에 부임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가 행차하고 있는 곳은 남한강변의 수변도시 단양이 아닌가. 결국 안동부사도 사양했던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두모포의 독서당과 암구정과 유사한 수변경관을 지닌 단양인 셈이다.



(그림 2) 외중방리에서 본 2008년 2월 단성면



(그림 3) 1994년도 단성면 우화교(좌), 1987년도 단성면 우화교(우)



(그림 4) 1910년 단양군 우화교

냉수 한 모금을 들이켜고 향교 봉화루 뜨락에 쏟아지는 햇빛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앉았던 나는 그제사 생각이 난 듯 누마루위에 엎어두었던 배낭에서 지도를 꺼내들었다.

이제 낙생역(지금의 양재역)에서 길을 나선 퇴계 이황의 신관사 또 부임행차가 지금의 36국 국도를 따라 중방리를 지나 하방리 객사 앞으로 진입하려 했을 때 건널 다리, 우화교는 어디 있었던 다리였을까. 이런 궁금증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콧날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별 다름없이 무심하기만 했으나 일인즉슨 남감하기 짹이 없게 되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단양의 모습을 보고 퇴계 이황이 “벽수단산 신유록(碧水丹山信有錄), 단양의 맑은 물과 연분이 두터웠네”라고 노래한 그의 심정을 단양의 옛 모습을 살펴보자니 두 장의 사진만 보아도 단양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심했으므로 도저히 글 쓸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답한 생각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의 젖속을 읽어내려는 심산으로 충주댐 건설로 침수된 중방리와 하방리 옛 단양 터를 살샅이 뒤져 옛날 모습을 복원해 내자니, 말이 그렇지 조선시대 고지도와 조선총독부지도 그리고 1956년 지도에 표기된 도시구조를 현실감 있게 1/5000지도에 정확히 옮겨 적는 일은 생각처럼 녹녹치 않았다. 그렇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단성면의 모습위에 조선시대 고지도를 올려놓고 눈대중으로 그의 옛일을 추적하자니 36번 국도를 따라 단양으로 진입하는 기점, 우화교의 위치마저 제대로 찾기 힘



(그림 5) 충주호 담수로 사리진 조선시대 단양읍 도시유적 분포지 1/5000 (2007년 지도)



(그림 6) 충주호 담수로 폐허가 된 옛 단양읍 상, 중, 하방리 일대

들었다. 간단하게 생각했던 이 일마저 어불성설이었다. 옛 모습을 찾자니 일이 난감했고 그냥 내치자니 이 일은 얼마 안가 살변이 날 것이 분명했다.

내손에 들려진 해묵은 지도래야 가장 오랜 것이 1872년 조선지방도, 1918년 대정7년 조선총독부 지형도와 기밀이 해제된 1956년 군사지도 세 장뿐이었고 나머지는 1994년, 1987년, 그리고 1972년과 1963년 지도가 고작이었다.

이런 정황에서 내가 굳이 1980년대 단양의 모습 복원을 우선으로 방자 세울 작심을 하게 된 것은 이 무렵 단양의 도시 모습이 너무도 확연하게 달라졌으므로 이시기 단양의 모습을 1/5000지도에 정확히 담아낼 수만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단양의 원형을 추적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를 단서로 옛 땅의 모습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퇴계 이황에 대한 뭔가 더 심층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의도가 절개 깔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것은 시간을 놓고 역사를 흥정하는 일종의 게임이었다. 말하자면 1980년대 단양 땅의 모습은 조선시대부터 시간의 층위가 누적된 도시구조이었으므로 이를 1/5000지도에 잘 옮겨 놓게만 된다면 옛단양의 모습 복원 가능성은 한결 높아질 수 있음을 뜻했다.

이런 상념에 빠져 나의 눈길이 가파른 언덕과 산등성이에 꽂혀 미끄러질 줄 모르고 있는 사이 문득 내 뇌리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이참에 1990년대 단양의 도시변화 내력도 함께 조사한다면 1994년, 1987년, 1980년 세장의 단양지도 사이사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각 시대의 도시변화모습과 내용을 추적해 넣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발단이 그것이었다. 우선 2007년과 1994년 단양의 도시구조차이를 살펴보면 충주호의 갈수기 옛 단양의 도시영역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1994년과 1987년 사이 충주호 담수기의 단양 모습을 보면 반대로 하방리와 중방리 일대가 물에 잠기고 상방리 일부와 우화교의 위치 변화가 드러났다.

하방리와 중방리 그리고 상방리의 변화는 수위 조절에 따른 변화이므로 지역의 침수여하만 드러날 뿐이지 위치변동은 없었다. 그러나 1994년, 1987년 지도의 단성교는 현대식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다리로 그 위치와 도로 진행방향이 크게 바뀌었으며 1980년 지도에 그려진 우화교의 위치 역시 1994년의 것 보다 남한강 합수머리 쪽으로 웨씬 내려가 있었다. 불과 30여년사이에 단양천을 건너는 교량의 위치는 세 번이나 바뀐 셈이다. 그래서 원래의 우화교 자리를 찾는 일은 1980년 지도와 일제 강점기 단양군 지형도를 비교하지 않으면 찾아질리 만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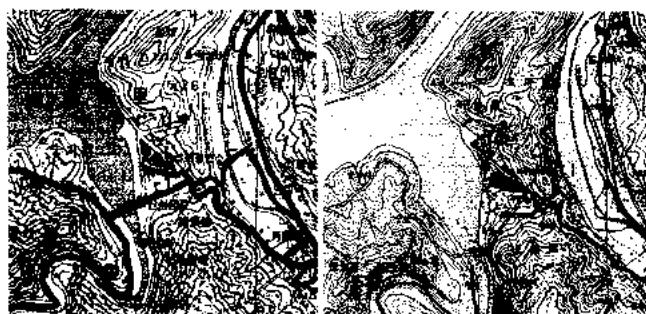
이렇게 우화교와 단성교의 위치가 단양의 도시구조와 도로패턴을 찾아내는 변수임을 알게 된 순간 그것을 찾아낼지도란 하늘아래 1980년 지도와 1918년 대정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지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왜 1918년 지도와 1987년 지도의 우화교는 종적을 감춰 버리고 현재위치에 새로운 단성교가 세워진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솟구쳤으나 두 장의 지도만으로 그 까닭이 밝혀질리 만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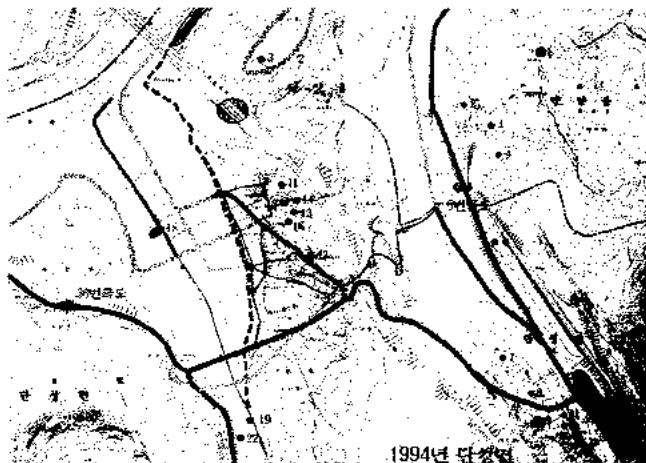
### 1980년대 단양, 수몰된 단성교 찾기

20년간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자료래야 2007년 지도와 1994년, 그리고 1987년 지도뿐이었다. 현데 다행스럽게도 세 장의 지도는 언뜻 보아도 우화교 위치와 인접 도로선형은 어느 때인가 나름의 이유로 손을 댄 흔적만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이것을 본 나는 문득 놀랐다. 세 지도 차이 속에 예기치 않았던 제방공사 흔적과 그에 따른 도로 선형변화 흔적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2007년 지도에 옮겨보니 사람살기 빠듯해 보이는 상방리 주거지 일대는 원래 제법 규모 있는 읍 소재지였는데 하방리와 중방리가 수몰되면서 도시구조 축소되자 줄지에 면소재지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단양천을 잇는 교량의 위치가 유독 크게 변한 것도 어딘지 모르게 흥수와 깊은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장마에 교량이 떠내려가서 생긴 변화일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수첩을 꺼내 필산으로 상판무게를 계산해 보았다. 만약 이 다리 상판이 폭 6m 두께 0.5m 길이 10m라고 가정한다면 상판 무게는  $6 \times 0.5 \times 10 \times 2.4$ 이므로 무려 72톤이나 되는 셈이다. 어림잡아 상판 두께를 0.3m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무게는 43.2톤이나 되었다. 엄청난 유속과 유량에 의한 부력이 아니면 도저히 이 무게를 끌어 올릴 수 없었다. 교량에 이 정도 피해를 줄 정도라면 단양신도시와 상관된 충주댐 건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고 집중호우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삼척동자라도 모를 턱이 없었다. 바로 그 정보가 1994년과 1987년 지도에 과녁에 꽂힌 화살처럼 그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75년 타당성 조사를 기점으로 계획되기 시작한 충주댐공사는 78년 착공하여 85년 10월 준공하였고



(그림 7) 1994년도 단양읍(좌), 1987년도 단양읍(우)



(그림 8) 1994년 단성면

이 기간 동안 단양군은 상진리와 도전리, 별곡리 일대에 신 단양을 건설하여 이주를 마쳤으므로 1987년 지도 기록 이전에 종료된 일 이었으므로 이 사건과는 별개였다. 그렇다면 1987년과 1994년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피해 기록과 흔적, 단서를 찾는 일에 우선 순위를 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화루 문을 열고 향교 밖으로 나오니 벌써 점심녘이 다 되었는지 조용하던 길가에 행인들이 하나 둘 삼삼오오 보이기 시작했다. 친절하게 향교 곳곳을 보여주시던 관리인 할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향교 앞길로 내려와 성재산 아랫녘에 있는 저자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국밥집에 들렸다. 한창 끓고 있는 토장국밥 새가 제법 하기를 둘우었다. 허름한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기 목로 한쪽을 차지하고 멀찌감치 앉자 주인은 넝쿨 달려와 목로를 훑쳤다. 메뉴라고 해보았자 국밥뿐이었다. 형색을 살피던 초로의 국밥집 여주인은 내가 외지인임을 금새 알아차리고 토장국 솔에다 술국이를 깊숙이 집어넣어 훠젓더니 건지를 건져 내어 덧거리로 등뼈 페 올리면서 밥을 꾹꾹 맡아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 목쟁이에서 국밥집을 내고 지켜 앉은 지가 대 여섯 해가 넘었다는 너스레와 함께 그녀가 나에게 가져다준 것은 뚝배기 가녁으로 국물이 철철 넘치도록 페 담은 국밥이었다. 약간 이른 점심이라 마수거리인 듯 했다. 하겁지겁 주렸던 순대를 채우자 몸이 풀리는 듯 했다. 장터에서 오래 냉군 처지라 이목이 넓어 주변 면사무소를 비롯한 주변 관공서 사람들이 제법 단골로 드나들며 식사하는 곳인 듯 때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 둘 꼬이기 시작했다. 더 늦기 전에 상방리와 단성교 일대를 돌아보아야 했으므로 일정에 쫓긴 나는 그녀의 하직인사를 받는 등 마는 등 장거리를 벋어났다. 옛날이었으면 장려 목이었을 이곳을 잭걸음으로 빠져 나와 향교가 있었던 곳으로 발걸음을 되돌려 옮겨놓자 중천에 떠오른 해가 등골에 와닿아서 그런지 등줄기가 제법 따스해졌다. 그동안 시간을 내어 이 일대를 부분 부분 짧은 구간을 수차례 내가 조사해온 예비 답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름대로 여러 길을 수차례 반복해서 걷는 동안 과거와 현재가 어지럽게 난립되어 층위지어 있는 도시 형태를 보고 답답해 진 가슴에 가득 숨을 들이키며 하늘을 쳐다본 적도 적지 않았다. 과연 우리는 자자체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과 모든 사람이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공동체의 삶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결국 이 생각에 떠밀리어 예까지 오게 되었으므로 나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옛 단양읍의 모습과 단성교와 우화교에 관한 정보를 직접 걸어 확인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길을 다잡았다.

단성교로 가는 길은 구태여 길을 물을 것도 없이 향교에서 놋재로 되돌아 오르다가 그 오르막에서 원편 길을 따라 내려가면 되는 지라, 걷자하니 천 삼백여보 정도 고갯길이다.

교량 어귀에 들어서자 단양천 일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눈 아래 단양읍을 지나 오른편으로 성재산과 원편으로 봉산 사이를 흐르는 단양천 하구 물길이 멀고 멀게 펼쳐져 있었다. 참으로 조용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봉산을 원쪽으로 품은 단양천 하구의 한 겨울 풍광은 반짝이는 은빛 햇살로 윤기를 뿜기고 있는 남한강물로 어느 때 없는 풍만한 자태로 넘실대고 있었다. 이것은 사위어가는 계



(그림 9) 태평산과 단성교

절이 그려내는 뜻 모르게 현란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 현란한 빛 덩어리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싱싱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고 선연한 은빛이 반사되어 일일대가 모두 그 빛에 적어 드는 것만 같았다. 만약 저것이 강물에 반사되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의 지붕으로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사 이런 기대가 부질없는 짓이라 해도 저 강줄기만이라도 저 빛처럼 은빛 백사장을 그대로 간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문자 그대로 백사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이곳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원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은빛 햇살로 영통했던 그 강줄기 모래 둔 턱은 뺨밭으로 척박해졌고 메말라 있었다. 이 강줄기를 따라 잡목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뿐 그것도 떼를 이루지도 못했다.

숲이 없다면 갈대라도 많았으면 모른다. 갈대마저 없는 이 강변은 황량한 뺨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모래밭은 사라지고 뺨로만 이어지는 이 강변을 나는 걸어서 단성교와 우화교 교각 잔해를 찾았다닐 것이다. 그러나 이 페허 속에서도 한 가지 변함없이 남아 있는 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강으로 흘러내리는 단양천 물위를 수



(그림 10) 단양천



(그림 11) 해방리 일대

도 없이 튕겨 오르는 싱그러운 햇살의 반짝거림과 윤기였고 어느 때 없이 소박함을 자랑하는 단양천 하구의 잔잔함이었다. 그 온빛 영롱한 빛의 점열만이 살아남아서 꿈틀거리는 심심한 생명감으로 예나 변함없이 사라진 옛 단양의 모습을 되살리기라도 하듯 반갑게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새로 놓은 단성교에서 옛 단양과 선암리 들어가는 골짜기 일대가 한눈으로 바라 보였다. 눈 아래 흐르고 있는 단양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단양읍을 감싸고도는 성재산줄기 강 건너 산등선이가 멀고멀게 펼쳐져 있었다.

참으로 단양의 풍광은 장관이었다. 단양천을 건너려면 길을 되돌아 단성교를 건너야 한다. 다리 중간에선 나는 강 하구가 그려내는 신비스럽고도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것이 햇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대로 풍요로운 삶의 도시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니 그따위 망상은 부질없는 것이라 치더라도 저 강물만이라도 저 빛처럼 맑고 영롱한 물로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문자 그대로 남강물이 온통 은빛 물결로 가득했더라면 날로 악화되는 환경문제로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늘어날 길 없는 자연경관에 매달려 숨 쉴 틈을 찾아 허덕이지 않고 이곳에서 해결책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흐르는 남한강은 바다 같은 호수로 변해버렸고 하얀 모래밭으로 그득했던 강변길은 거무칙칙한 빨로 이어져갔다. 이곳으로 흘러들어오는 개울물을 강으로 벙해버렸고 흥수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즐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이제 남한강 주변은 하얀 모래가 아니라 빨로 뒤덮여 있었고 강변에 늘어선 기암 석벽에 덧칠해진 누런색 활토색 떠는 흥수 때 만수위를 기록이라도 한 듯 줄기차게 하류에서 상류로 줄을 긋고 있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얼고 녹기를 거듭한 결과 웅장했던 석벽은 하나둘 잘게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겉는 동안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모습들은 바로 폐허가 되면서 무너져 가는 옛 단양의 모습과 단양천과 남한강이 웅장한 주변 산들과 만나 빛어낸 신비로운 정경 그리고 그것을 찾아 애써 이 땅의 수령으로 부임했던 퇴계 이황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온 옛사람들에 대한 궁금함이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우울함도 수재와 함께 그들의 흔적 모두가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더 깊어만 갔다.

단양의 수재는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자연을 바꾸려는 인간의 의지와 자신을 유지하려는 자연의 충들이었다.

그래, 하늘은 유독 낮았다.

멱절산이 중턱아래 까지 묻히고 선수머리까지의 포구가 반 이상 가릴 정도로 하늘은 무겁게 눌러 내려앉기 시작했다. 금방 큰비라도 쏟아낼 것 같이 현상궂어 보였다. 94년도 6월30일, 이렇게 시작한 장대살 같은 빗줄기는 단 이를 만에 단성면과 대강면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마을마다 흙탕물이 휩쓸고 있었다. 이 흥수로 단성면 북하리 일대 68세대 22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이 집 중호우로 선암계곡과 사인암 계곡이 전몰되었으며 상, 중, 하선암 등 단양팔경 대부분이 복구불능의 상태로 피해를 입었다. 그것은 철마다 계절을 따라 쓸어내는 간단한 빗줄기가 아니었다. 1993년,



〈그림 12〉 2006년 상진리 수해



〈그림 13〉 2006년 사인암리 수해



〈그림 14〉 2006년 하행리 수해



〈그림 15〉 물에 잠기 도당침봉

1992년, 1991년 해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매년 예고 없이 쏟아내리는 성난 자연의 봄부림 같은 이 빗줄기가 단양을 변화시킨 수재, 바로 자연재해였다.

그러나 극성스러운 장마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1990년 여름이었다. 유래 없이 한 해 여름 세 번 씩이나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그해, 첫 피해는 7월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닷새 동안 내린 강우량 160mm로 매포·상수도 집하장 둑이 무너지자 그 밑에 있던 일가족 5명이 매몰되는 참사에서 비롯되었다. 이때만해도 피해는 전체적으로 경미한 편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8월 20일부터 다음날 까지 이를 동안 99.5mm의 폭우가 또 내렸다. 두 번 씩이나 단양군을 작살내려는 듯 비는 쏟아졌으나 피해는 별로 없었다. 이것으로 이제 험악한 여름장마가 끝나는가 싶었는데 9월 초순부터 늦장마가 덮쳐들었다. 9일부터 삼일동안 쏟아 부은 비는 총 강우량은 201mm정도로 약간 집중 호우성 성격이 있었으나 이정도의 집중호우는 예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으므로 강물이 많이 불고 유수량이 늘어났어도 워낙 이런 사태에 익숙해 져 있었던 단양사람들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쏟아진 물을 관리하는 충주댐이 건설되기 전만 해도 오대천과 송천이 합류하여 정선에 이른 물이 영월로 흘러들어 주천강과 평창강과 가세하여 단양에 이를 즈음이면 드넓은 강폭에 한숨을 돌리며 자연스럽게 서서히 충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물은 줄지 않고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유는 충주댐이 갑문을 닫아걸고 물을 막아내기 시작하자 고이기 시작한 물이 제천천과 더하여 충주댐 갑문을 점점 더 압박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황한 충주댐 측은 하류의 피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주댐 방류를 자제하려고 갑문을 더욱 굳게 닫아 결자 정선 등의 상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라도 이 수문을 열게 되면 수도 서울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했다. 눈앞에 닥친 고통을 모면하자면 정선, 평창, 영월에서 불어난 물을 일단 막아야 했다. 그러나 물은 가두면 기울 수록 최북단 저수막 도시, 단양에 모여들어 도시가 물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점차 그 물이 단양에 쌓이게 되면서 수위가 높아지자 거꾸로 읍내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다. 이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이 단성면과 매포면 중심지 일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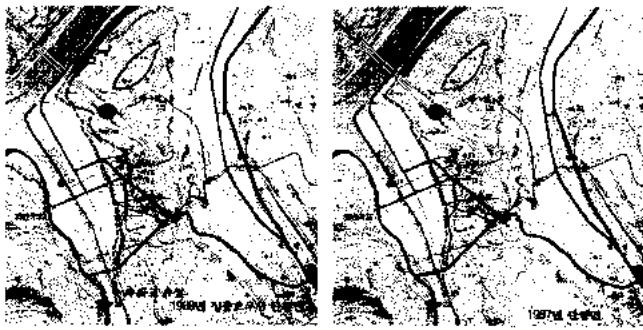
충주댐이 한강 하류로의 흥수 유입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문을 막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예기치 않은 남한강의 수계의 변화가 원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을 기화로 하여 매포읍 매포리 일원에 있던 시가지가 평동지역으로 집단 이주하게 되었고 단양은 아래저래 물 때문에 옮고, 물 때문에 피해 다니는 고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막으면 막을수록 거세게 늘어나는 상류의 물, 물에 잠기면 잠길수록 밖으로 내몰리는 상류 사람들, 이것은 집중호우가 우리에게 일려준 자신의 법칙이었다. 그래서 재해란 언 듯 보기에도 무자비 한 것만 같아도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었으므로 무작정 파괴력만 있는 것으로 몰아칠 일만은 아니였다. 4대강 유역 개발로 충주댐을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으나 상류의 중소도시들은 수위조절로 놀 피해 대상이 되고 말았다.



〈그림 16〉 물에 잠긴 다리

그런데 해를 더 거슬러 올라가 1988년 수해를 조사해보면 아예 최악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7월9일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저 예년과 같은 장마려니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비는 성격 자체가 남 다른 구석이 있었다. 한 열흘 자자듯 듯했던 빗줄기가 7월 20일 새벽 4시, 갑자기 천둥번개를 동반하면서 폭우로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성난 하늘이 단양군에 물동이로 물을 쏟아붓듯 한 시간 우량 300mm를 기록하면서 4시간동안 폐부은 양이 자그만치 연평균 강우량의 48%에 해당하는 1,114mm였다. 가공할만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였다. 결과 상류에 위치한 매포읍을 중심으로 한 적성면 북부일대와 어상천면 일대, 영춘면 지역이 거대한 불바다를 이루어 교통은 물론이고 모든 통신망이 끊겨 고립무원에 빠지고 말았다. 더구나 이곳은 강폭이 좁고 하성이 높은 자연 유수 지역이어서 농경지의 피해가 극심했다. 당시 수해로 실종되거나 사망된 학생자수가 8명이었고 집을 잃은 이재민 숫자가는 자그마치 6,530명에 달할 정도였으며 건물피해 1,550동, 농경지 유실 657ha, 연장 22km의 도로가 완전히 유실되었고, 6개 교량이 훈적도 없이 떠내려갔다. 1988년 지도에 그려진 단성교가 떠내려간 모습도 바로 이때였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 귀에 들린 소문은 신 단양으로 이주, 적성면 하진리 집단이주, 매포읍 시가지 이주, '문화마을 조성 이런 말들이었다. 흥수가 쏟아질 때 마다 당국은 이런 말들로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속내를 살펴보면 댐을 쌓은을 쓸어지는 물을 잡지 못했고 신도시를 건설했으나 물에 잠기기는 예전했으므로 흥수 뒤치다꺼리에 바쁜 재해대책은 "가을 중" 쏘다니듯 바빠기만



〈그림 17〉 1988년 단성면 침수지역의 사라진 단성교

〈그림 18〉 1987년 단성면과 단성교

했고 아무런 실속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단양에 지어진 번듯한 주택들은 영락없는 수해의 결과로 세워진 문화 주택이었고 새로 포장된 길과 하천제방은 여지없이 수해복구 사업의 결과였다. 새롭다는 것은 복구를 의미했다. 하지만 그 복구의一面에는 항상 낯설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뒤따라 등장하는 피해 보상은 뚱 찬 개는 달 아니고 밭주인만 삿대질 하는 꼴이 되어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렇다면 충주댐 쌓고 신 단양을 건설하기 이전의 단양은 어떠했을까.

충주댐수몰이전 수해를 찾아 8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도 단양지역의 물난리는 매한가지였으므로 갑자기 떠오른 이 생각으로 내 얼굴에 어이없는 웃음을 흘렸다. 물론 신단양이 만들어진 것은 충주댐 건설의 결과였으므로 원인은 1970년 대부터 1981년까지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계속된 흥수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수재가 바로 1백50년만의 대홍수로 기록되고 있는 1972년 수해였다. 8월 19일 오후 1시, 나이 좀 들은 단양사람이라면 아마 이때를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이후 단양은 10,366명에 달하는 이재민, 95명의 사상자와 실종자, 유실된 도로와 하천, 당시의 참상을 기억하기 조차 두려운 물난리로 시달렸다. 심지어 단양군청 소재지가 있던 단양읍(현재 단성면) 시가지는 물속에 파묻혀 아예 흔적도 없어졌고 매포읍내 역시 물위로 집체가 둉뚱 떠다닐 정도였다. 6.25 사변 전쟁 중에도 소실되지 않았던 군청의 보존 자료가 대피할 겨를도 없이 떠내려갔다. 뿐만 아니라 증도리앞 시루섬 사람들은 강물이 불어 사면이 강물로 둘러싸여진 고도로 변하자 이곳에 와 있던 잡업연수생 30명을 포함한 주민 237명은 높이 6m 지름 5m의 시멘트로 된 물탱크 위에서 올라 꼬박 밤을 새워 이를 날아침 가까스로 구조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6개월 된 젖먹이 어린애는 암사 당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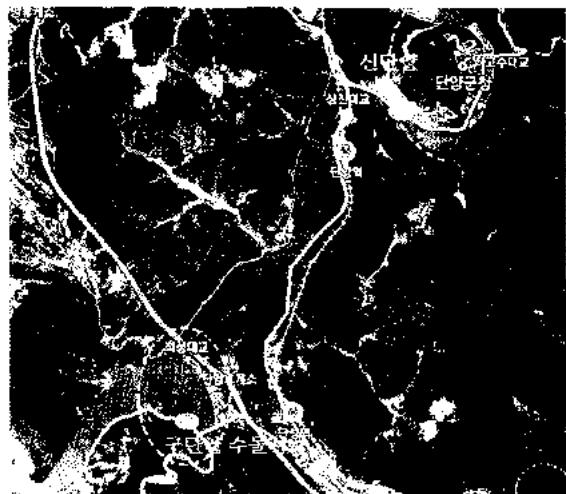
이렇듯 단양지역의 물난리가 지속되자 정부는 국토이용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핵심사업은 흥수조절을 위한 충주 댐형식 댐 건설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1975년부터 타당성 검사를 시작한지 2년 만인 1977년 3월에 결정을 보아 1979년 11월20일 수몰지구에 대한 하천 예정지를 고시하기에 이를 정도로 빨리 추진되었다. 1980년 1월20일 고시된 충주댐건설 사업계획을 보면, 댐형식은 콘크리트 중력식으로 하고 발전용량 40만kw, 유역면적 6,6648km<sup>2</sup> 총사업비 5,474억 원 규모로 1985년 10월17일을 준공예정일로 하고 있다. 수몰지의 내역<sup>5)</sup>을 살펴보면 단양군내 2개읍 3개면 26개리 167만5천평이

하천편입 용지로 결정 되었다. 충주 다목적댐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건설부 고시 제 426호로 수몰지구 하천예정지가 고시되자 수몰지에 대한 이주민 대책과 보상 물건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동시에 이때를 기해 수몰 예정지에 대한 이주민 대책과 보상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자 이주민 대상지로서 신도시 건설지에 대한 세 가지 공론이 돌았다.

첫째 안은 단양시까지 일부를 존속시키자는 안이었다. 수몰 잔여지는 그대로 두고 하구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북하리, 현천리 일대를 재개발 시가지화 하자는 안이었다. 수몰민들의 정서와 이주 경비가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기도 했으나 지역이 너무 협소(가용 면적 36만평)하고 저지대여서 우천 시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불리함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둘째 안은 매포읍 도전지구를 신시가지로 새로이 조성하여 이주 하자는 방안이었다. 표고 150~200m 구간 83만평을 택지를 정리하여 군소재지 전체를 이전하자는 안이었는데 교통 시설물을 다수 축조하여야 한다는 단점 말고는 이용 가능 면적도 가장 뛰어난 아니라 고수, 천동동굴, 도담삼봉 같은 관광지에 인접하고 매포지역의 공장지대와 연계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주민들에게 설문조사 결과 83%라는 높은 선호도가 있어서 결국 이 안이 채택 되었다. 마지막 안이 적성면 하리 지구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 철도는 물론 국도, 지방도 등의 주요 도로망이 전무하여 교통이 불편했으므로 이주민들의 반대(95%반대 설문)가 심하여 채택 되지 못했다.

그 결과 1982년 3월 2일 관계공무원, 설계 기술반, 수몰대책위원회 모여 심의에 들어간 “신단양 도시계획안”은 여러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쳐 도전지구 안이 최종 채택되었고 곧바로 확정, 승인 되었다. 당시 승인된 도시계획안에 따르면 그 위치를 단양군 매포읍 도전, 상진, 별곡리 일원으로 하여 3차례 걸쳐 32만 5천평을 택지와 도로 용지로 조성돼 단지조성은 충북도에서 택지 분양은 단양군에서 하기로 했다. 이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정부는 수몰보상지내 기본실태를 파악을 위해 해당 거주지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인사를 위원으로 한 기본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양군 수몰민 이주사업조합<sup>5)</sup>을 결성했다. 이보다 먼저 조직된 주민자치회 견인 “수몰지구협의회”는 수몰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의사를 결집시키자는 것이어서 단양군에서 구성한 “수몰대책실무반”과는 사뭇 성격이 달랐다. 이를테면 이 협의회에 속한 위원들이 전부 해당 마을 이장들 이었으며 회장 또는 위원들이 호선하였던 반면 “수몰대책실무반”은 반장을 부군수로 하고 반원을 소속 계장들로 한 실무 집행기구 였던 것이다. 아무튼 정부와 기본 실태조사 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보상 물건은 2,314세대의 주민과 3,870동의 건물, 167만평의 토지 등으로 이는 자그마치 394억 4,280만원의



(그림 19) 충주댐 만수위 신단양과 구단양

보상비가 소요되는 물량이었다. 그러나 신단양지구내 보상물건이 추가로 늘어나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단계별로 지급된 수몰 보상금은 당초 조사보다 60억 7,200만원이 늘어난 455억 원이었다. 보상과 수해복구로 해마다 바쁜 것이 단양의 일상이 된 것을 담보로 얻은 값진 교훈은 홍수를 조절은 상류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었다.

#### 벽수단산지지(壁水丹山之地) 단양과 정감록의 십승지지(十勝之地)

이런 경황 속에서도 구태여 단양이 정감록에 기록된 십승지지임 확인하려는 것은 먼저 퇴계 이황이 벽수단산신유록(碧水丹山信有錄), 단양은 맑은 물과 연분이 두터운 곳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탓인지 단양은 처음 들어올 때에는 사방이 산으로 꽉꽉 들어 막혀 귀양 온 것 같아 물고, 떠날 때에는 순박하고 인심 좋은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운다는 말이 전해를 정도로 소백산과 금수산의 정기를 받아 인심이 좋고 물이 좋았다. 뿐만 아니라 단양은 정감록에 나오는 십승지지(十勝之地)에 들어가는 명당터이기도 했다. 이 속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의 조상 이심(李沈)과 조선 멸망 후 일어설 정씨(鄭氏)의 조상 정감(鄭鑑)이 금강산에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엮어져 있는데, 조선 이후의 흥망대세(興亡大勢)를 이씨의 한양(漢陽) 도읍 다음 정씨의 계룡산(鶴龍山) 도읍시대가 있고, 다음으로 조씨(趙氏)의 가야산(伽倻山) 도읍시대, 또 그 다음은 범씨(范氏)의 완산(完山)과 왕씨(王氏)의 재차 송악(松嶽; 개성) 도읍 등을 논하고, 그 중간에 언제 무슨 재난과 화변(禍變)이 있어 세태와 민심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차례로 예언하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이심은 풍기, 예천, 안동, 화곡, 개령, 용궁, 가야, 단양, 영춘, 공주, 마곡, 진천, 목천, 봉화, 운봉, 태백 열 군데를 꼽았고 정감은 풍기, 봉화, 보은 속리산, 남원, 예천, 공주, 영월, 무주, 부안, 함천을 말했다. 그리고 「동록잡기」필사본<sup>7)</sup>

5) 단양을 10개리(장화, 중방, 외중방, 하방, 상방, 북하, 덕상, 현천, 증도, 심곡리) 매포읍 8개리(상진, 도전, 별곡, 도담, 하과, 우덕, 어의곡) 대강면 3개리(대강면의 노동, 고수 등 2개리) 가곡면의(덕천, 기대, 사평리) 적성면 3개리(성곡, 하진, 애곡) 합계 총 26개리.

6) 1982년 5월 24일 발기하여 같은 해 6월 7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이조합의 목적은 벽지의 조성과 분양 및 이주에 따른 각종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지원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꾀하는데 있었다. 이주조합이 구축되어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일치단결하여 이주에 힘찬 결과 1985년 7월 10일 모든 이주관련 사업이 완료되었다. 구조물 1,688동, 부속건물 1,281동이 모두 철거 되었다. 1985년 7월 10일 수몰이주 완료인 현재 이주민들의 정착 상황을 보면 총 이주세대는 2,684세대로서 이주가 1,800세대, 적성면 하진 취락지로 이주가 40세대 였고 그 나머지 844세대는 인근 고장이나 친척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으나, 그중 관내가 아닌 타시군 정착이 360세대, 타 시도로 멀리 떠나간 사람들도 71세대나 되었다.

7) 영춘에서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던 정감록 파가 소장하고 있었던 책



(그림 20) 사라진 옛 단양터



(그림 21) 의문의 도시\_수원원 옛 단양터

를 보면 십승지로 풍기, 안동, 개성, 가야, 영춘, 공주, 진천, 봉화, 동천, 태백으로 단양의 영춘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책이 무려 40~50종류에 이르고 있으나 정확한 저자의 이름과 원본이 발견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구색을 갖춘 책을 들라면 ① 규장각본《정감록》: 필사본, 1책, ② 김약술(金若述) 소장본《정감록》: 필사본, 1책, ③ 김용주(金用柱) 발행《정감록》: 활자본, 국판, 163면, 1922년 발행, ④ 《비난정감록진본(批難鄭鑑錄真本)》: 활자본, 4×6판, 100면, ⑤ 자유토론사 장판(自由討論社藏版) 호소이 하지메(細井鑑) 편저《정감록》: 4×6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감록은 근거가 없는 책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은연중 이것의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참서(讖書) 가운데 하나인 정감록은 그동안 전해오는 여러 비기(秘記)를 모아 미래를 예언한 것으로, 참위설(讖緯說)·풍수지리설·도교(道教) 사상 등이 혼합되어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설에 의하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참위설은 근거를 미래예언으로 알려진 하도낙서(河圖洛書)에 두고 있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기초하여 일식·월식·지진 등의 천지 이변(天地異變)이나 은어(隱語)를 통하여 인간사회의 길흉화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참위설의 참은 중국 한대 성행했던 하늘에서 내려졌다고 하는 예언을 말했고, 위는 경서(經書)에 대비되는 위서(緯書)를 뜻했다. 그런 까닭에 유가의 고전인 시(詩), 서(書), 예(禮), 악(樂), 역(易) 등에는 당시의 사실을 전하는 사전자료(史傳資料)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위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을 옛사람들은 부명(符命) 또는 부참(符讖)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서의 문장이 너무 간략하고 함축적이고 대강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설명은 없으므로 경서에 비장·함축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위서이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천문역수(天文曆數) 등의 지식으로 경서를 해석하여 공자(孔子)의 참사상이 거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참과 위는 모두 신비적인 요소를 가지

고 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후한(後漢)시대 이를 일괄하여 '참위'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그후 전한(前漢) 후기에 이르러 왕조의 지지를 받은 왕망(王莽)과 후한의 광무제(光武帝)가 도참의 부명을 이용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증홍의 근거로 삼자 참위설은 중국대륙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진(晉)나라 이후 참위가 민심을 현혹한다고 해서 이를 금지하였고, 특히 수나라 때에는 위서를 불태우는 등 정식으로 이를 금하여 그 맥이 끊어졌다. 이런 참위설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 유포된 것은 신라통일 이후 당나라에 다녀온 많은 불교 유학생을 통해서였고 신라 말에는 왕족과 학자 사이에 공공연히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도참사상은 바로 참위설에 의하여 왕조출현이 예견된 도선비기(道鮮秘記)이었다. 이후 고려 말 신돈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나 실패했고,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조선중기 풍수와 도참을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정감록이었다.

믿자니 근거가 회박했고 부정하자니 역사의 맥락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정감록에서 단양은 소백산과 태백산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다섯 군데 십승지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내내 머리에서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과연 이 말은 맞는 것인가, 지금까지 충주호의 일과 1994년 1987년 1980년 지도를 기억하고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공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뭔가 정감록은 환경오염이 극심해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중호우를 예견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삶보다 새로운 왕조탄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탓일까… 아무튼 단양과 영춘에 관한 잘못되었음이 분명했다. 이제 남은 일은 퇴계 이황이 벽수단산신유록(碧水丹山信有錄), 단양은 맑은 물과 연분이 두터운 곳이라고 한 단양읍의 실체를 찾는 일이다. 1988년 대지도를 보면 침수지역에 숨어있는 그 땅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중방리와 하방리의 모습은 도시구조는 어떠했을까.

첫 장에 실린 1980년 단양지도 그 속에 단양천 하구 언저리 어느 구석엔가 퇴계 이황, 그가 지나쳤을 우학교 교각 흔적이 있음이 암시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

# 우리 건축문화재 다시보기

## Re-thinking about Korean Building Treasures

건축은 시대적 문화의 총화이기에 어느 문명국이건 역사문화의 계승이란 차원에서 건축문화재를 어떻게 보존·계승하고 현대에 접목 발전시키는가는 바로 국가적인 자존심이며 다른 국가, 다른 민족과 차별화하여 존재의미(정체성)를 찾는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오천년의 민족문화를 자긍심으로 삼아왔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가깝게는 대한제국에 그 뿌리가 있음을 전명해 왔다. 이런 거창한 대의명분에서 뿐만 아니라 불타는 남대문(송례문)을 촉은 통곡하며, 죽은 아린 가슴으로 바라보던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건축문화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인식케 한 실증이 아니겠는가.

지난 2009년 한 해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활발했던 한 해였고, 아직도 정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기에, 새해를 맞아 우리의 건축문화재 중 많은 생각을 하게한 내상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 본인의 개인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건축문화재는 고려 이후의 것이 겨우 남아있고, 그러나 소위 개화기로 불리는 조선말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역사의 질곡(桎梏)기에 우리 전통건축은 질식되고 말아, 우리보다 다소 먼저 서양문화를 수용한 일본인들에 의해 이 땅에도 일본식 번안(翻秦)형태의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축이 난부하였으며, 우리의 건축은 노시의 주택에 그것도 상업적 이유로 오랜 건축적 품위를 팽개친 모습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6.25동란은 전국을 피



(그림 1) 불타기 전의 남대문과 화재로 전스된 후의 남대문 모습 (필자촬영)

폐하게 하였고, 실용적인 이유로 소위 신식 문화주택 등 국적불명의 주거문화가 판치게 되었고, 고도(古都) 서울이 콘크리트 덩어리인 아파트의 난립으로 숨막히게 되고 말았다.

그나마 최근에는 숨차게 모방해온 서양건축의 밀률은 건축사들의 노력으로 다소 정리 되는가 싶더니, 이제는 서울의 한 복판에도 온통 유리와 철로 뒤덮인 물개성의 대형건물들이 판치는 곳이 되어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을 등황하게 만들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역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북초한옥마을을 보존하게 하였고, 가구 하나·변변히 남지 않은 궁궐들도 일본인들에 의해 강제 철거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요즈음 껌대기 나미 농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인의 끈기를 새삼 기대하게 한다.

부니 이 땅의 건축사들이 우리 역사문화를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의 건축에서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를 손 모아 기다려 본다.



(그림 2) 100년전 서울과 현자의 서울 모습 (사진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송례문복원자료집, 서울학연구소)

### 목 차

1. 우리의 건축문화재, 어떻게 보아야 하나  
Think about how we see our Building Treasures
2. 원구단과 조선호텔  
The Won-Gu-Dan and the Cho-sun Hotel
3. 한옥 문화재\_한규설 대감댁, 독락당 그리고 한옥가을  
Conserva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compared with some samples

필자 : 흥대현,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Hong, Dae-hyung

흥대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부했고, 안일도시건축, 청와대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72년부터 전북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79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80년대 초에 미국 M.I.T에 1년간 Visiting Scholar로 체류하여 미국의 건축교육현장을 두루 경험하였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참여이사, 외에 한국건축역사학회, 국토도시계획학회, 건축교육사학회,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건축문화재 1 서울면 도서관과 기운당」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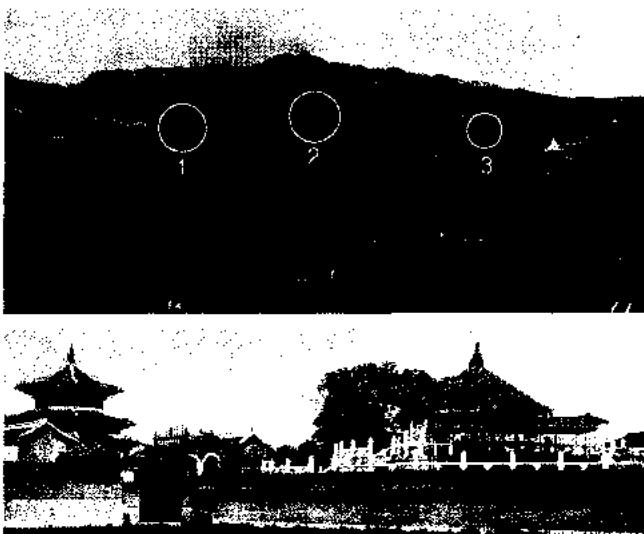


## 2. 원구단과 조선호텔

### - The Won-Gu-Dan and the Cho-Sun Hotel -

#### 대한제국과 원구단 그리고 조선호텔

원구단은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하늘에 비는 제천의례(祭天儀禮)를 거행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선포에 따라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그림 1) 원구단 입재상/1.종화전, 2.경복궁, 3.원구단)와 전경(하)

우리나라의 제천의례는 오래전 부족국가시대부터 삼국시대에도 전통에 따라 행해졌다 하며, 유교적인 예(禮)에 따라 제도화 한



(그림 2) 남단의 위치(자료출처: 동여도)

것은 고려 때부터였다 한다. 그러나 조선 개국 초에 조선 조정 스스로 중국의 제후국임을 천명하였으나 이에 따라 “원구는 천자(天子)의 제천예(祭天禮)이니…” 제후국(諸侯國)의 예로서는 어긋난다 하여 하여 혁파(革罷)하였다 했으니 스스로 중국의 속국임을 인정 한 꽂이 되었다. 물론 조선 초기 세조시대에 원구단에 대한 예를 행하기도 하였고, 정조대에는 원구단을 남단이라 고치고 천신(天神)에 제사하는 대신에 풍(風), 운(雲), 뢰(雷), 우신(雨神)에 대해서만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격하하여 존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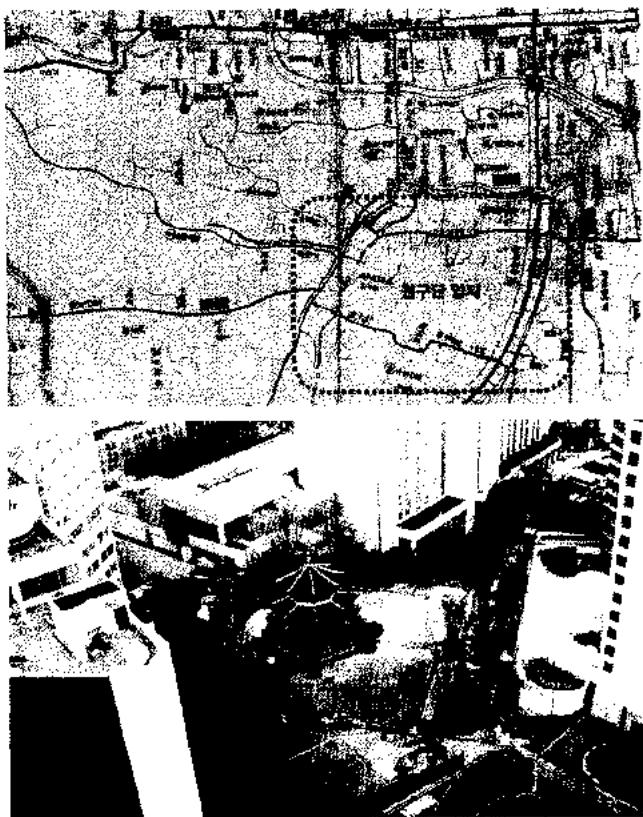
이러한 원구단은 고종시대에 독립적인 황제국(皇帝國)으로 격상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함에 따라 독립적인 연호로 광무(光武)를 쓰고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기 위하여 다시 조성되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대한임시정부를 계승한 독립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하늘이 인정하는 독립국임을 만방에 알린 제천례를 치렀던 원구단은 바로 우리의 독립의지를 가시(可視)적으로 표방하는 상징적인 국가적 의미를 갖는 중요 시설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제국주의의 강제적인 한일병합에 성공한 일본이 우선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대한제국의 시설물이 되었다.



(그림 3) 조선경성필로호텔 전경

현재의 원구단(圜丘壇)의 터는 조선 초에는 공주의 집터였다 하며, 선조대에는 왕자 의안군(義安君)의 저택 자리였고, 임진왜란 후에는 남별궁이라 하여 중국사신의 영빈관으로 쓰였던 자리라 하며, 당시 한성 남부 회현방 소공동계(小公洞契)의 해좌사향(亥坐巳向) 자리로, 조선호텔 건물 입지가 바로 이 제단의 자리이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원구단의 부속시설인 필각당(皇穹宇)과 그 앞에 있는 3기의 돌북(석고) 뿐으로 그 중심시설인 제단이 남아있지 못한 것은 뜻내 아쉬운 우리 역사의 서글픈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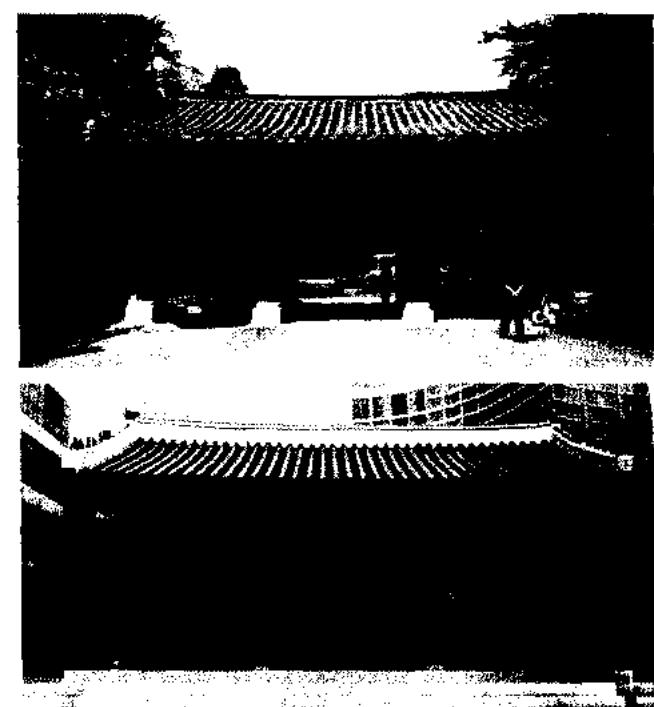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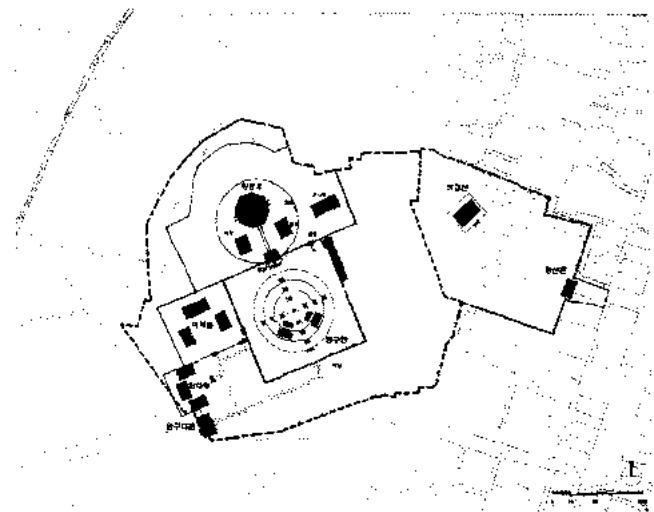
(그림 3) 과거와 현재의 원구단 입지

이 원구단은 화강암으로 된 원형의 3층 제단으로 중앙 상부에는 황색으로 도색된 원주형 지붕(황막)이 있었고, 황궁우는 제 지날 때 필요한 천신의 신위판(神位板)을 모셔두고, 기타 각종의 세례용구들을 보관했던 부속시설로 고려된다. 이들 시설은 응희2년(1908) 7월에 국유로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 후인 1914년에 황궁우만 남긴채 원구단을 없애고 그 자리에 총독부 철도국 산하의 경성철도 호텔을 건축하여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조선에 출장할 때 머물던 자리가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제국 독립의 상징 터를 일제는 저들의 잠자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지금도 외래 자본을 끌어들여 지은 고급 호텔로 벼젓이 쓰이고 있는 것을 어찌 보아야 하나.



(그림 5) 1967년 무렵 조선호텔 건립 모습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보면, 원구단은 3단의 석조 제단과 부속 시설로 황궁우와 동서부가 있어 각각의 영역은 담장으로 구획되었고, 단의 서쪽에 향대청과 어제실이 있고 동편에 신실이 있었으며 이를 동편에 구획을 따로 하여 석고각(石鼓閣)이 있어 그 안에 3개의 돌복이 나란히 눕혀있었던 것이 당시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 터가 지금의 롯데호텔과 백화점 자리까지 포함되며, 석고각은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으로 원래는 원구단의 동쪽, 구 종동부의 도서관 자리였다 하며, 이 때 석고각의 정문인 광선문도 함께(1902) 세워졌다. 또한 현재의 조선호텔 신축 때에 기록도 없이 사라진 줄 알았던 정문이 우이동에 백운문(白雲門)이란 이름으로 발견되어 서울시가 이전(移建)하였으나 제자리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세워진 점이 아쉬우나, 그 형태라도 남겨진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물론 원래의 정문 이름을 비롯하여 온전히 보존되었는지 하는 고증의 문제는 아직 미검인 것 같다.



(그림 6) 원구단 추정폐지도(상)과 과거(백운문)와 현재(이전 복원)의 정문 모습

## 원구단(圜丘壇)의 명칭에 대하여

원구단은 지금의 공식 명칭이 아니다. 2005년의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원구단이 아니라 환구단이란 칭호를 공식 칭호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고시의 가장 중요한 개명(고시 전에는 모두 원구단으로 불렸다.) 근거로 1897년 10월 12일자 독립신문에서 “환구단”이라 썼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에서는 어찌 된 일인지 원구단과 환구단이 혼용되고 있고, 기사내용에서도 혼용된 것이 있다. 이는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또한 헷갈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많은 자료를 참조할 수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헷갈려 쓰고 있는 옛 신문기사 중의 어느 것을 따를지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圜’ 자를 한한대자전에서 찾아보면 그 발음이 ‘환’과 ‘원’ 2가지이며, “둥글다”라는 뜻은 원으로 읽도록 나와 있다. 즉 원구단은 하늘에 제지내는 등근 제단이며, 하늘을 둥글게 알았던 전통사상과도 맞는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근거를 외면하고 편의주의로 오류를 범한 고시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고시로 바로잡아 우리의 젊은이들을 무더기로 무식에 빠지게 하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겠다.

(그림자 2005년 11월 16일 판권)

### 최영집 회장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 취임'

우리 협회 최영집 회장이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이하 FIKA)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16일 11시 30분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의 건축계 인사를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정명원 위원장,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FIKA 대표회장이었던 대한건축학회 손장열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년

간 FIKA 대표회장 임무를 마칠 수 있게 해준 3단체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최영집 회장께서 FIKA를 잘 이끌어 가리란 믿음으로 편하게 이 자리를 물려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집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FIKA가 설립된 지 이제 횟수로 10년이 됐다. 최근 건축계가 처한 현실과 변화로 볼 때, 앞으로 FIKA가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면 협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영집 회장은 올해 FIKA 대표회장에 취임함에 따라, 지난 2년 전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이어 세계 건축인의 관심이 집중될 2017년 세계건축사연맹(UIA) 총회를 국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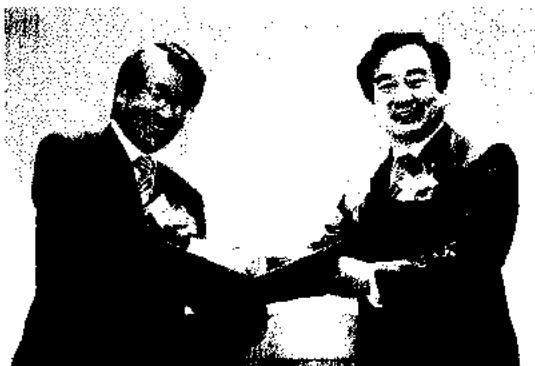
FIKA(Federation of Institute of Korean Architects)는 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 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가 WTO관련 국제 협상 및 UIA 등의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건축계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2월에 설립한 기구이다.



FIKA 대표회장 이·취임식 전경



FIKA 대표회장 취임식 종인 최영집 회장



최영집 FIKA 대표회장이 지난 1년간 FIKA를 이끈 대한건축학회 손장열 회장(사진 좌측)에게 공로패를 수여



이명호 중앙대학교 영예교수(전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건배 제의

## 제44회 정기총회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5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446명 중 374명의 승원을 보인 가운데, 공제사업 관련 정관 개정의 건 등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이중 9개 안건이 처리됐다. 제2호의안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은 투표에 불였으나 의결정족수(2/3) 부족으로 부결됐고, 제6호의안 비상대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변경의 건은 안건 폐기됐다.

오전 10시 최영집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총회는 성원보고, 국민의례, 아래 립 이사의 건축사회장 낭독에 이어 최영집 회장의 개회사와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후지모토 마사야 일본건축사연합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협회와 건축사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회원에 대한 공로패 및 직위에 대해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전국 최우수단체에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신우식)를, 우수단체에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신동출)와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신정철)를 선정해 각각 포상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한·일건축사회 간의 교류에 많은 기여를 한 일본건축사회 연합회 후지모토 마사야 회장과 미국에서 PDI World Group LLC를 운영하며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허승회(미국건축사협회 명예원로회원/FAIA) 건축사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했다. 또한, 2010년도 대한건축사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4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본 회의에 들어가서 제43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한 후 추대회원에 대한 주대보고, 주요업무보고, 감사보고를 마치고 부의안건 상정에 늘어가 1호의안부터 10호의안까지 일괄 상정한 다음 종식을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종식 후 13시부터 속개된 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 순으로 심의되어 제1호의안인 '공제사업 관련 정관 개정의 건'을 원안 승인했으며, 제2호의안인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은 곧바로 투표에 불여 졌으나 총투표 수 309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18표, 무효 2표

로 의결정족수(2/3)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어 제3호의안인 2009년도 결산의 건 및 제4호의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추진의 건, 제5호의안 건축사등록원 업무 수행의 건, 제7호의안 공제사업 준비자금 추가 차입의 건, 제8호의안 협회발전기본계획 2차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제9호의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제6호의안 비상대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변경의 건은 폐기됐다.

마지막 안건인 임워 선출의 건은 현 이사 중,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7인의 이사와 사임한 1인 이사 등 총 8인의 이사 선출과 임기 만료로 인한 감사 1인 선출에 대해 논의했고, 이사 8인은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이 '복수 추천' 한 인사를 본협회 회장이 선출 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따라 선출하도록 의결했다. 또한 감사에는 단독 출마한 이무열 회원(인천/건축사사무소 성경)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제44회 정기총회 주요 부의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안: 공제사업 관련 정관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  
-의결정족수(2/3) 부족으로 부결됨.



개회를 선언하는 최영집 회장



공로회원에 대한 공로패 수여



명예회원증 수여(사진 좌측, 허승회 PDI 회장)



명예회원증 수여(사진 우측, 허승회 PDI 회장)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



이무열 신임 감사의 당선사례

- 총투표수 : 309표
- 찬성 189표, 반대 118표, 무효 2표
- 제3호의안 : 2009년도 결산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추진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건축사 등록원 업무 수행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비상대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변경의 건  
-안건 폐기
- 제7호의안 : 공체사업 준비자금 추가 차입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협회발전기본계획 2차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9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10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감사(1인) : 이무열 회원  
-이사(8인) : 시도건축사회장들이 복수로 추천하여 회장이 선임키로 함.  
※ 이사 8인 중 1인은 잔여임기



- 김의중(金意中)
- 56년생
- 건축사사무소 서보건축



- 정부교(鄭富教)
- 55년생
- 정부교 건축사사무소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 현대건설(주)
- 서울시 서초건축사회 회장 역임
-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서울중앙법원 감정인



- 신동출(申東出)
- 52년생
- (주)건축사사무소 신동건축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현대건설(주)
- 삼척대학교 강사 역임
- 관동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강원도건축사회 회장 역임

### ▲감사



- 이무열(李武烈)
- 56년생
- 건축사사무소 성경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한국주택은행
- 대구광역시 건축신의위원회 위원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역임



- 심우석(沈祐奭)
- 57년생
- 우성 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12, 13대) 역임
- 안천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인천광역시 건축 심의위원
- 인천광역시 시민 감사관

### ■유임 및 중임임원

-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역임
- 전남대 여수캠퍼스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 전라남도 건축위원회 위원



서근여사 전영철



이사 김상부

이사 이각표



이사 석종구



이사 이재림

### ■신임 임원

#### ▲이사



- 권연하(權淵夏)
- 59년생
- (주)건축사사무소 우림에 이앤씨



- 안택영(安澤暎)
- 52년생
- (주)에이알 건축사사무소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서울건축사회 간사 역임
-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 대한건축사협회 정보·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대한건축사협회 청년건축사 부위원장 역임
- 서울시강남건축사회 회장 역임
-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사
- 대한건축사협회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사 이창율(총임)



이사 장현숙



이사 장양수(총임, 잔여1년)



이사 조성우



감사 정명옥

## ■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 일정

일자	건축 사회	시 간	장 소
3/5(금)	광주건축사회	10:30	신양파크 호텔
3/11(목)	충남건축사회	10:30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러시홀
3/12(금)	충북건축사회	10:00	청주 명암타워 크리스탈홀
3/16(화)	전남건축사회	11:30	광주 성록회관 4층 연회장
3/17(수)	울산건축사회	16:00	울산MBC컨벤션 아모레홀
	대구건축사회	14:00	대구 가창 스파밸리
3/18(목)	경기건축사회	10:00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
3/19(금)	경북건축사회	11:00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전북건축사회	15:00	전주 코아 리베라호텔 1층 백제홀
	강원건축사회	10:30	원주 인터불고 호텔 1층 장미홀
3/23(화)	경남건축사회	10:30	창원호텔 목련홀 3층
	제주건축사회	16:00	제주 카르텔 2층 회의실
3/24(수)	부산건축사회	10:00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블룸
	서울건축사회	14:00	본협회 1층 대강당
3/25(목)	인천건축사회	10:00	로얄호텔 별관(영빈관) 남동구 간석동 소재
	대전 오페라웨딩	10:30	대전 오페라웨딩 4층 컨벤션홀

## 제2회 이사회

2010년도 제2회 이사회가 지난 2월10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회원의견수렴 결과의 건, 서울건축사회 회관매입 관련 요청의 건, 회관 시공자 및 설계·감리자 대처의 건, 아이티 지진 피해에 따른 지원의 건, 추대회원 추대제도 개선의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공체사업 관련 정관 개정의 건, 2009년도 결산의 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지정 추진의 건, 건축사등록원 업무 수행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변경의 건, 공체사업 준비자금 추가 차입의 건, 협회발전기본계획 2차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건축3단체 통합추진의 건, 제44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추대회원 추대의 건, 정기총회 표창 수여의 건, 시도건축사회 영문명칭 표기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의안: 회원의견수렴 결과의 건
- 부의안건(제9호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서울건축사회 회관매입 관련 요청의 건

-서울건축사회 회장이 서울건축사회 회관매입과 관련한 지난 1년동안의 추진 경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 제3호 : 회관 시공자 및 설계·감리자 대처의 건

-협회회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시공사에게 보수를 요청하되, 하자보수기간 종료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용 후 회관관리예산으로 보수하기로 함.

- 제4호 : 아이티 지진 피해에 따른 지원의 건

-각 시도건축사회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이티지원 모금운동을 하고, 모금된 금액은 대한건축사협회 명의로 국내 구호단체에 전달하기로 함.

- 제5호 : 추대회원 추대제도 개선의 건

-향후 정관이나 관련규정을 개정할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함.

###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공체사업 관련 정관 개정의 건
- 이사 4인(김한진, 이영호, 전영철, 조충기)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제44회 정

- 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2009년도 결산의 건

-원안대로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지정 추진의 건

-원안대로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4호의안 : 건축사등록원 업무 수행의 건

-원안대로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5호의안 : 비상대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변경의 건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방안을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공체사업 준비자금 추가 차입의 건

-원안대로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7호의안 : 협회발전기본계획 2차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원안대로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8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예산의 건

-친환경인증사업을 위한 재원(약 7천만 원)은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금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사지 특집(500호) 발간사업에 100만원을 반영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제9호의안 : 건축3단체 통합추진의 건

-정관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통합 이행 및 운영규정의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제44회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 제10호의안 : 제44회 정기총회 의제 결정의 건

-「통합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을 제2호 의안으로 추가하여 총 10개의안을 제4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제1호의안 : 공제사업 관련 정관 개정의 건

### ▷ 제2호의안 : 통합을 위한 정관 개정의 건

### ▷ 제3호의안 : 2009년도 결산의 건

### ▷ 제4호의안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추진의 건

### ▷ 제5호의안 : 건축사등록원 업무 수행의 건

### ▷ 제6호의안 : 비상대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변경의 건

### ▷ 제7호의안 : 공제사업 준비자금 추가 차입의 건

### ▷ 제8호의안 : 협회발전기본계획 2차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 ▷ 제9호의안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건

### ▷ 제10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 제11호의안 : 회관관리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 제12호의안 : 주대회원 추대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 제13호의안 : 정기총회 표장 수여의 건

-감사패 수상자 1인(국토해양부 정진일 사무관)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 제14호의안 : 시도건축사회 영문명칭 표기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위원회 개최 현황

### ■ 제1회 국제위원회

제1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8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 제1호 : 제14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에 관한 건

-제14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개최 시 건축세션을 위한 발표주제에 관해 각 단체 별로 짧은 건축사 1인과 저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할 연사 1인을 추천하기로 협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 제2호 : 2010년도 해외 교류단체 초청에 관한 건

-JIA, AIA, UMA 초청은 본 협회 전국건축사대회 개최 시에 연계하여 초청하기로 협의하고, KIRA-AIA, KJRA NCARB WG 회의 개최를 위한 대표단 초청은 AIA 총회 참가 시에 양 단체와 협의하기로 함.

#### • 제3호 : 2010년도 명예회원 추대 및 회원증 수여에 관한 건

-2010년도 명예회원 추대 및 수여에 관해 추대시기를 대상자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수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번 해에는 몽골건축사협회의 경우 직전회장에게만 수여하는 것을 제안함.

### ■ 제1회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제1회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9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 제1호 : 제2차 APEC 등록건축사 등록 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APEC 등록건축사 등록신청서 및 참여프로젝트 개요를 3월 18일(목) 11시에 심사

하기로 협의함. 심사위원으로 김지덕 위원장, 이근창, 임재용, 황두진 위원, 이옥화 간사가 선정됨.

#### • 제2호 : APBC 등록건축사 계속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건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 계속교육 기준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마련한 협회 회원 인증 및 교육 규정에 맞추어 진행키로 지난 2009년도 제4회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10/30)에서 협의하였듯이, 계속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본 협회 회원 인증 및 교육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논의함. 또한 해외인사 방한 시 강연회를 개최하는 방법 및 대한민국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 ■ 제2회 친환경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제2회 친환경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22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 제1호 : 학사관리세칙 개정(안)에 관한 건

-학사관리세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함.

#### • 제2호 : 2010년도 교육계획에 관한 건

-2010년도 교육과정은 각 반의 총 이수시간을 130시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3개 반을 운영하기로 함.

#### ▷ A반 : 건축사반 9월~12월

#### ▷ B반 : 설계실무자 및 취업예정자 4월~7월

#### ▷ C반 : 대학 졸업반 8월

#### • 제3호 : 2009년도 예산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건

-국토해양부의 2009년 예산잔액 이월불가 방침에 따라 교육용 프로그램(AutoCAD, 한글, V3 등) 구입, 교육장시설 공사 및 비품 구입 등을 위하여 2009년 예산을 복간 전용하여 집행하기로 함.

#### • 제4호 : 제1기 및 제2기 수료자 선정에 관한 건

-수료자는 제1호의 학사관리세칙 개정(안)에 이수시간과 시험 및 과제물 평가 점수에 따라 A반 49명, B반 47명을 수료자로

- 선정하고,
-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대상자는 이수시간과 시험 및 과제별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한 A반 이종해, B반 이필영을 선정하기로 함.
- 또한 원장표창 대상자로는 반장으로 공로가 있는 A반 이기완, B반 임재영을 선정하기로 하고, 원장 표창자에게는 의장 하드를 부상으로 수여하기로 함.

## ■ 제2회 정책위원회

제2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18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 기획  
- 건축문화를 홍보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사업을 기획해야 하며,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제2호 : 설계업 수입구조 개선 추진 소위 구성안  
- 설계업 수입구조 개선 추진위원회(T/F 팀) 구성을 제안함
- 제3호 : 차기 정책위 업무 연계 방안  
- 위원회 인수인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1기 수료식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4일(화) 오후 5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친환경 건축물 설계 전문가를 양성을 위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와 공동주관기관으로 국토해양부의 국고지원금과 목천김정식 문화재단, 대형 건축사사무소 등 의 민간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축사, 건축설계 관련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친환경건축설계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난해 9월 개강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는 친환경건축 설계를 위한 재료·구축 및 실내환경 설계, 저 에너지 통합설계 및 패시브 설계 등 5개월 150시간의 정규교육과목을 이수한 96명의 친환경건축전문가를 배출했다.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작년 3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 저 에너지 건축설계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향후 5년간 '녹색건축'을 이끌어갈 친환경건축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 밀레니엄 워터의 '로저 베일리' 강연회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2월 26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촌 '밀레니엄 워터' 설계자인 로저 베일리(Roger Bayley/Merrick Architecture 대표)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진 회장을 비롯해 주한캐나다대사관 Mr. Hendrik Kuipers, 캐나다 연방정부 주택청 글랜 웹,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 김지덕 위원장 등

150여명이 강연회에 참석했다.

최영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로저 베일리는 친환경 건축설계로 많이 알려진 캐나다 건축사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해외의 친환경 건축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로저 베일리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촌인 '밀레니엄 워터'에 대한 계획 의도, 설계 개념 등을 사진과 함께 비교적 자세하게 강연했다. "16,000세대 규모의 큐 프로젝트를 설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친환경 건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설계가 이뤄져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해 다양한 건축자재의 접목도 강연을 통해 밝혔다. "주로 유리와 벽돌을 활용했으며, 도심의 향만에 사이트가 위치한 점을 살려, 입주자들이 쉽게 물을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중정과도 같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캐나다는 남한의 면적보다 큰 호수인 온타리오 호가 위치하고 있는 만큼 물과는 친숙한 나라이다. 밴쿠버 시도 조지아 해협의 버라드 만과 프레이저 강의 삼각주 사이에 위치, 물의 축은 도심을 가로지른다. 이러한 수변환경 공간에 밀레니엄 워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밀레니엄 워터는 올림픽 유치가 거론 될 당시부터 계획된 프로젝트이다. 아홉 블록에 걸쳐 조성된 대규모 단지로, 밴쿠버 동계올림픽 기간 중 약 2,800여명의 선수들이 머문 선수촌으로 활용됐으며, 올림픽이 끝난 이후

에는 3만 평방피트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 등  
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지로 밴쿠버 시민들에게  
선 보일 계획이다.

####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건축계소식

##### 한국건축가협회 제27대 이상립 회장 취임



한국건축가협회 제27대 이상립 회장(주.공  
간 종합건축사사무소)이 취임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26일(금)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문화체육  
관광부 박순태 예술정책관을 비롯한 정부 관  
계자와 대한건축학회 심우갑 전 회장을 비롯  
한 건축계 단체장 및 건축계 원로, 회원 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상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제 관련 업  
무를 확대하여 비영어권들과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겠다”며 “위원회도 불  
어권을 중심으로 확대 재편하겠다”고 전했  
다. 또한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 등  
의 사태에 건축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  
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으  
며, 회원들이 안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합심하여 모색  
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이상립 신임 회장은 미국건축기협회 명예회  
원, 한국빌딩스마트코리아 회장, UNESCO  
국제 워크숍 심사위원, 대한건축학회 상임이  
사 등 국내외 적으로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한국건축가협회 수  
석부회장으로 선출돼 그동안 협회 회장단으  
로도 활동해 왔다. 한편 이날 신임 회장단 소  
개도 함께 마련됐다.

2010년 신임회장단으로는 수석부회장 이  
광만(주.간남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연  
구부회장 노창환(보항시청 국제화전략본부),  
사업부회장 최두호(주.토문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사사무소), 국제부회장 한종불(주.삼우종  
합건축사사무소), 지회부회장 허동윤(주.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상 4명이 새롭

게 선출 및 연임됐다.

- 문의 : 02-744-8050

##### 2010 김중업 장학생 선발

한국의 대표적 건축사 김중업의 이름을 딴  
프랑스 정부 장학금 ‘김중업’은 2004년 첫  
장학생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매년 1명(총 6  
인)의 장학생을 선발해 프랑스 현지 건축사사  
무소와 3개월간 협력 작업을 시행했으며,  
2010년부터는 서울 세계 디자인 수도 지정을  
맞아 건축, 도시, 디자인 등의 분야에 매년 3  
인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실내건축 분야이며, 모집대상은 35세 미만의  
실무종사자 또는 관련학과 5학년 이상, 대학  
원 재학생(2010년 4월 기준)으로서 실무에서  
불어 혹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이다.  
실습기간은 2010년 9월 ~ 11월(3개월)이며,  
프랑스 현지 관련 사무소에서 3개월간 실습  
및 체류비(1인당 총 4,000유로)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보험 및 숙소, 항공료를(주.삼우 종  
합건축사사무소, DPJ Partners, 프랑스 건  
축사회 제공) 제공한다. 서류 및 포트폴리오  
와 면접으로 심사위원 프랑스대사관과 프랑  
스건축사회가 구성한 공동 심사위원회가 심  
사, 선발한다. 서류제출은 4월 12일, 서류전  
형 합격자 발표는 4월 19일, 최종 면접은 4월  
27일이며, 신청양식은 네이버 카페 프랑스건  
축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 관련 서류를 주소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  
편으로 발송해야 된다.

- 문의 : <http://cafe.naver.com/frarchi>

##### 제19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T. S. Kim  
Architectural Fellowship Foundation)는  
재미 건축사 김태수씨에 의하여 1991년에 설  
립되어 한국의 젊은 건축사에게 교육적인 세  
계 건축여행을 함으로써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행경비와 그  
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지원한다.

Fellowship을 받은 사람의 수는 상임이사  
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현재까지 세계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1년에 1

에는 3만 평방피트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거지로 밴쿠버 시민들에게 선 보일 계획이다.

####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게 3만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건축계소식

##### 한국건축가협회 제27대 이상립 회장 취임



한국건축가협회 제27대 이상립 회장(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 취임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26일(금)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순태 예술정책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대한건축학회 심우갑 전 회장을 비롯한 건축계 단체장 및 건축계 원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상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제 관련 업무를 확대하여 비영어권들과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겠다”며 “위원회도 불어권을 중심으로 확대 재편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티 등 의 사태에 건축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으며, 회원들이 안고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합심하여 모색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다.

이상립 신임 회장은 미국건축기협회 명예회원, 한국빌딩스마트코리아 회장, UNESCO 국제 워크숍 심사위원, 대한건축학회 상임이사 등 국내외 적으로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돼 그동안 협회 회장단으로도 활동해 왔다. 한편 이날 신임 회장단 소개도 함께 마련됐다.

2010년 신임회장단으로는 수석부회장 이광민(주.간남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연구부회장 노창환(보항시청 국제화전략본부), 사업부회장 최두호(주.토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국제부회장 한종불(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지회부회장 허동윤(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상 4명이 새롭

게 선출 및 연임됐다.

- 문의 : 02-744-8050

##### 2010 김중업 장학생 선발

한국의 대표적 건축사 김중업의 이름을 딴 프랑스 정부 장학금 ‘김중업’은 2004년 첫 장학생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매년 1명(총 6인)의 장학생을 선발해 프랑스 현지 건축사사무소와 3개월간 협력 작업을 시행했으며, 2010년부터는 서울 세계 디자인 수도 지정을 맞아 건축, 도시, 디자인 등의 분야에 매년 3인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실내건축 분야이며, 모집대상은 35세 미만의 실무종사자 또는 관련학과 5학년 이상, 대학원 재학생(2010년 4월 기준)으로서 실무에서 불어 혹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자이다. 실습기간은 2010년 9월 ~ 11월(3개월)이며, 프랑스 현지 관련 사무소에서 3개월간 실습 및 체류비(1인당 총 4,000유로)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보험 및 숙소, 항공료를(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DPJ Partners, 프랑스 건축사회 제공) 제공한다. 서류 및 포트폴리오와 면접으로 심사위원 프랑스대사관과 프랑스건축사회가 구성한 공동 심사위원회가 심사, 선발한다. 서류제출은 4월 12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4월 19일, 최종 면접은 4월 27일이며, 신청양식은 네이버 카페 프랑스건축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 관련 서류를 주소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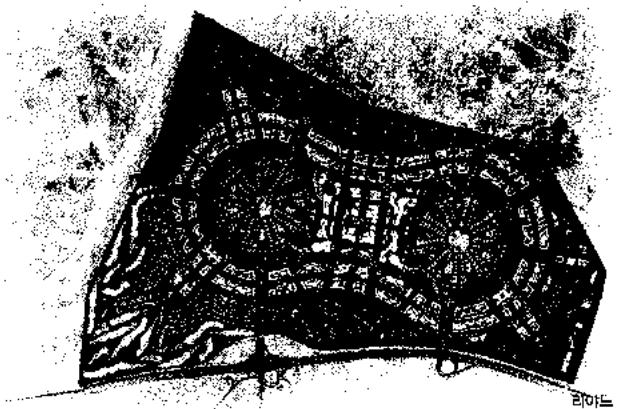
- 문의 : <http://cafe.naver.com/frarchi>

##### 제19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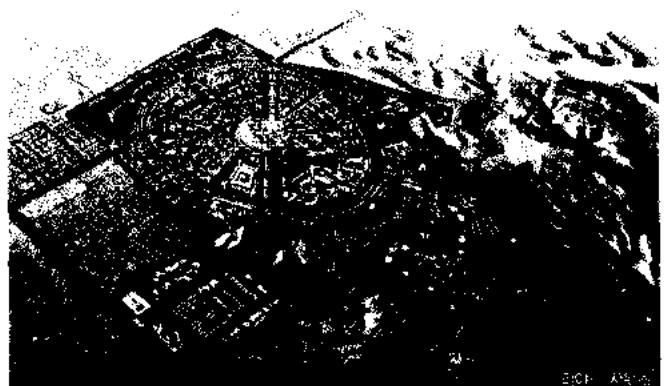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T. S. Kim Architectural Fellowship Foundation)는 재미 건축사 김태수씨에 의하여 1991년에 설립되어 한국의 젊은 건축사에게 교육적인 세계 건축여행을 함으로써 보다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여행경비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지원한다.

Fellowship을 받은 사람의 수는 상임이사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현재까지 세계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1년에 1

# 무영건축,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판교급 녹색신도시 두 곳 수주



2016 년



2014-15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건축사 안길원)가 (주)알트플렉스이앤씨와 함께 중동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판교급 규모의 녹지형 신도시 두 곳의 프로젝트 설계를 수주했다.

단일 건축사사무소가 이정도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루드처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공사구모는 총 150억 달러로 이 중 도시·건축설계 용역비는 5억6천420만 달러로 알트플러스가 도시 인프라설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86%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용역은 모든 모연거죽이 담당한다.

그 첫 번째 리야드 사우스 웨스트(Riyadh Southwest)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남서부 1천140만m<sup>2</sup>에 단하는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으로 Salam, Amenity, Convenience, Safety, Health, Self-Sufficiency 등의 6개의 개념으로 계획됐다. 이 곳은 일반 거주 지역으로 서던주택 1만5천 세대와 IT센터, 오피스, 쇼핑몰, 3~5성급 호텔이 각각 한 동씩 들어서고 메인 스트리트와 50여 동의 모스크, 식물원, 박물관,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리야드 노스(Riyadh North) 프로젝트는 리야드의 북부 8백만m<sup>2</sup>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으로, 자연과 건축유산의 완벽한 조화를 의도하는 Aqua Green

City의 개념으로 개발된다. 이곳은 낮은 주거지대로 고급빌라들이 들어서게 되며, 사우디 중심층을 겨냥해 고급 빌라 및 아파트 1관 세대, 그리고 IT센타와 파이낸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비니어센터 이외에도 여러 오피스빌딩을 비롯해 쇼핑몰과 초고급 병원, 중동 최대의 아이스링크를 보유한 스포츠 둘과 승마장 및 18홀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영기축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한지 10년, 당시 IMF 등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고시 하는 일정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인길원 회원의 마인드를 발판삼아 구영그룹은 베트남과 중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중동 등에 진출해 차근차근 기반을 털어 오늘날의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문의 :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02-3011-1400

Contract Signing Ceremony  
for Riyadh Southwest Project



최측부터 영드플러스어엔씨 인호경 사장, 무영신축 한국원 회장, 사우디 아람코 총괄스사우세프 알렉스풀리스어엔씨 이동성 회장, 프로젝트 매니저연도 이정수 회장

명으로 국한되었으며, 1992년에 첫 Fellowship을 수여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는 수상자에게 미화 \$8,000을 수여하였고, 1998년부터는 미화 \$10,000을 수여하고 있다.

- 자격요건 :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 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통과자선정
- 예선 당선자는 여행 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
- 접수마감 : 접수마감: 2010년 4월 30일까지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5로 프트빌딩 3층1호 (주)맥스트랫 내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담당자 앞
- 문의 : [www.tscaf.org](http://www.tscaf.org)

심사일은 11월 1일 예정이다.

- 작품전시 및 시상은 11월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당일로 예정돼 있다.
- 문의 : 한국도시설계학회 사무국 02-538-4596

#### KCC, '무빙 월 시스템' 개발



트랙 및 롤러 하중 저지력이 우수하다.

무빙월 시스템은 기존 습식 벽 공동 주택에서 중대형 평형(40평형)의 확장 옵션 경계벽 (Room1,2 경계벽), 혹은 최근 건설사별로 연구 개발 중인 플랫슬라브(Flat Slab, 구조 변경이 가능한 방식) 구조 및 라멘조(기둥과 보의 구조) 형식의 주상 복합에서 거실과 작은방의 경계벽에 적용 가능하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 한국도시설계학회 '도시설계공모전'

공고

**한국도시설계, 미래를 열자'**

한국도시설계학회에서는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리디자인 오브 어반 스페이스 (Redesign of Urban Space)」라는 주제로 도시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기존의 도시공간이나 시설의 재설계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고 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창의적 설계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도시의 일부분으로, 규모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 최소 기구(block) 이상으로 작업해야 한다. 기타 도시설계에 관한 디자인도 응모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전국 대학(원)생, 개인 혹은 팀(팀당 4명 이내)이며, 휴학생도 포함된다.

심사기준은 기존 도시 맥락의 이해 및 새로운 기능의 적절성, 이를 도시설계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창의성 및 설계의 완성도와 도시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이다.

작품접수는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간이며,

최근 공동주택의 구조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기존 벽식 구조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거주자 기호에 따라 세대 내 벽체의 이동을 통한 공간변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KCC는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빙 월 시스템(Moving Wall System)' 건식 벽체를 개발했다.

무빙 월 시스템은 구조체의 강성 및 차음 성능이 우수하며 거주자가 직접 간단한 조작으로 벽체를 설치, 이동할 수 있게 하는데 그 특적이 있다. 보통 기존 건식 벽체는 현장에서 구성 원·부자재를 시공한다. 즉, 스티드를 기준으로 양 측면에 각각 2겹의 판재(석고보드)를 설치하고 중앙에 단열재가 설치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무빙 월 시스템은 구성 원·부자재가 일체화된 단일 패널 유닛으로 제작되기에 거주자가 간단한 조작으로 손쉽게 벽체를 이동, 설치할 수 있다.

KCC 무빙 월 시스템은 화재 및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한 거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KCC 불연재인 석고보드 및 단열재(그래스울)를 적용했으며, 주거 공간에 적합하도록 고밀, 차음 성능 확보를 위해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2중 개스켓을 개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평 하중 저항 성능 및 내충격 성능, 차음 성능,

## 2010년 건축허가 현황(1월)

(단위 : 동, 제곱미터)

### ■ 용도별

구 분	면적(㎡)			면적(㎡)			
	2009년	2010년	증가율	2009년	2010년	증가율	
계	동 수	11,401	12,699	11.4%	11,401	12,699	11.4%
	연면적	4,498,263	5,997,788	33.3%	4,498,263	5,997,788	33.3%
주거용	동 수	3,166	4,128	30.4%	3,166	4,128	30.4%
	연면적	904,537	1,450,384	60.3%	904,537	1,450,384	60.3%
상업용	동 수	3,689	3,820	3.6%	3,689	3,820	3.6%
	연면적	1,092,629	1,762,531	61.3%	1,092,629	1,762,531	61.3%
공업용	동 수	1,447	1,488	2.8%	1,447	1,488	2.8%
	연면적	964,694	1,137,055	17.9%	964,694	1,137,055	17.9%
교육 및 사회용	동 수	839	858	2.3%	839	858	2.3%
	연면적	736,729	700,107	-5.0%	736,729	700,107	-5.0%
기 타	동 수	2,260	2,405	6.4%	2,260	2,405	6.4%
	연면적	799,674	947,711	18.5%	799,674	947,711	18.5%

### ■ 구조별

구 分	면적(㎡)			면적(㎡)			
	2009년	2010년	증가율	2009년	2010년	증가율	
계	동 수	11,401	12,699	11.4%	11,401	12,699	11.4%
	연면적	4,498,263	5,997,788	33.3%	4,498,263	5,997,788	33.3%
철근 철골조	동 수	9,701	10,950	12.9%	9,701	10,950	12.9%
	연면적	4,363,646	5,853,559	34.1%	4,363,646	5,853,559	34.1%
조적조	동 수	1,050	1,038	-1.1%	1,050	1,038	-1.1%
	연면적	78,252	86,459	10.5%	78,252	86,459	10.5%
목 조	동 수	630	606	-3.8%	630	606	-3.8%
	연면적	55,765	52,460	-5.9%	55,765	52,460	-5.9%
기 타	동 수	20	105	0.0%	20	105	0.0%
	연면적	600	5,310	0.0%	600	5,310	0.0%

### ■ 치도별

치 도	면적(㎡)			면적(㎡)			
	2009년	2010년	증가율	2009년	2010년	증가율	
계	동 수	11,401	12,699	11.4%	11,401	12,699	11.4%
	연면적	4,498,263	5,997,788	33.3%	4,498,263	5,997,788	33.3%
수도권	동 수	3,644	4,412	21.1%	3,644	4,412	21.1%
	연면적	1,490,439	2,734,512	83.5%	1,490,439	2,734,512	83.5%
서 울	동 수	467	797	70.7%	467	797	70.7%
	연면적	335,944	688,025	104.8%	335,944	688,025	104.8%
인 천	동 수	489	418	-14.5%	489	418	-14.5%
	연면적	145,207	327,769	125.7%	145,207	327,769	125.7%
경 기	동 수	2,688	3,197	18.9%	2,688	3,197	18.9%
	연면적	1,009,288	1,718,718	70.3%	1,009,288	1,718,718	70.3%
지 빙	동 수	7,757	8,287	6.8%	7,757	8,287	6.8%
	연면적	3,807,824	3,283,276	-8.5%	3,807,824	3,283,276	-8.5%
부 산	동 수	303	426	40.6%	303	426	40.6%
	연면적	120,185	210,867	75.5%	120,185	210,867	75.5%
대 구	동 수	235	275	17.0%	235	275	17.0%
	연면적	67,537	160,885	138.2%	67,537	160,885	138.2%
광 주	동 수	177	258	45.8%	177	258	45.8%
	연면적	192,313	193,778	0.8%	192,313	193,778	0.8%
대 전	동 수	147	188	27.9%	147	188	27.9%
	연면적	88,119	120,351	36.6%	88,119	120,351	36.6%
울 산	동 수	270	303	12.2%	270	303	12.2%
	연면적	75,966	188,578	148.2%	75,966	188,578	148.2%
상 원	동 수	769	620	-19.4%	769	620	-19.4%
	연면적	225,688	130,811	-42.0%	225,688	130,811	-42.0%
충 북	동 수	708	701	-1.0%	708	701	-1.0%
	연면적	308,906	325,350	5.3%	308,906	325,350	5.3%
충 남	동 수	925	1,010	9.2%	925	1,010	9.2%
	연면적	654,850	399,707	-39.0%	654,850	399,707	-39.0%
전 북	동 수	658	653	-0.8%	658	653	-0.8%
	연면적	215,866	237,679	10.1%	215,866	237,679	10.1%
전 남	동 수	926	1,050	13.4%	926	1,050	13.4%
	연면적	181,932	344,775	89.5%	181,932	344,775	89.5%
경 북	동 수	1,001	1,302	30.1%	1,001	1,302	30.1%
	연면적	319,574	471,658	47.6%	319,574	471,658	47.6%
경 남	동 수	1,453	1,277	-12.1%	1,453	1,277	-12.1%
	연면적	509,129	421,987	-17.1%	509,129	421,987	-17.1%
제 주	동 수	185	224	21.1%	185	224	21.1%
	연면적	47,759	56,850	19.0%	47,759	56,850	19.0%

##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회원수)

2010년 1월말

구 분	개인 사무소										법인 사무소										총 면 적	면적 비율
	회원	회원 수	회원 비율	회원 수	회원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합계	5,121	5,121	100%	218	10	30	5,340	5,469	1,615	1,615	255	510	61	183	24	36	23	188	1,983	2,592	7,723	8,061
서울	900	900	29%	58	3	9	932	967	873	873	147	294	39	117	12	48	15	93	1,066	1,425	6	2,018 2,392
부산	468	468	17%	34	2	6	487	508	94	94	19	38	3	9	0	0	3	26	119	167	606	675
대구	415	415	20%	40	4	12	439	467	59	59	21	42	3	9	2	8	2	10	87	128	526	595
인천	260	260	3%	6	0	0	263	266	56	56	8	16	0	0	1	4	0	0	65	76	323	342
광주	200	200	1%	2	0	0	201	202	41	41	5	10	2	6	3	12	0	0	51	69	252	271
대전	230	230	8%	16	3	3	239	249	35	35	8	16	5	15	1	4	1	17	50	87	289	306
울산	176	176	6%	12	0	0	182	188	20	20	1	2	1	3	0	0	0	0	22	25	204	213
경기	710	710	3%	6	0	0	713	716	232	232	20	40	3	9	1	4	3	15	259	300	972	1,016
경원	168	168	2%	4	0	0	170	172	26	26	2	4	0	0	0	0	1	5	29	35	199	207
충북	201	201	4%	8	0	0	205	209	29	29	4	8	0	0	2	8	2	16	37	61	242	270
충남	226	226	1%	2	0	0	227	228	45	45	5	10	1	3	2	8	0	0	53	66	230	294
전북	240	240	4%	8	0	0	244	248	20	20	3	3	2	6	0	0	0	0	25	32	269	280
전남	183	183	0%	0	0	0	183	183	16	16	2	4	0	0	0	0	1	6	19	25	202	209
경북	345	345	5%	10	0	0	350	355	34	34	4	8	1	3	0	0	0	0	39	45	1	389 400
경남	393	393	6%	12	0	0	399	405	26	26	5	10	0	0	0	0	0	0	30	36	430	441
제주	106	106	0%	0	0	0	106	106	9	9	1	2	1	3	0	0	0	0	11	14	117	120

##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分	회원수		회원 비율	회원 수	회원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회원	회원 수																				
합계	7,723	8,061	8,061	10	100%	8,071	100.0%	23														
서울	2,018	2,392	2,392	3	33.9%	2,395	33.9%	10														
부산	606	675	675	1	7.9%	676	7.9%	9														
대구	526	595	595	0	7.7%	595	7.7%	0														
인천	328	342	342	0	3.8%	342	3.8%	0														
광주	252	271	271	0	3.7%	271	3.7%	0														
대전	289	336	336	1	3.7%	337	3.7%	0														
울산	204	213	213	0	2.6%	213	2.6%	0														
경기	972	1,016	1,016	2	12.2%	1,018	12.2%	2														
경원	199	207	207	0	2.6%	207	2.6%	0														
충북	242	270	270	0	3.0%	270	3.0%	0														
충남	290	294	294	3	3.1%	297	3.1%	0														
전북	269	280	280	0	3.0%	280	3.0%	0														
전남	202	209	209	0	1.9%	209	1.9%	0														
경북	389	400	400	0	4.6%	400	4.6%	1														
경남	430	441	441	0	5.0%	441	5.0%	1														
제주	117	120	120	0	1.3%	120	1.3%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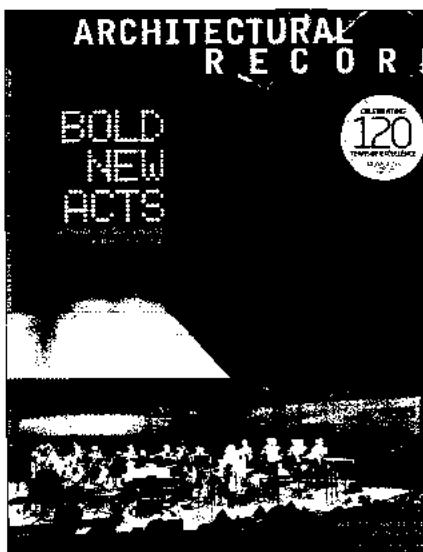
구 分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무회사	부설사무소	회원	회원 수
회원 수	5,469	2,592	86	-	8,061	
비율	67.85%	32.15%	1.08%	-	100%	
사무소수	5,340	1,983	-	-	7,323	
비율	72.92%	27.08%	-	-	100%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ARCHITECTURAL  
RECORD

## ARCHITECTURAL RECORD



이번 호의 project 섹션에서는 'Bold New Acts'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축의 이황금시대에 지어진 세 개의 공연예술을 위한 아트 센터, Foster+Partners의 Winspear Opera House, REX/OMA의 Wyly Theatre, Ateliers Jean Nouvel의 Copenhagen Concert Hall을 소개하고 있다. Books 섹션에서는 'Talking Heads'라는 주제 하에 Frank Gehry와 Daniel Libeskind에 관한 두 가지 책, Conversations with Frank Gehry와 Counterpoint: Daniel Libeskind in Conversation with Paul Goldberger에 대해 재미있게 쓰고 있다.

건축유형별 연구 섹션에서는 'Adaptive Reuse'라는 주제로 Marcy Won Donn Loigan Architects의 Ford Assembly Building, Sand Studios의 Sand Studios and Residence, 그리고 Tadao Ando의 Punta della Dogana에 대해 다루고 있다.

### ■ Books

- Counterpoint : Daniel Libeskind in Conversation with Paul Goldberger. Monacelli Press, 2008

● Conversations with Frank Gehry:  
by Barbara Isenberg. Alfred A. Knopf, 2009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증거 자료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하다. 요즘은 아무도 일기를 쓰지 않으며, 일지 또한 쓰지 않는다. 전자매일과 문자 메시지가 별 중요성을 띠지 않은 채 오고간다.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져 버리고 만다. 과연 미래의 전기작가나 역사가들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

하나의 해답은 녹음된 대화 즉, 구두로 된 역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된 두 책은 모두 현재 가장 유명한 건축사들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미니어에 대한 동양철학에서의 음과양을 보여주고 있다. 한 건축사는 모든 것이 좋다고 하고 다른 한 건축사는 모든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

좋은 것은 Barbara Isenberg가 Frank Gehry를 아주 멋지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놀라운 건축사의 개성과 인간적인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Isenberg는 일일이 캐물고 조사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았고 어떤 형식에 얹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대단한 건축사가 화가 나 있거나 기분이 영망진창일 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훌륭한 작가들이 그런 것처럼 Isenberg는 Gehry의 디스 무분별한 사무실이나 그녀가 인터뷰한 작업테이블에 대해 묘사하면서 우리가 마치 Gehry와 같이 있는 듯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 Gehry 사무실의 비공식적인 사진이나 Gehry의 성장과정에 관한 사진들도 실려있다. Gehry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아마도 독자는 본인이 마치 Gehry를 직접 아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간단한 자료를 원한다면 "Gehry at Work"라는 제목으로 된 장을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정말 가치 있는 책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Libeskind의 책은 아무 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다. 편집자도, 디자이

최현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by Choi, Hyun-ah

너도 알 수가 없다. 또한 색인도 없다. 소위 말하는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된 것이 없다. 저자인 Paul Goldberger는 Libeskind를 직접 만나기는 한 것인가? 아니라면 두 사람이 이메일만 주고 받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사무실의 브로슈어를 미화한 것이다. 작가는 건축사 Libeskind의 작품을 시리즈별로 나열하였다. 사진은 모두 컬러로 되어 있고 간단한 설명이 실려있다. 무엇보다 의아한 것은 새로운 건물이 소개될 때는 Goldberger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Libeskind가 하는 방식으로 한 페이지 정도의 설명이 들어간다. 저자의 질문은 항상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Libeskind의 대답은 커다란 대문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양식은 자신감 없고 변변치 못한 질문에 대해 마치 크게 화를 내는 듯한 대답 같다는 느낌을 준다.

어쨌든 두 건축사가 모두 훌륭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모두 개성이 있다. 이 두 책에서 보면 그 차이가 현격히 보인다. Gehry는 주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Libeskind는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Libeskind는 건축주나 개발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Gehry는 Marshal Rose, Bruce Ratner, 그리고 Barry Diller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쨌든 이 두 책은 모두 가치가 있다. 그러나 Gehry의 책은 사서 봐도록 하고 Libeskind의 책은 빌려서 보도록!

## ■ Project

### Winspear Opera House, Texas / Foster+Partners

Foster + Partners는 Margot와 Bill의 Winspear 오페라 하우스를 창조하기 위해 전통적인 음악당을 재현대의 건축언어를 사용하여 재해석한다.

공연장 바깥으로 설치된 쪽에는 스릴 캐노피가 있는 Winspear 오페라 하우스는 AT&T 아트센터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인다. Foster+Partners가 디자인 한 이

오페라 하우스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자장치의 힘을 빙지 않은 음향효과가 가장 뛰어난 음악당을 만들고자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던 캐나다 출신 사업가 Bill Winspear의 참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확실히 두 번째 목적은 이루어져왔고, 오페라 하우스의 디자인은 첫 번째의 목적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에 대한 태도는 일방향 도로(Flora)를 따라 건물들을 배열하려던 처음 계획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날 상영관에 가지 않는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 오페라 하우스의 넉넉한 공간은 건물 자체로서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주화를 위해서

건축가들은 광장과 둘러싸인 도로와 건물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축들을 이용하여 건축 계획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결과적으로 이 오페라 하우스는 현재 I.M. Pei가 1989년에 지은 Meyerson 교향음악당과 4만 5,000천 평 방미터 정도의 공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로로부터 약 30도 정도 방향이 돌려져 있다.

수평으로 가로지른 Winspear의 힘찬 캐노피는 Flora 거리 맞은 편에 있는 REX/OMA가 지은 Wily 극장의 수직성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긴 형태의 캐노피는 건물의 오디토리엄, 무대, 냉각탑이 있는 붉은 색 유리된 드럼형태의 건물 매스를 들러싸고 있다. 멋진 알루미늄 루버로 된 스크린 구조는 테양의 움직임을 따라 다양한 각도로 설치되

Winspear Opera House



어 있으며 이는 광장과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18미터 높이의 유리로 된 벽에 그림자를 드리워 태양을 막아주고 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로비의 동쪽에 있는 슬라이딩이 가능한 유리패널들이 접하면서 레스토랑이나 까페에 오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식사와 담소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 편안한 외부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캐노피는 내부 공간의 냉난방 부하를 감소시킨다. 건축사들은 바닥으로부터 공기를 흡입해 체로 펌프질 해주는 치환형 환기 시스템을 비롯하여 수많은 에너지절감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각형 형태의 잔디나 야생화가 식재된 파고라와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그 아래 그늘이 드리워진 편안한 휴식처를 만들었다. 또한, 검정색 화강석으로 된 물같이 반짝거리는 필름으로 덮여져 있는 수영장의 둘레에 있는 보도에는 이 건물에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캐노피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리드는 건물의 모든 외부공간까지 달아 있어 넓은 공용공간, 그 규모가 엄격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준다.

전통적인 오페라 하우스의 색채와는 반대로 Foster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 붉은 색을 사용하여 이 건물을 그 그역에서 가장 결출한 요소로 만들었다. 두 겹의 유리 사이에 밝은 빨간색의 PVB 층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디자이너는 앞과 뒤쪽 양쪽으로부터 컬러풀한 외피를 빛나게 하였다. 이는 낮이나 밤이나 붉은 빛으로 빛나게 되어 낮이나 밤이나 눈에 띄는 교통 표지판으로 만들었다.

내부공간은 따스한 분위기이다. 극장 안의 형태는 전통적인 말굽형태로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와 넓은 계단은 까페와 긴 바와 함께 극장의 곡선을 따라서 1층과 2층에 배치되어 있다.

반세기 동안 공연문화를 위한 공간들은 도시의 저개발 및 확장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오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공연까지 소화해 낼 수 있는 공연 예술의 명소로서의 성공과 더불어 이 Winspear 오페라 하우스는 이전 시대에 공연문화는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생각을 극복하고 건축 계획 상으로는 공연장을 둘러싼 도시와의 연결 또한 훌륭히 해 낸 것으로 생각된다.

### Wyly Theatre, Texas / REX/OMA

REX/OMA의 Wyly 극장의 기계처럼 보이는 타워는 외부세계와의 연결과 함께 퍼포먼스의 유연성을 향상되게 한다.

물결치는 듯한 알루미늄으로 된 파사드의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사각형의 형태와 더불어 Dee&Charles Wyly 극장은 Dallas의 주로 벽돌과 석조로 된 건물이 많은 예술 중심 지구에 매력적으로 등장했다.

전통적인 극장같은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무대가 중앙에 있고 무대를 위한 부수적인 공간을 측면에 위치시켰으며, 지하에 로비가, 무대 공간은 길가 쪽에, 리허설 스튜디오, 사무실, 교실은 모두 위층에 있는 기준의 전통적인 구조와는 변화를 추구하는 9층의 건물을 만들었다. 이 '수직의 도시'는 Texas의 대초원을 반영한다.

이 Dallas 예술 지구의 중심에 있는 AT&T 공연예술극장의 어마어마한 규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고 길 건너편에는 I.M. Pei의 구불구불한 형태를 가진 Meyerson 교향음악당과 피와 같은 붉은 색의 드럼형태를 가진 Foster+Partners의 Winspear 오페라하우스가 있다. 주변의 이런 화려한 건물들을 오식하여 Joshua Prince-Ramus와 Rem Koolhaas는 사무실 건물과 같은 형태를 선택했다.

"수직성이 우리의 주체성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복합문화공간과 도시의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것이다."라고 Koolhaas는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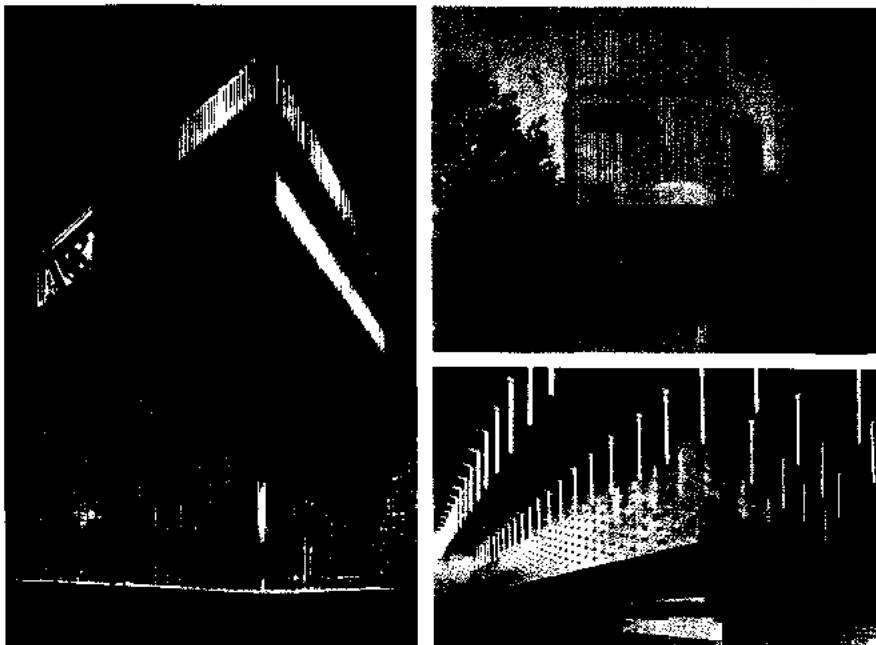
Wyly의 뷰브형태의 알루미늄 외피는 극장의 주름잡힌 커튼을 생각나게 한다. 건축사는 공연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디자인함으로써 협자의 극장을 다시 발명해 냈다.

원치, 리프트, 트랙, 도르래, 그리고 캣 워크와 같은 정교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건물의 구조는 날짜보다는 시간싸움인 공연예술에서 노동력을 업청나게 절감할 수 있게 다시 계획될 수 있었다. 이는 스포츠 콤플렉스나 컨벤션 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공연을 위한 극장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었다.

통로는 막 사이에 재 배열 될 수 있으며 청중은 공연 시작 때는 바닥에 앉아 있다가 마지막에는 부대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 극장에 대해 들어오는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는 엉덩이가 아픈 의자와 발고니 좌석에서의 좋지 않은 시선에 대한 것이고 잦은 불평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보드 게임인 'Chutes and Ladders' 같이 빠져들어 진 건물의 입구이다. 길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고 방문객들은 경사진 콘크리트 램프를 걸어 내려가야 로비에 갈 수 있으며 다시 좁은 내부 계단을 이용해서 좌석에 가서 앉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선은 건축사가 완전히 공연장소가 유연성을 가지기를 원한 것으로부

Wyly Theatre



터 기인하며 이 때문에 로비가 지하층에 계획된 것이다.

아트 디렉터인 Kevin Moriarty는 '로비'에서의 5분간의 불편함은 흥미진진한 무대의 드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건축사들은 생각했다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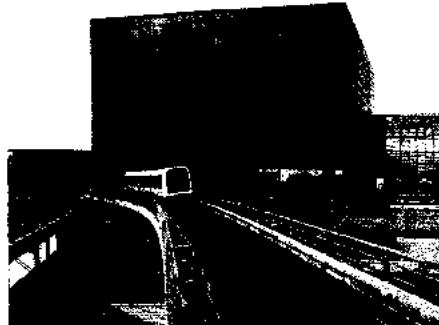
또한 램프는 가파르고 깎달하여 그다지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도 역시 좀 위험하다. 그러나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문객들은 섬서한 하이테크의 공간을 만나게 된다. 소파나 벨벳으로 된 커튼, 그리고 파스하고 차분한 색채는 볼 수 없다. 단지 무언의 콘크리트 벽과 바닥이 있을 뿐이다. 반짝이는 스텐레스 스틸로 된 패널이 위에 걸려 있으며 형광등이 그대로 노출된 채 천장에 매달려 있어 마치 미국의 제트기 Saber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상당히 거친 내부디자인으로 어떤 실내장식가가 멋지게 꾸며낸 것 보다 심각한 미학의 일관성을 가지고 디자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두 번의 공연이 있었으며 특히, 오프닝을 위한 갈라쇼는 어떻게 Wyly 가 궁극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에는 너무나 일찍 열렸었다. Kevin Moriarty는 이 곳에서 어떤 공연이 가능하고 불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곳이 디렉터를 위한 극장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새롭고 놀라운 실험실로 Dallas의 청중들에게 새로운 공연의 밤에 대해 재정의 해 줄 것이다. 두 건축사의 다른 작품들처럼 예쁘거나 감동을 주기보다는 도발적이다. 21세기 예술중심지역에서 이는 좋은 역할을 해 낼 것이다.

#### Copenhagen Concert Hall, Copenhagen / Ateliers Jean Nouvel

Ateliers Jean Nouvel은 Copenhagen Concert Hall을 위해 천상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컨테이너를 고안해 냈다.

지난 1월에 오픈한 Copenhagen Concert Hall에 대한 반응은 그것을 본 그 시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Ateliers Jean Nouvel이 디자인한 이 Concert Hall



은 우리가 방문한 날의 시간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혼타이너 박스로, 오디토리엄으로, 그리고 어떤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Danish Radio와 Danish National Symphony Orchestra에 속해 있는 이 건물은 역사적인 도시 Copenhagen 외곽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의 외부에서 보면 밝은 빛 때문에 비계들이 파란 빛을 내는 천으로 감겨져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듯이 보이기도 한다. 해가 질 무렵에는 천상에서 볼 수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오브제트로 바뀌게 된다. 다양한 레벨을 가진 건물의 입구는 낮 혹은 밤에 따라서 특성이 변한다.

밝은 낮에 메인 로비는 큰 유리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빛과 야기들을 운반했던 운송용 나무상자와 비슷하게 디자인된 군인 스타일의 가구와 어두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연출되는 분위기는 1940년대 전쟁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공항과 같은 느낌을 준다. 밤에는 거친듯 보이는 화려함을 지닌 로비가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나이트클럽처럼 바뀌기도 한다.

낮 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 거대한 Concert Hall의 다양한 모습을 보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기엔 파란색의 새장같이 보일지도 라도 일단 오디토리엄에 들어서게 되면 넓고 따스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멋진 내부를 만날 수 있다. 이 Concert Hall의 파르티를 만들어 낸에 있어 Jean Nouvel은 내부와 컨테이너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명을 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조명 디자이너인 Yann Kersalé 와 함께 작업을 하였다. 플로어 램프는 젖빛 유리로 덮여 경사진 면, 벽의 질감을 돋보이



Copenhagen Concert Hall

게 하는 반면 Hall의 상부에 설치된 조명은 Hall의 운곡이 나타나게 해 준다.

Concert Hall 내부는 물결치는 듯한 곡선이 층을 이루며 벽을 만들고 있으며 이 벽은 Gypsum 보드로 되어 있다. 색채는 해질 무렵에 볼 수 있는 노을 빛으로 조명에 의해 부드럽게 빛난다.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도 음향에 대한 평 또한 긍정적이다. 개관한 지 6개월 후에 Los Angeles Times의 음악 비평가 Mark Swed 에 의해 좋은 평을 받았다. 사실 건물이 그 시각적인 면에 기초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어쩌면 정신분열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건물이 그렇다. 낮에 비계에 천을 써온 파란색 새장같거나 밤에는 재미있는 집 조명 조명 같다는 등의 평이 있다.

실제로 이 건물은 초과된 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 넓고 멋진 메인 흘과 작은 구조의 매력적인 음악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과연 그 정도의 예산(한화로 3천 6백 75억 정도)이 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하는 건물이다. ■